

ISSN 2383-5206

Linguistic Typology Research

# 언어유형론 연구

7권 1호

한국 언어유형론 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inguistic Typology

2022. 02. 28.

# 한국 언어유형론 학회

## 임원

회장 : 목정수(서울시립대학교)  
부회장 : 백은희(인하대학교)  
총무이사 : 정해권(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이사 : 이성현(서울대학교)  
기획이사 : 강병규(서강대학교)  
기획이사 : 동소현(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이사 : 박진호(서울대학교)  
재무이사 : 조은경(서강대학교)  
정보이사 : 도재학(한림대학교)  
편집이사 : 문숙영(서울대학교)  
편집이사 : 임근석(국민대학교)  
홍보이사 : 김현주(공주교육대학교)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박정구(서울대학교)  
편집위원 : 정상철(한국외국어대학교) 한정환(단국대학교)  
김주원(서울대학교) 임동훈(이화여자대학교)  
박진호(서울대학교) 이정훈(서강대학교)  
문숙영(서울대학교) 홍윤기(경희대학교)  
최성호(충북대학교) 최형용(이화여자대학교)  
임근석(국민대학교)

## 자문위원

고영근(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홍재성(서울대학교 명예교수)

Linguistic Typology Research

# 언어유형론 연구

7권 1호

## 차 례

한국어 정보 구조에서 테마-레마와 주제-평언의 분석 -문두성과 대하여성을 바탕으로 .....	정해권 / 1
Some Notes on Issues of Relativization .....	이지은 / 29
한·중 SHARP 형용사의 어휘유형론적 연구 .....	후박문 / 63
한국어 피동에 대응하는 아랍어 동사의 의미지도 .....	강미희 / 95
한국어 양태와 스페인어 서법의 대조 연구 .....	신성은 / 121

## 한국 언어유형론 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inguistic Typology

2022. 02. 28.

# 한국어 정보 구조에서 테마-레마와 주제-평언의 분석 -문두성과 대하여성을 바탕으로-

정 해 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조교수)

**Haegwon Jeong, 2022. An analysis of theme-rheme and topic-comment in information structure of Korean: based on sentence-initial and aboutness. *Linguistic Typology Research* 7(1), 1-28.** The terms ‘theme’ and ‘topic’ in information structure have been used without conceptual distinction. So there was conceptual confusion in many discussions.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analyze how the topic-comment structure introduced by Lambrecht(1994) is related to the theme-rheme structure discussed in Halliday(1967) in Korean sentences. Based on the fact that the most important property of the theme is sentence-initial and that of the topic is aboutness, it is pointed out that the sentence-initial constituent of a sentence is the theme and the topic is an active element about which new information is added to the listener. A preposed object with clitic *-(n)un* in the sentence-initial is analysed as not a topic but a contrastive focus in Korean. And the sentence-initial that represents the possessor and possession marked with *-(n)un* is not only a topic as a whole but also its possessor could be a topic.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information structure, theme, rheme, sentence-initial, topic, comment, aboutness, contrastive focus  
정보 구조, 테마, 레마, 문두성, 주제, 평언, 대하여성, 대조 초점

## 1. 서론

화자가 어떤 내용을 문장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화자 또는 청자의 정보 지위 (information status)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서로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선택은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 차원에서 서로 구별되는 기능(function)을 전달하게 되는데,<sup>1)</sup> 통사 층위에서 상이한

1) 정보 구조 기능(정보 지위)으로 ‘새로움(new), 주어짐(given)’이 제시되었고(Halliday, 1967: 206), 정보 구조 범주로 대화 참여자가 가진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에 대해 추정되는 상태 속성을 ‘최신(brand-new), 미사용(unused), 접근가능(accessible), 주어짐(given)’의 수준으로 배

형식을 갖는 문장들이 의미 층위에서 나타나는 진리 조건적(truth-conditional) 의미가 동일하다고 가정되거나 경우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 (1) a. 그는 어제 연극을 봤다.                    a'. 그가 어제 연극을 봤다.  
b. *He saw the play yesterday.*

예를 들어 (1a-a')의 한국어 문장은 (1b)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지만 주어에 결합한 조사가 다르므로 상이한 뉘앙스를 표시하는데, (1a)의 ‘그는’과 (1a')의 ‘그가’는 통사 구조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에서 해당하지만 화자가 정보 구조의 층위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기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즉, 내용 자체보다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과 관련된 정보 포장(information packaging)에 의한 차이를 보여 주는데(Chafe, 1976: 28),<sup>2)</sup> 정보 포장은 청자의 추정, 신념, 전략 등에 대한 화자의 가정을 반영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제안되었다(Prince, 1981: 224).

- (2) a. *John only showed Mary [the PICTURES].*<sup>강세</sup>  
a'. *John only showed [MARY] the pictures.*<sup>강세</sup>  
b. 영화 노래 [잘 한다.]                    b'. 영화 노래 [자::알 한다.]

하지만 (2)와 같이 정보 포장에 사용되는 강세나 음장, 휴지 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진리 조건적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정보 포장이라는 용어로 이런 현상을 포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Krifka & Musan, 2012: 3-4).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장 구조와 별개로 음조(tone)에 의해 정보 단위(information unit)의 경계를 설정하는 테마화(thematization)를 바탕으로 정보 체계를 연관시키는 개념인 ‘정보 구조’라는 용어가 제안되었다(Halliday, 1967: 199-200). 즉, 음조에 따라 문두의 테마(theme)와 뒤따르는 레마(rheme)의 분절로 정보 구조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열하기도 한다(Lambrecht, 1994: 76, 109). 한편 구정보(주어짐)는 전제된(presupposed) 명제이고 신정보(새로움)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화된 명제에 해당하므로(Dahl, 1976: 38), 특정 지시체를 분절적 요소로 가리키는 ‘새로움, 주어짐’라는 용어 사용이 배제되고 명제를 대상으로 한 단언(assertion)과 전제(presupposition)로 대체하여 부르기도 한다(Lambrecht, 1994: 49-50).

2) Chafe(1976: 28)은 정보 포장 현상이 ① 주어짐/새로움, ② 대조 초점, ③ 한정성, ④ 주어, ⑤ 주제, ⑥ 화자 관점 등을 나타내는 명사와 관련된다고 보았는데, 테마는 주제와 같고 (3)처럼 문두에 성분을 위치시키는 것을 주제화(topicalization)로 보았다(Chafe, 1976: 49). 하지만 주어는 통사 구조와 관련되며(Halliday, 1967: 213), 한정성(definiteness)도 심리적 활성화 상태를 불완전하게 나타내는 요소로 정보 구조 기능에서 제외되기도 한다(Lambrecht, 1994: 84).

- (3) a. *John* 테마 | *saw the play yesterday*.레마  
주어집 새로움
- a'. *Yesterday* 테마 | *John saw the play*.레마
- b. Q : *What did John see?*  
 A : *The play* 테마 | *John saw yesterday*.레마  
새로움 주어집

(3a-a')과 같이 테마와 레마는 정보 구조에서 각각 주어집과 새로움을 나타낼 수 있지만, (3b)의 답변처럼 문맥에 따라 테마-레마 분절과 독립적으로 새로움-주어집의 정보 구조 해석으로 달라질 수 있다(Halliday, 1967: 205-206, 212). 이때 문장 구조에 의존적인 테마 구조(thematic structure) 및 문장 구조와 독립적으로 분석되는 정보 기능이 별도의 층위로 가정된다.

그 책은      영수가      나에게      주었다.

(4)	층 위	피동작주역 (patient)	동작주역 (agent)	수혜자역 (recipient)	서술자역 (predicator)	의미 구조
		목적어(object)	주어(subject)	보어 (complement)	서술어 (predicate)	통사 구조
		테마(theme)	레마(rheme)			테마 구조
		주어집(given)	새로움(new)	주어집(given)		정보 기능

이는 통사 구조가 발화 조직, 문장 의미 구조, 문장 문법 구조라는 세 가지 층위로 나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인데(Daneš, 1964: 226),<sup>3)</sup> 발화 조직 층위와 관련하여 정보 구조에 대응하는 테마 구조를 제안하면서 Halliday(1967: 199-200)은 테마(theme)와 주제(topic)의 개념을 구분하고 주제는 구별되는 두 층위의 기능인 테마와 주어집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sup>4)</sup> 따라서 (4)와 같이 한 문장이 갖는 다층적

3) Firbas(1962: 137)은 기능 문장 투시법(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에서 제안한 통보력(communicative dynamism)이 기본적으로 의미 구조나 문법 구조와 겹쳐서 분포하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미 구조와 문법 구조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생성 의미론에서는 기저의 의미 표상(semantic representation)에 전제(presupposition), 주제(topic), 초점(focus)을 위한 자리가 있으며, 의미 표상이 심층 구조에 대응하고 다시 변형을 거쳐 표면 구조인 문장으로 표현된다고 주장하였다(Lakoff, 1971: 234, 269). 김영희(1978: 45)는 세 층위를 전달 구조, 개념 구조, 통사 구조라고 칭하였으며, 임흥빈(2007: 22)는 이를 사용 층위, 의미 층위, 통사 층위로 표시하였다. 한편 화용론이 언어 형식이 의사소통 기능을 갖는 맥락과 결합되는 [형식, 기능, 상황] 관계에 대한 연구라는 관점(Fillmore, 1976: 83)에서 Lambrecht(1994: 2-4)도 (의미에 집중하는 일반 화용론과 달리) 문법과 담화의 관계를 연구하는 담화 화용론(discourse pragmatics)의 차원에서 정보 구조를 다루었다.

4) Halliday(1967: 200)은 테마-레마 구조에 집중하며 주제-평언(topic-comment)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하였다. 한국어 논의에서 theme을 주제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고는 이야기(담화)의 주제인 화제(話題, discourse topic)와 구별하기 위해 문장 단위의 topic을 ‘주제(主題)’라고 칭한다(장석진, 1994: 31).

4 언어유형론 연구

구조에 대해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 이외에도 테마 구조와 정보 기능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Halliday, 1967: 215),<sup>5)</sup> 정보 체계는 정보 구조 기능(정보 지위)이 테마-레마 구조에 대응함으로써 실현된다. 이처럼 화자나 청자의 정보 지위를 표시하는 방법이 체계적이고 구조적이라는 측면에서 정보 포장보다 정보 구조라는 용어가 선호된다(Lambrecht, 1994: 2). 즉, 정보 구조는 화자와 청자의 정보 지위라는 심리적 상태가 언어 형태와 관계를 맺으며 문법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분석한다.<sup>6)</sup>

- (5) a. <sup>ひと</sup>あの人は<sup>あなた</sup>貴方<sup>ともだち</sup>の友達です。 평언  
 ano hito-wa anata no tomodati-desu  
 이 사람-은 너-속격 친구-계사
- b. *John* 주제 | *ran away*. 평언
- c. *That new book by Thomas Guernsey* 주제 | *I haven't read yet*. 평언

한편 Hockett(1958: 191, 201)은 내심적 문장 구문의 하나로 서술문(predicative)을 상정하면서 그 직접 구성 성분이 주제(topic)와 평언(comment)이라고 소개하였는데, 화자가 주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의 평언에서 그것에 대해(about) 무언가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대하여성(aboutness, 언급대상성)’을 통해 주제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5a-c)와 같은 문장들을 통해 전반부가 주제에 해당한다고 제시하면서 (5a)의 일본어 wa(は)에 선행하는 요소가 주제이며 영어에서는 (5b)처럼 일반적으로 주어와 술어가 주제-평언 구조에 대응한다고 제시하였다. Kuno(1972: 272)도 문장에서 주제는 전제(presupposition)의 일부이며 화자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지시한다고 설명하며 주제를 대하여성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테마를 문두(clause-initial)의 구조적 성분으로 파악하고 주어짐과 관련된 주제와 구분하는 설명(Halliday, 1967: 200)과 주제-평언 구조를 바탕으로 대하여성에 의해 주제를 정의하는 설명(Hockett, 1958: 201)이 양립하였지만, 테마와 주제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테마를 대하여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Mel'čuk, 2001: 18). 따라서 테마와 주제라는 용어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는 논의가 있는가 하면 이를 같은 것으로 다루는 논의도 존재하였고, 테마나 주제를 문두성, 주어짐성, 대하여성 등의 상이한 기능을 바탕으로 정의함으로써 정보 구조 논의에서 혼란이

5) Halliday(1967: 215)는 이를 타동성(transitivity), 서법(mood), 테마화(thematization), 정보 초점(information focus)이라고 표시하였다.

6) Lambrecht(1994: 5)는 정보 구조를 ‘대화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주어진 담화 맥락에서 정보 단위의 구조를 사용하고 해석함으로써 사태의 개념 표상인 명제와 어휘-문법 구조가 대응하는 문장 문법의 요소’라고 정의하며 정보 구조가 화용 층위뿐만 아니라 통사 층위에서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한편 Krifka & Musan(2012: 1)은 정보 구조를 ‘화자가 청자의 현재 정보에 대해 고려하거나 더 나아가 현재의 정보 흐름을 촉진하도록 돕는 자연 언어의 양상’이라고 서술하였다.

가중되었다.

- (6) a. *The play* 테마 | *John saw yesterday.*레마  
 b. *Detective stories* 주제 | *I don't like.*  
 c. *Really good meals* 초점화 | *they serve at this restaurant.*

이와 같은 용어와 개념의 혼동으로 인해 (6)과 같이 목적어가 문두에 위치하는 구문에 대해 Halliday(1967: 212)는 (6a)를 테마-레마 구조로 분석하였지만, 생성 언어학의 입장에서 Heageman(1998: 5)은 (6b)를 주제화(topicalization)로 예시하였으며, Mel'čuk(2013: 348)은 (6c)를 테마(주제)이면서 초점화된(focalized) 요소라고 설명하였다.<sup>7)</sup> 그리고 이와 같은 개념과 용어의 혼용은 한국어에 대한 논의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어 정보 구조 논의에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 (7) a. 테마와 주제는 구별되는 개념인가?  
 b. 테마는 어떤 특성을 바탕으로 정의되는가?  
 c. 주제는 어떤 특성을 바탕으로 정의되는가?  
 d. 테마와 주제를 바탕으로 한국어 정보 구조는 어떻게 분석되는가?

그런데 테마와 주제의 개념을 동일시하는 입장에서는 상이한 기능을 동일시하므로 앞서 살펴본 혼란을 바로 잡기가 어렵고 더 이상의 논의를 진전시킬 여지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문두 위치에 기반한 구조적 테마를 주어짐 또는 대하여성에 의한 주제와 구분함으로써 관련된 현상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논의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테마와 주제의 구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탐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한국어 정보 구조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완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2. 테마-레마 구조와 문두성

정보 구조 분야는 문장의 의미-문맥 구조가 어순(word order)과 관련이 있으며

7) Mel'čuk(2013: 339)에서 설명하는 초점화(focalization)는 논리적 현저성을 갖는 요소를 가리키므로 초점화 요소는 주제일 수도 있다. 반면에 Lambrecht(1994: 206-207)은 초점(focus)을 발화에서 예측불가능한(복구불가능한) 요소이며 전제와 단언을 서로 다르게 하는 정보 요소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주제와 상보적 분포를 갖는 초점과 초점화 요소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생각의 진행에 따라 어순이 결정된다는 원리가 제안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Weil, 1844: 12; Firbas, 1957: 72). 즉, 문장 구조와 의미 구조의 관계에서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앞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객관적인(비감정적인) 어순이며,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앞서는 역순은 특별한 감정을 전달한다고 설명되었다(Weil, 1844: 25, 49). 이 같은 입장에서 문장 선형성(sentence linearity)이 받아들여지며 문장 요소의 통보력이 문두에서 가장 낮게 시작하고 점차 문말로 갈수록 높아진다고 가정되었다(Firbas, 1962: 136).

또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일깨울 목적으로 문장이 두 부분으로 분절된다는 주장이 정보 구조 이론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데(McElvenny, 2019: 27),<sup>8)</sup> 청자의 주의를 향하게 되는 ‘심리적 주어(psychologische Subjekt)’와 청자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심리적 술어(psychologische Prädikat)’로 나누는 주장이 대표적이다(Gabelentz, 1869: 378).<sup>9)</sup> 즉, 화자는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먼저 두고 무엇을 나중에 들지 결정하게 되는데, 심리적 주어는 화자가 생각을 자극하기 위해 제시하는 것이고 심리적 술어는 그것에 대하여(darüber/about that) 생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Gabelentz, 1891: 369-370).<sup>10)</sup>

- (8) a. *Der 16. März* 심리적 주어 | *ist mein Geburtstag*. 심리적 술어  
관사 16 3 월                                    계사 나.속격 생일  
a'. 3 월 16 일은 | 내 생일이다.  
b. *Mein Geburtstag* 심리적 주어 | *ist der 16. März*. 심리적 술어

예를 들어 (8a)의 독일어 문장에서 *der 16. März*는 문장의 두 부분 중 하나인 심리적 주어에 해당하며 나머지 부분은 어떤 날에 대한 것으로 그것이 ‘내 생일’이라는 것을 전달함으로써 (8b)와 다른 의미를 표현한다(Gabelentz, 1891: 370). 이와 유사하게 Paul(1880: 111-112)도 문장의 주어와 술어라는 두 요소가 심리적 관계에

8) Marty(1965: 137, 260)를 참고하여 Kuroda(1972: 154)는 문장이 나뉘지 않는 단일 판단의 제언문(thetic sentence)과 둘로 나뉘는 이중 판단의 정언문(categorical sentence)을 구분하였고, Lambrecht(1994: 223)도 단일 구조인 문장 초점과 이분 구조인 술어 초점(주제-평언) 및 논항 초점(초점-전제)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주제-평언과 전제-초점이 한 문장에 나타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Dahl(1974: 2)의 제안을 따라 Valldví(1990: 57)는 문장={초점, 바탕}, 바탕={연결, 꼬리}에 의한 삼분 구조를 제시하였으며, 박철우(2017: 138)도 이와 유사한 ‘주제-[전제-초점-(전제)]’ 구조를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함병호(2018: 44)는 정보 단위가 이 같은 구분 없이 문장 성분처럼 독립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9) 심리적 주어와 구별되는 통사 층위의 주어를 문법적 주어(grammatical subject) 또는 논리적 주어(logical subject)라고 칭하기도 한다(Chafe, 1976: 27).

10) 초기 논의에서 문장이 앞-뒤로 이분되는 구조가 정보 구조와 관련된다고 이해하는 입장이 일반적이었지만 대하여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반하여 구성되며 심리적 주어는 화자 의식에 처음 존재하는 생각 덩이이고 심리적 술어는 이를 뒤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서 좀 더 나아가서 Mathesius(1928: 62-63)은 심리적 주어와 심리적 술어를 ‘테마(theme, Thema)’와 ‘제술(enunciation)’이라고 지칭하면서, 테마는 문법적 주어와 대응되고 제술의 중심부는 술어에 해당하므로 테마-제술이라는 견고한 순서가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후 문장에서 테마에 대응하고 의사소통 핵심(communicative nucleus)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 조각을 전달하는 부분을 ‘레마(rheme, Rhema)’라고 지칭하면서,<sup>11)</sup> 테마-제술은 테마-레마 구조로 불리게 되었다(Firbas, 1957: 72). 이처럼 문장 구조와 구별되는 심리적 관계를 테마-레마로 양분하여 살펴보는 논의는 현대적 관점에서 정보 구조 이론의 시초로 언급되고 있다(Fréy & Ishihara, 2016: 3).

- (9) a. Q: *I know who proved soundness. But who proved COMPLETENESS?*  
 A: MARCEL<sub>H\* L</sub> 테마 // proved<sub>L+H\*</sub> COMPLETENESS<sub>LH%</sub>.레마
- b. Q: *I know which result Marcel PREDICTED. But which result did Marcel PROVE?*  
 A: Marcel<sub>L+H\*</sub> PROVED<sub>LH%</sub> 테마 // COMPLETENESS<sub>H\* LL%</sub>.레마

이런 흐름에서 Selkirk(1984: 286)은 문장을 구성하는 억양구가 통사 조건보다 의미 단위(sense unit)와 관련되어 형성되며, 문장의 억양 구조가 정보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구성되고 그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았다. 또한 Steedman(1991: 275)도 이런 구조적 의미 접근(structured meanings approach)의 입장에서 (9)와 같이 의미에 따라 억양 구조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런 억양의 특성이 테마와 레마의 구분과 같은 정보 구조를 나타낸다고 예시하였다(Steedman, 2000: 656).

한편 테마가 주제와 동일시되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문두 성분을 주제로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입장에서는 문장 위치를 바탕으로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 (10) a. *John*<sub>주제</sub> *was persuaded by Bill to leave.*  
 b. *John*<sub>주제</sub> *was persuaded by Bill to be exami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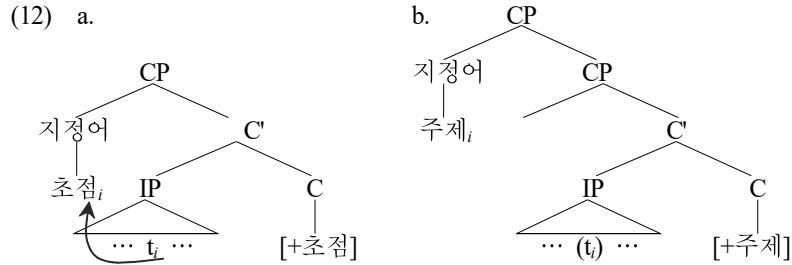
Chomsky(1965: 70)은 (10)의 예를 통해 John이 표층 구조에서 persuade의 문법적 주어이지만 심층 구조에서 Bill이 논리적 주어라고 설명하면서, 주제-평언이 심층

11)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안한 로고스(logos, λόγος), 오노마(onoma, ὄνομα), 레마(rhema, ῥήμα)라는 용어는 이후에 각각 문장/명제, 주어/명사, 술어/동사로 이해되기도 하였는데, 레마는 다른 무언가에 대해 말해 주는 기호이며 다른 무언가를 서술하는 속성을 갖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Law, 2003: 29).

구조의 주어-술어와 관련된 표층 구조의 문법 관계이며 주제는 표층 구조의 주어를 지배하는 가장 왼쪽의 명사구라고 정의하였다(Chomsky, 1965: 221).

- (11) a. *It is easy to play sonatas on this violin.*  
 b. *This violin<sub>주제</sub> is easy to play sonatas on.*  
 b'. {About/Concerning} *this violin<sub>주제</sub> it is easy to play sonatas on.*  
 c. *Sonatas<sub>주제</sub> are easy to play on this violin.*

이와 같이 생성 의미론에서 주제는 논의되고 있는 것을 지시하며, 그 문법적 장치로 전치(preposing)가 일반적이라고 설명된다(Lakoff, 1971: 236). 예를 들어 (11a)는 중립적인 문장이지만 (11b, c)는 문두에 오는 성분이 주제이며, (11b')과 같이 about이나 concerning을 통해 주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특정 명사구와 전제가 관계 술어 concern(is about)의 두 논항이고 전제의 집합이 이를 포함하면, 그 명사구가 전제의 주제가 된다. 다시 말해 주제는 전제의 특별한 경우로 전제 구조에 특별한 자리를 갖는다고 설명되었다(Lakoff, 1971: 263).<sup>12)</sup>



이런 생성적 관점에 의한 한국어 논의에서도 통사 구조 상으로 (12)와 같이 초점은 의문사처럼 문두(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되어 표시되며(최현숙, 1992: 270), 주제는 CP의 위에 부가된 CP의 지정어 자리에 나타나므로 주제가 초점의 앞에 위치한다고 설명되었다(서정목, 1999: 269; 이정훈, 2008: 312).<sup>13)</sup>

이처럼 주제와 관련된 심층 주어(deep subject)가 표면 구조에서 유지된다는 관점은 주제-평언 분절(topic-comment articulation)로 의미 표상을 설명하게 되었으며(Sgall & Hajičová, 1971: 10, 35), 이는 다시 주제-초점 분절(topic-focus articulation, TFA)로 수정되어 주제는 알려진(known)/주어진 정보에 대응하고 초점은 신정보를 전달하는 문장 구조의 일부로 보는 관점으로 이어졌다(Hajičová et al., 1998: 3).<sup>14)</sup>

12) Lakoff(1971: 235)의 전제는 화용적 함축(pragmatic implication)에 해당한다.

13) 박소영(2019: 39, 51)는 CP 위에 화용구를 도입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즉, 기능-생성적(functional-generative) 관점에서 테마와 주제는 동일시되고, 문장의 정보 구조는 주제와 초점으로 이분하며, 주제는 구정보, 초점은 신정보로 처리하게 되었다. Gundel & Fretheim(2004: 176, 179)도 관계적 주어짐성(relational givenness) 과 관련된 주제-초점 구조에서 초점은 주제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며 초점의 보어가 주제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주제-평언이나 테마-레마를 구정보(주어짐) 및 신정보(새로움)의 구별과 연관시키면서, 평언이나 레마 대신에 신정보라는 용어를 통해 동사구나 명사구 내의 특정 의미 단위에 추가되는 특정 사항을 지칭하고자 하는 입장도 피력되었다(Chafe, 1970: 211-212).<sup>15)</sup> 이와 같은 주장들은 레마를 초점과 연관시켜 이해하는 입장과 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

- (13) a. Q : *What about the boy?*  
 A : [*The boy*]<sub>테마</sub> | [*ate the apple.*]<sub>레마</sub>  
 b. Q : *What are we having for dinner?*  
 A : *MUTTONBIRD.*<sub>레마</sub>  
 A' : [*We are having*]<sub>테마</sub> [*MUTTONBIRD*]<sub>레마</sub> [*for dinner.*]<sub>테마</sub>

Mel'čuk(2001: 18) 또한 현재 발화에서 의미 부분이 레마에 해당하고 테마는 레마가 서술하고 그것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것이라고 지칭하면서, 문장에 대한 적절한 대답과 이에 대한 기저 질문에서 기저 질문이 테마이고, 나머지 부분이 레마라고 설명하였다. Vallduví(2016: 733, 740)도 QUD(question under discussion, Carlson, 1983)의 관점에서 질문의 대답이 레마이며 그 외의 부분이 테마라고 설명하면서, 레마가 초점의 한 유형인 대답 초점(answer focus)에 해당한다고 서술하였다. 즉, 레마-테마 구조를 질문의 대답인 완성 초점(completive focus, Dik et al., 1981: 60) 또는 정보 초점(information focus, Gundel & Fretheim, 2004: 181)과 나머지 부분인 열린 명제(open proposition, Prince, 1986) 또는 전제(배경/바탕)로 이해되는 구조로 본 것이다.

- (14) a. *What does John drink?* - 

주제	평언
<i>John</i>	<i>drinks beer.</i>
전제	초점

14) Halliday(1967: 200)에서 테마는 주제와 구별되고 어순과 연결되어 문장의 첫 위치에 대해 사용되었지만, 정보 구조가 더 넓게 변화하는 기능을 나타내므로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주제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Hajičová et al. 1998: 103).

15) Lyons(1968: 335)도 새로움과 평언을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b. 민호가 뭘 마셨어? -	주제	평언
	민호는 맥주 마셨어.	
	전제	초점    전제

그런데 (14)와 같이 질문-대답 쌍에서 대답 문장에는 주제-평언 구조와 전제-초점 구조가 함께 나타날 수 있지만(Vallduví, 1990: 55), 이는 서로 상이하게 분석되는 요소이며 질문과 대답을 통해 문장에서 두드러지는 요소는 주제나 테마보다 초점에 해당한다. 하지만 테마-레마를 주제-평언이나 전제-초점과 동일시함으로써 언어 현상의 기술에 상이한 개념과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한국어 정보 구조에 대한 논의에서도 테마와 주제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15) a. 고향은 | 내가 간다.  
b. 그 책은 | 영수가 나에게 주었다.

예를 들어 김영희(1978: 44-45)는 (15)의 ‘고향은, 그 책은’이 주제라고 언급하면서 Halliday(1967: 199)의 층위 구분을 따라 ‘주제(theme)’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Hockett(1958: 201)의 견해를 인용하며 주제(topic)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sup>16)</sup> 또한 한국어에서 ‘문두에 한정사가 붙은 명사’처럼 문두 성분을 주제로 보는 입장(박승운, 1986: 8)이 다수 피력되었는데, 이는 문두의 테마를 주제와 구분하지 않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문장의 정보 구조를 이분하는 논의에서 심리적 주어 또는 테마가 레마에 선행하는 견고한 구조가 있음이 강조되어 왔으며(Gabelentz, 1869: 378; Mathesius, 1928: 62), Halliday(1967: 199, 205)는 정보 체계에 대한 문법 구조로 문장 앞쪽에 위치하는 테마가 항상 레마에 선행하는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즉, 문두의 테마는 그것에 대해 말해지고 있는 대상이며, 메시지의 출발점(point of departure)을 가리킨다(Halliday, 1967: 212). 이처럼 체계-기능(systemic functional) 언어학에서 테마의 특별한 한 유형인 ‘주제적 테마(topical theme)’는 테마와 주어짐이라는 두 개념을 함께 담당하는 용어로 구별한다(Halliday & Matthiessen, 2014: 89).<sup>17)</sup> 또한 기능 문장 투시법에서 문두는 통보력이 가장 낮은 위치로 설명되는데(Firbas, 1962: 136), 문두는 문장 구조에서 현저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정보 구조에서 메시지의 나머지 부분과 분절되는 대립적 의미를 갖는다.<sup>18)</sup>

16) 임흥빈(2007: 89, 93)도 topic을 주제라고 칭하면서 Mathesius(1928)나 Halliday(1967)의 theme도 주제라고 번역하였다.

17) Eggins(2005: 301-302)는 타동성 기능 가운데 행동주(Actor), 행위자(Behaver), 감각자(Senser), 정황(Circumstance)이 할당될 수 있는 절 요소가 절의 첫 위치에 놓이는 것을 주제적 테마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정보 구조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반드시 문두 성분일 필요가 없으며, 대하여성이나 주어짐(구정보)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테마와 주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sup>19)</sup> 따라서 주제가 문두에 나타나고 테마와 일치하는 배열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문두 성분과 주제를 일치시키는 것은 정보 구조의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16) a. 아 참, 영이야, 도시락, | 내가 그걸 놓고 왔다.  
 b. 그러면은 | 열릴 거야.

문두 성분을 주제와 구별되는 테마로 구분하면 (16a)와 같이 감탄어(‘아 참’), 호격어(‘영이야’), 제시어(‘도시락’)과 같은 요소를 주제구로 분석하는 논의(박소영, 2019: 51)를 피할 수 있다(박철우, 2021: 71). 또한 (16b)처럼 접속어에 ‘은/는’과 같은 조사가 결합하더라도 이를 주제가 아닌 테마로 분석함으로써 번거로운 논의를 피할 수 있다(Halliday & Matthiessen, 2014: 107). 따라서 어순 및 구조적 기반을 가진 테마와 구분되는 주제를 별도의 개념으로 설정함으로써 정보 구조 분석에서 혼란을 줄이고 지시체의 정보 지위(정보 구조 기능)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수 있다.

### 3. 정보 구조와 통사 구조의 대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 구조는 문장의 의미 구조나 통사 구조와 구별되는 층위에서 나타나지만 이들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정보 구조와 통사 구조 사이의 대응에 나타나는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정보 구조 논의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담화의 정보 구조 조직은 ① 주어짐-새로움의 정보 단위를 갖는 정보 체계, ② 문장에 테마-레마 구조를 할당하는 테마 체계, ③ 문장에 피확인항(identified)-확인항(identifier)을 지정하는 확인(identification) 체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Halliday, 1967: 236).

- (17) a. *Which is John?* - *John is the leader.* 확인항  
 b. *Who is the leader?* - *John 확인항 is the leader. / The leader is John.* 확인항

18) 본고에서 테마는 문두에 위치하며 이에 뒤따르는 레마와 분절적 구조를 이루는 성분으로 보며 통보력의 선형성은 가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Halliday, 1967: 199).

19) 이인영(1996: 69-70)도 theme을 주제, topic을 화제라고 칭하면서 테마와 주제의 용어 구분을 주장하였으나 Halliday(1967: 200, 212)와 달리 담화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테마와 발화의 심리적 출발점으로서의 주제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기사문(동등절, equative clause)은 테마-레마 체계에서 특별한 한 유형인데, 확인 관계에서 피확인항(identified)-확인항(identifier)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갖는 구조로 설정된다(Halliday, 1967: 223-224). 기사문의 확인항은 가정된 질문의 의문사에 대응하는 요소로 새로움에 해당하며, 기사문에서 피확인항-확인항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주어-주어-새로움에 대응한다. 따라서 (17a-b)와 같이 가정된 질문에 따라 확인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17b)의 대답처럼 피확인항과 확인항이 서로 역순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sup>20)</sup> 즉, 이와 같은 대답들에서 테마는 상이할 수 있지만 질문-대답에서 대답으로서의 정보 초점(새로움)은 동일하게 확인항이다.<sup>21)</sup>

- (18) a. Q : *Which is the leader?*<sup>22)</sup>  
           보어                  주어  
       b. A : *The leader is John.*                  b'. A : *John is the leader.*  
           피확인항/변항          확인항/값                  확인항/값          피확인항/변항  
       c. Q : *Which is John?*  
           주어                  보어  
       d. A : *The leader is John.*                  d'. A : *John is the leader.*  
           확인항/변항          피확인항/값                  피확인항/값          확인항/변항

한편 기사문에서 가정된 질문을 바탕으로 피확인항-확인항뿐 아니라 변항(variable)과 값(value)라는 개념을 통해 테마화와 정보 구조의 차이가 설명된다(Halliday, 1967: 227). (18a)에서 가정된 질문은 ‘the leader가 존재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 누구냐?’는 것이다. 즉, 변항인 the leader의 값이 무엇이나는 것을 묻는데, (18a)의 주어인 the leader는 피확인항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보어가 의문사로 질문되고 있다. 이때 (18b-b')처럼 어순과 상관없이 확인항이 그 값인 John이라는 신정보를 전달하는데, (18b)와 같이 주어가 피확인항이며 변항인 구조가 무표적 테마에 해당한다. 즉, 무표적으로 변항-값의 테마-레마 구조는 주어-

20) 유사 분열문(pseudo-cleft sentence) 형식의 확인문(identifying clause)은 피확인항-확인항 어순으로 테마인 피확인항의 확인 기능을 나타낸다(Halliday, 1967: 225).

*John painted the shed last week.* → *What John painted last week* 피확인항 | *was the shed.*

21) Halliday(1967: 204)는 초점이 놓이는 신정보가 이전 담화에서 복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초점을 일종의 강조(emphasis)로 보고 강세가 놓이는 단어와 혼용하여 지칭한다. 그런데 정보 초점(확인항)과 강세 초점의 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대조 초점(contrastive focus)이나 ‘대신’ 또는 ‘추가’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피확인항이 강세 초점을 받아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22) Halliday(1967: 227)은 추가적으로 주어-보어 구조인 *Which is the leader?*, 보어-주어 구조인 *Which is John?*에 대한 부호화 등과 같이 다양한 조합도 예시하였다. 한편 한국어는 “누가 반장이니?/반장이 누구니? - 민호가 반장이야/반장은 민호야.” 또는 “누가 민호니?/민호는 어떤 사람이니? - 반장이 민호야/민호는 반장이야.”처럼 피확인항/확인항이 변항/값과 상이한 형식으로 대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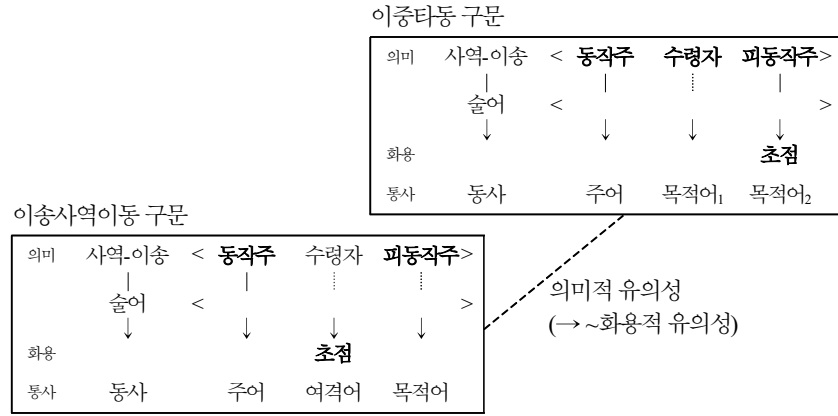
-새로움의 피확인항-확인항 결합에 대응한다. 반면에 (18c)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이 John을 나타내느냐?’에 해당하며, 값인 John에 대한 변항을 찾는 질문이다. (18c)의 질문에 대한 (18d-d')과 같은 대답에서 피확인항/확인항에 대한 변항/값의 대응이 (18b-b')와 상이한 결합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정보 구조에 따라 피확인항/확인항과 변항/값의 조합에 다양한 부호화(coding)가 가능하므로 정보 구조를 다양한 층위에서 검토하는 관점은 하나의 층위로 파악하는 관점보다 현상을 보다 정교하게 묘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18b)와 (18d)는 동일한 형식의 문장이고, (18b')과 (18d')도 표면적으로 같은 문장이지만, 가정된 질문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정보 구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이한 확인 관계를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인 의미-화용적 차이가 형태 통사적 층위의 차이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고 동일한 형식이 상이한 명제적 내용을 표현할 수도 있으므로 담화적 조건과 통사적 형식 사이에 일대일 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비슷한 의사소통 상황의 조건이 이를 표현하는 문장 형식을 결정한다고 보기도 어렵다(Lambrecht, 1994: 26, 30).

이처럼 특정 형식을 특정 용법과 일대일로 대응시키기는 어렵지만 특정 문장 형식이 특정 화용 기능과 대응하는 집합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능이 할당되는 통사 패턴을 구문(construction)이라고 한다(Fillmore, 1988: 36). 즉, 문법적-화용적 요인 사이에 일련의 체계적 대응이 존재한다(Lambrecht, 1994: 43). 그리고 구문의 의미는 의미역 목록을 통해 표시되고 의미역이 문법 관계에 의한 논항과 연결되는데, 논항의 윤곽화(profiling)를 통해 주제나 초점과 같은 의미-화용적 현저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Goldberg, 1995: 48-49). 따라서 문법 구문은 통사, 의미, 화용의 여러 층위를 기술하며, 다양한 형식의 문법 구문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미-용법의 대응을 표현할 수 있다(Lambrecht, 1994: 34).

- (19) a. *John gave Mary an apple.* (이중타동 구문)  
 a'. *#She gave an old man it.*  
 b. *John gave an apple to Mary.* (이송사역이동 구문)  
 b'. *#Mary gave a brand-new house to him.*

예를 들어 영어에서 (19a)와 같은 이중타동(ditransitive) 구문과 (19b)의 이송사역이동(transfer-caused-motion) 구문 사이에 의미적 유의성은 있지만 화용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영어 이중타동 구문에서 수령자는 보통 비초점 요소인 인칭대명사로 나타나고 전달되는 대상이 초점을 받는데, (19a)는 대상이 비초점의 대명사이고 수령자에 초점이 놓이므로 어색한 문장이 된다. 반면에 영어의 이송사역이동 구문에서는 수령자에게 초점이 놓이므로 (19b)와 같이 피동작주에 초점이 놓이면 적절하지 않다(Goldberg, 1995: 91-93).



<그림 1> 이중타동 구문과 이송사역이동 구문의 의미 관계(Goldberg, 1995: 91-93).

영어 이중타동 구문과 이송사역이동 구문의 정보 구조가 나타내는 관계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두 구문이 의미 층위와 통사 층위에서 대응하는 구조에서 어떤 성분의 화용 층위에 초점이 놓이는지를 표시하고 있다. 다만 두 구문의 관계가 문법적으로 연결되는 상속 관계가 아니라 단지 의미적 유의성에 기반한 관계이므로 두 구문이 점선으로 연결된다(화용적 유의성도 아니다).

이처럼 정보 구조는 담화-화용적 층위의 정보를 표시하지만 통사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함께 파악해야 하며, 이를 구문을 통해 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박철우(2019: 369)은 한국어 정보 구조와 관련하여 분열 구문, 분리 구문, 피동 구문, (무생략) 주술 구문, 대조 초점 구문 등을 예시하기도 하였다.

#### 4. 한국어의 대조 구문과 주제 구문 사례 분석

##### 4.1. 한국어의 목적어 전치 대조 구문

한 문장의 주제는 문장으로 표현된 명제가 그것에 대해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문맥에서 화자가 진술하는 의사소통 의도를 통해 대상 지시체에 관한 정보가 청자의 심적 상태에 전달되며 문장의 명제가 화용적으로 현재 관심이나 흥미의 대상에 대한 적절한 정보로 해석되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지시체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는 명제가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자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표현이 명제의 주제로 파악된다(Lambrecht, 1994: 118, 120, 131). 이처럼 대하여성과 문맥의 적절성(relevance)에 의해 정의되는 주제는 문장에 의해 환기되는 화용적

전제 안에 있는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sup>23)</sup> 따라서 주제로 적합한 등급은 대략적으로 ‘활성(주어짐)>접근가능>미사용>최신’과 같은 순서로 배열되며, 이 중에 활성 지시체가 주제로 선호된다(Lambrecht, 1994: 165).<sup>24)</sup>

- (20) a. *What happen to your car?*  
 b. *My car/It* 주제 *broke DOWN*.평언
- (21) a. 문장 : *My car broke DOWN.*  
 b. 전제 : “화자의 차가 평언 X 의 주제이다.”  
 c. 단언 : “X = 고장났다”  
 d. 초점 : “*broke down*”  
 e. 초점 영역 : 동사구

영어에서 (20a)와 같은 질문에서 적절하게 사용되는 담화 상황으로 (20b)와 같은 대답이 주어지며, 이는 주제-평언(서술어 초점) 구조로 분석된다. 이때 문장의 주어는 주제이며 비초점 요소이기 때문에 대명사나 영형태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20b)의 문장이 갖는 정보 구조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단언은 주제 지시체가 술어로 표현되는 사건과 대하여성 관계를 가지며, 서술어가 초점임을 알 수 있다(Lambrecht, 1994: 226).

- (22) a. *Once there was a wizard. ... Now the wizard he lived in Africa.*  
 b. *The product I feel less good about.*

한편 (22a)의 마지막 문장이나 (22b)에서 전치된 명사구는 일반적으로 주제화된 성분으로 설정되지만, 지시체와 명제 사이의 화용적 대하여성을 나타내는 요소라기 보다 주제를 소개하는(topic announcing) 명사구이며, 후행하는 강세 없는 대명사가 활성 상태의 지시체를 기호화하는 주제로 파악된다(Lambrecht, 1994: 147, 188). 즉, 다중 주제(multiple topic)를 가정하면 (22b)에서 I가 일차 주제이고 the product는 이차 주제가 된다고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분석은 소위 주제화에 의해 문두에 표시된 성분이 화용적으로 주제가 아닐 수 있으며 강세 없는 대명사와 같은 다른

23) 주제는 전제 안에 있다고 가정되지만, 발화에 의해 새롭게 도입되면서 주제로 확립되는 비인가 주제(unratified topic)도 존재한다(Lambrecht & Michaelis, 1998: 500). 한편 발화 상황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전제에 없어서 발화를 통해 전제에 존재하게 되는 것을 화용적 수용(pragmatic accommodation)이라 한다(Lewis, 1979: 172).

24) 활성(active) 상태는 특정 시점에 분명하게 인식되어 의식의 초점을 받는 심적 표상을 말한다(Chafe, 1987: 22; Lambrecht, 1994: 94).



- (25) a. Q : 라테는<sup>전제</sup> 누가<sup>초점</sup> 시켰니?<sup>전제</sup>  
 A : 라테는 제가 시켰어요.  
 a'. A : 라테를 제가 시켰어요.  
 b. Q : 라테는<sup>주제</sup> [뭐]니?<sup>평언</sup> (라테에 대하여 어떤 것인지를 물음)  
 A : ?라테는 제가 시켰어요.  
 c. Q : 뭐를<sup>초점</sup> 내가 시켰니?<sup>전제</sup>  
 A : 라테를 제가 시켰어요.  
 c'. A : 라테는 제가 {시켰어요/시킨 거예요}.  
 c". A : 제가 시킨 건 라테예요.  
 d. Q : 내가 시킨 게<sup>전제</sup> 뭐니?<sup>초점</sup>  
 A : 제가 시킨 건 라테예요.

또한 한국어에서 (25a)의 대답과 같이 문두에 목적어가 전치되고 ‘은/는’이 결합한 형식은 ‘대조 주제’로 분석하기도 하지만, (25a')처럼 ‘을/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조 초점’의 특성을 보인다(전영철, 2019: 110).<sup>26)</sup> 또한 (25b)의 질문처럼 ‘라테는’을 피확인항으로 하는 질문의 대답으로 어색함을 통해 대답 문장이 주제-평언 구조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sup>27)</sup> 그리고 (25c)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25a-a')와 동일한 진리-조건적 명제를 나타내지만, ‘라테’는 확인항이고 정보 초점에 해당하며 (25c')처럼 ‘은/는’으로 대조 초점을 나타낼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뒤에 놓는 구조를 바탕으로 (25c'')와 같은 대답도 가능하며, 이 구조에 의한 (25d)의 확인문 형식에서도 ‘라테’가 확인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5c')와 (25c'')가 서로 도치된 형식이더라도 피확인항-확인항 관계는 변함없이 동일함을 의미한다(각주 19 참조). 즉, 이상의 대답에 나타난 ‘라테’는 이미 주어진 정보인지와 상관없이 확인항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25a)의 대답과 같은 형식에서 문두의 ‘라테는’은 주어진 정보로서의 주제보다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 의해 대조 의미를 나타내는 지시체로 파악된다.

- (25') a. Q : 이 라테는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A : 아, 그거요. 그거는 제가 시킨 건데요.

26) 전영철(2019: 110-111)은 대조 주제의 경우에 “(철수나 영희 중에서) 누가 왔니? {철수는/철수가} 왔어.”와 같이 ‘은/는’을 격조사로 대치할 수 있지만 대조 초점의 경우에 “엄마 어디 있어요? {아빠는/#아빠가} 마당에 있어.”처럼 그렇지 못하다고 예시하면서 이를 대조 주제와 대조 초점을 구분하는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27) 본고에서 질문-대답으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이를 하나의 검증 방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사문에서 주제-평언 구조를 제시하는 문맥의 하나로 사용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질문-대답 쌍은 정보 초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다만 (25b)와 같은 형식은 (25'a)와 같은 문맥에서 자연스러운데, ‘그거’로 한번 지시하고 이를 받아 다시 언급하며 ‘-은데요’와 같은 종결어미와 호응하여 표시함으로써 명제 전체가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임을 나타내는 문장 초점으로 이해된다.

- (26) a. \*뭐<sub>는</sub>주제 제가 시켰어요?<sub>평언</sub>  
 b. 뭐<sub>는</sub>대조 네가 시키고, 뭐<sub>는</sub>대조 내가 시켰니?

또한 타동 구문에서 문두에 ‘은/는’이 결합한 목적어에 대해 (26a)와 같이 주제-평언 구조의 의문문은 성립하기가 어렵지만, (26b)와 같이 대조의 ‘은/는’으로 질문하는 것은 가능함을 통해서도 문두 성분이 대조 초점임이 확인된다.

- (27) a. 라테<sub>는</sub>테마 // 제가 시켰어요.<sub>레마</sub>  
 a'. (다른 것이 아니라) 라테<sub>는</sub> // 제가 시켰어요.  
 a". 라테<sub>는</sub> // (다른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라) 제가 시켰어요.  
 b. 제가<sub>테마</sub> // 라테<sub>는</sub> 시켰어요.<sub>레마</sub>  
 b'. 제가<sub>테마</sub> // (다른 것을 안 시키고) 라테<sub>는</sub> 시켰어요.  
 b". 제가<sub>테마</sub> // 라테<sub>는</sub> | <sup>??</sup>(안 시킨 것이 아니라) 시켰어요.

한편 (27a, b)와 같이 어순 바꾸기에 의해 대조 초점 요소가 문두나 문중에 표시될 수 있는데, (27a)처럼 대조 초점이 문두에 위치한 경우에는 (27b)처럼 문중에 위치한 경우와 대조항에 차이가 생기며 의미가 달라진다. 이는 문두 위치가 메시지의 출발점인 테마 위치로서 이를 뒤따르는 레마와 구분되기 때문인데, (27a)는 (27a', 27a")과 같이 레마가 나타내는 명제의 집합을 바탕으로 대조의 의미를 유발하며 (27b)도 (27b')처럼 레마의 의미 내에서 대조항의 특성을 찾게 된다. 하지만 (27b')처럼 테마와 레마가 구분되는 경계 이외에서 정보 단위를 분절하면 동일한 명제적 내용을 나타내더라도 어색한 대조항이 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문두에 ‘은/는’이 결합한 성분을 주제로 단정하기보다 문두 성분이 주제가 아닐 수 있으며 ‘은/는’도 반드시 주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타동 구문에서 목적어 성분이 전치되어 ‘은/는’과 결합한 성분은 테마로서 후행하는 레마와 구분되어 레마의 영역에서 제한되는 대조 초점을 나타내며, 문중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조 주제보다 대조 초점으로 파악된다. 문두 성분이 테마로서 메시지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것과 주제가 대하여성을 갖고 후행하는 평언을 통해 정보가 추가되는 지시체를 나타내는 것을 구분함으로써 정보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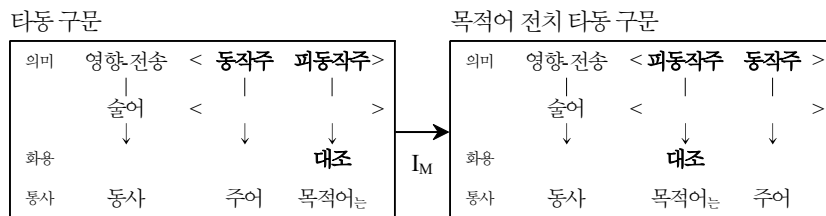
- (28) a. 문장 : 라테<sub>는</sub> 제가 시켰어요.  
 b. 전제 : “화자는 X를 시켰다.”

- c. 단언 : “X = 라테”
- d. 초점 : “라테”
- e. 초점 영역 : 명사구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목적어 전치 타동 구문은 기본적으로 (28)과 같은 정보 구조를 갖는다고 표시할 수 있으며, 문두 성분이 ‘은/는’과 결합하는 경우에 테마와 레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조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 (29) a. 타동 구문의 주제는 주어-목적어 어순을 바탕으로 파악해야 한다.
- b. 타동 구문의 목적어가 전치되어 문두에 나타나는 어순에서 ‘은/는’이 결합해도 대조 초점이며 주어-목적어 어순의 정보 구조와 차이가 있다.
- c. 타동 구문의 목적어 대조는 주어-목적어 어순과 목적어 도치 어순에서 나뉘는 레마에 의해 대안 집합 안에서 대조 의미가 제한된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목적어 전치 타동 구문에 대한 정보 구조를 해석하는 원리는 (2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 타동 구문과 목적어 전치 타동 구문의 의미 관계

또한 타동 구문과 목적어 전치 타동 구문은 <그림 2>와 같이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연결망을 구성하는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데, 주어-목적어 어순의 목적어가 대조로 표시된 문장에서 목적어-주어 어순의 목적어가 대조로 표시된 문장으로 화용적 속성도 상속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 4.2. 한국어의 소유주 주제 구문

주제는 대하여성뿐만 아니라 문맥의 적절성에 의해서도 결정되는데, 소유주-소유물에 대한 진술에서 소유주를 주제로 표시하는 특별한 구문이 가능하므로 소유주를 주제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30) a. *My CAR* 초점 *broke down*.  
 b. *Mi si e rotta la MACOHNA*. 초점 (이탈리아어)  
 to-me itself is broken the car  
 c. 제 차가 고장났어요.
- (31) a. *I* 주제 *have three missing teeth*.  
 a'. *Three of [my]* 주제 *teeth are missing*.  
 b. *J'ai* 주제 *mon frère qui vient*. (프랑스어)  
 I have my brother who is.coming.

(30a)의 영어 문장에서 주어인 my car의 car에 강제 초점이 있는 경우에 주제는 my car가 아니라 My(=I, 화자)로 분석할 수 있으며, (30b)의 이탈리아어 문장에서 동일한 문맥의 Mi를 분명하게 주제로 표시하고 있다(Lambrecht, 1994: 15). 이와 유사한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에 대해 Mel'čuk(2013: 323)은 (31a, b)를 특별한 주제화로 설명하는데, 소유주가 have와 같은 동사에 의해 문장의 최상위에 위치하게 되면서 주제가 된다고 설명한다.<sup>28)</sup> 즉, (31a')의 구문에서 소유주인 my는 동사 have를 통해 주어로 표시되면서 (31a)의 I와 같이 주제로 표시될 수 있다.<sup>29)</sup>

- (32) a. 친구의 머리가 짧다.                      a'. 친구는 머리가 짧다.  
 b. 네 집이 멀다.                                b'. 너는 집이 멀다.  
 c. 민호 꿈은 프로젝트이머이다.            c'. 민호는 꿈이 프로젝트이머이다.
- (33) a. 네 고향은 주제 어디니?  
 a'. 제 고향은 주제 충청도예요.  
 b. 너는 주제 어디 출신이니?  
 b'. 저는 주제 고향이 충청도예요.  
 b". 제 주제 고향은 충청도예요.

한국어에서도 (32a, b, c)는 (32a', b', c')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런 구조로 나타나는 (32a, b, c)의 소유주가 주제화되어 표시된 변이문(allosentence)이 (32a',

28) Mel'čuk(2001: 205, 336)는 화자의 심리적 현저성을 나타내는 전경화(foregrounding)의 통사적 수단으로 소유주 인상 구문이 있으며, 한국어에서 “너의 눈이 예쁘다.”의 속격어가 “너는 눈이 예쁘다.”처럼 주제로 표시되는 예를 통해 설명하였다.

29) 한편 목정수(2018: 149)는 “나에게 책이 있다.”와 같은 존재 구문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나는 책이 있다.”와 같은 소유 동사에 의한 소유 구문에서 ‘나는’이 주어로 배경을 이루는 성분이며, ‘책이’가 새로운 정보를 제시한다고 보았는데, 배경은 주제-평언(배경-초점) 구조의 주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b', c')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32a', b', c')의 문두 성분인 ‘친구는, 너는, 민호는’이 주제로 분석되는 것처럼 동일한 문맥에서 (32a, b, c)의 소유주인 ‘친구의, 네, 민호’도 주제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분석은 (33)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33a)의 질문에 대해 (33a')의 ‘제 고향은’이 주제로 표시되고 (33b)와 같은 문맥에서 (33b')와 같이 주제를 ‘저는’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33b'')처럼 ‘제’로 주제를 나타낼 수도 있다. 즉, (33a')와 (33b'')의 문장 구조와 형식은 동일하지만 정보 구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33a')에서는 ‘제 고향은’이 주제이지만 (33b'')에서는 ‘제’가 주제로 분석된다. 따라서 한국어 문장에서 문두에 ‘은/는’이 결합하는 요소가 항상 주제로 분석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 이를 주제로 파악할 수도 있다.<sup>30)</sup>

- (34) a. 문장 : 제 고향은 충청도예요.  
 b. 전체 : “화자는 평언 X의 주제이다.”  
 c. 단언 : “X = 고향이 충청도이다”  
 d. 초점 : “고향, 충청도”  
 e. 초점 영역 : 명사, 명사

따라서 문두에서 속격 관형어인 소유주(전체, 상위어)와 함께 나타나며 ‘은/는’이 결합한 명사구는 그 자체가 주제일 수 있으나 속격 관형어 성분만을 주제로 표시할 수도 있으므로 문맥에 따라 속격 관형어가 주제로 파악되는 경우의 정보 구조를 (34)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35) a. 소유주(전체, 상위어)를 나타내는 속격 명사의 꾸밈을 받는 주제 구문은 속격 관형어를 주제로 표시하는 변이문을 갖는다.  
 b. 속격 관형어인 소유주의 꾸밈을 받는 주제 구문에서 속격 관형어만을 주제로 파악할 수도 있다.

또한 속격 관형어로 표시된 소유주 구문(속격 소유주 구문)의 변이문으로서 소유주 주제 구문을 통해 속격 관형어가 주제일 수 있음이 (35)와 같은 원리로 정리된다.

30) 박진호(2015: 380)은 ‘은/는’을 접어(clitic)로 파악하여 의미상 작용역과 형태상 숙주어가 불일치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속격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명사구에 ‘은/는’이 결합하였더라도 속격 관형어가 주제인 것과 유사한 속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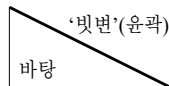
한편 (37a)처럼 소유주-소유물(전체-부분)인 구문과 유사한 관계로 (37b)의 상위어-하위어(집합-하위 부류) 관계도 주제처럼 표시될 뿐 아니라 (37c)의 ‘국어학-전망’처럼 넓은 범위에서 관련된 의미 관계도 주제 구문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채완, 1976: 98). 이는 (38a-b)에서 ‘친구-휴대폰, 술-맥주’는 동일한 명사구는 아니지만 후행 명사가 전체-부분 또는 상·하위 관계로 간접적으로 활성화된 정보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최윤지, 2019: 51). 또한 (38c)에서 ‘국어학’과 ‘전망’은 ‘국어학(전공자-취직)-전망’과 같은 의미 관계를 바탕으로 백과사전적 지식(encyclopedic knowledge)을 통해 간접적으로 활성화된다.<sup>31)</sup> 따라서 (37)과 같은 형식의 문장에서 ‘은/는’이 결합한 명사가 주제이고 이와 관련된 두 번째 명사구는 간접적으로 활성화된 윤곽화에 의해 활성 지역을 표시하는 요소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37)의 첫째 명사구는 테마가 되고 둘째 명사구가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활성 지역을 지시하는데, 둘째 명사구가 포함된 서술구는 초점이 위치할 수 있는 정보 단위로 레마가 된다.

따라서 한국어 정보 구조 논의에서 문두에 ‘은/는’이 결합한 성분을 주제로 상정하고 있으나 이는 테마-레마 구조에 의해 무표적으로 주제에 대응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문두의 ‘은/는’ 결합 성분이 주제가 아닐 수도 있으며 속격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 수식 성분이 주제로 파악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 5. 맺음말

정보 구조 연구는 문맥 가운데 나타나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문장을 이분적 분절 구조로 이해하고 후반부가 전반부에 대해 서술하는 구조로 파악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정보 구조와 통사 구조의 대응을 문두의 테마와 이를 따르는 레마로 구분하는 선형적 어순으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문두에 고정된 위치를

31) 단어의 개념은 연상되는 다수의 의미 영역을 통해 이해되는데, 이렇게 연상되는 전체 지식 목록을 백과사전적 지식이라 칭한다.



따라서 단어는 백과사전적 지식에 접근하는 지점을 제공함으로써 연상되는 의미를 통해 이해된다. 예를 들어 ‘빗변’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도형, 삼각형 등의 무수한 지식 목록과 연관되는데, 그 의미는 직각삼각형의 다른 변을 바탕(base)으로 가장 긴 변을 윤곽화함으로써 이해하게 된다. 또한 ‘민호가 찬 공’에서 ‘민호의 발’처럼 활성화되는 윤곽의 일부인 활성 지역(active zone)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지식이 된다(Evans & Green, 2006: 236-240).

가정하지 않고 대하여성을 바탕으로 정의된 주제-평언 구조와 개념 및 용어가 혼용되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 1에 대해 테마와 주제를 구별하고 한국어 정보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연구 문제 2에 대해 테마는 문장 구조의 어순과 관련되어 문두 위치를 바탕으로 정의되며 문장에서 메시지의 출발점으로 레마와 분절되는 정보 단위를 나타낸다고 정리하였다(Halliday, 1967). 반면에 연구 문제 3의 주제는 대하여성을 바탕으로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가 더해지는 대상으로 정의되며, 청자가 알고 있는 전제와 새로운 단언을 구별하는 요소인 초점과 상보적 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Lambrecht, 1994).

이와 같이 구별되는 테마와 주제의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 4와 관련하여 한국어에서 “라테는 제가 시켰어요.”와 같이 타동 구문에서 목적어가 문두에 위치하며 ‘은/는’이 결합한 성분인 ‘라테는’은 주제보다 테마로서 대조 초점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제 고향은 충청도예요”처럼 문두에 속격 관형어와 함께 나타나며 ‘은/는’과 결합한 명사구는 속격어를 주제로 표시하는 변이문을 가지므로 문맥에 따라 속격어만을 주제로 파악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기존 한국어 정보 구조 논의에서는 관계적 주어집과 관련되어 문두에 ‘은/는’으로 표시된 성분을 주제로 상정하였지만, 확인항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초점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문두에 주제 표지인 ‘은/는’이 결합한 성분을 기본적으로 주제로 파악하였지만, 이런 문두 성분이 주제가 아니거나 명사구의 일부가 주제일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장 전반부의 테마와 후반부의 레마를 구분하는 구조에 근거하여 문두 성분은 정보 구조에서 무표적으로 주어집(구정보), 주제, 피확인항에 할당되는 자리에 해당하지만 상이한 정보 지위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 구조와 대응하는 테마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정보 지위를 갖는 요소가 문두에 위치하여 레마와 분절적으로 대립하는 경우에 무표적 정보 지위 표시로 유추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일부 예문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은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 김영희(1978), “겹주어론”, 《한글》 162, 한글학회, 39-75.
- 목정수(2018), “한국어 정보구조와 통사구조”, 《언어학》 81,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127-163.
- 박소영(2019), “한국어 독립성분과 화용 정보의 통사구조 표상”, 《국어학》 89, 국어학회, 25-62.
- 박승윤(1986), “담화의 기능성으로 본 국어의 주제”, 《언어》 11-1, 한국언어학회, 1-15.
- 박진호(2015),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국어학》 73, 국어학회, 375-435.
- 박철우(2015), “보조사의 기능과 정보구조”, 《국어학》 73, 국어학회, 269-307.
- 박철우(2017),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정보단위 확정 문제”,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한국언어학회, 44-63.
- 박철우(2019), “구문과 정보 -국어 문법에서의 정보구조의 위상 검토-”, 《국어학》 89, 국어학회, 337-383.
- 박철우(2021), “한국어와 정보구조 -적용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91, 한국어학회, 51-94.
- 서정목(1999), “국어의 WH-이동과 주제화, 초점화”, 이홍배(편), 《오늘의 문법-우리를 어디로》, 서울: 한신문화사, 255-289.
- 이인영(1996), “‘주제’와 ‘화제’: 기존 화제 개념에 대한 재고”, 《어학연구》 32-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61-99.
- 이정훈(2008), 《조사와 어미 그리고 통사구조》, 서울: 태학사.
- 임동훈(2012), “‘은/는’과 종횡의 의미 관계”, 《국어학》 64, 국어학회, 217-269.
- 임홍빈(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석진(1994), 《통합문법론-담화와 화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영철(2005), “한국어의 대조초점”, 《언어학》 43, 한국언어학회, 215-237.
- 전영철(2019), “한국어 정보구조표지 ‘은/는’의 의미 — 대조 의미를 중심으로”, 《언어학》 85, 한국언어학회, 99-137.
- 정연창(2000), 《담화기능론》, 서울: 한국문화사.
- 채완(1976), “조사(助詞) ‘는’의 의미”, 《국어학》 4, 국어학회, 93-113.
- 최윤지(2019),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파주: 태학사.
- 최현숙(Hyon Sook Choe)(1992), “Focus and topic movement in Korean and licensing”, in Katalin E. Kiss (ed.), *Discourse Configurational Languag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69-334.
- 함병호(2018), “한국어 정보구조의 화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Carlson, Lauri (1983), *Dialogue Games: An Approach to Discourse Analysis*, Reidel: Dordrecht.
- Chafe, Wallace (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fe, Wallace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harles N. Li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25-56.

- Chafe, Wallace (1987), "Cognitive constraints on information flow", in Russell S. Tomlin (Ed.), *Coherence and Grounding in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1-51.
- Chomsky, Noam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The MIT press.
- Dahl, Östen (1974), "Topic-Comment structure revisited", in Östen Dahl (ed.), *Topic and comment, contextual boundedness and focus*, Hamburg: Helmut Buske, 1-24.
- Dahl, Östen (1976), "What is new information?", in Nils Erk Enkvist and Viljo Kohonen (eds.), *Approaches to word order: Reports in Text Linguistics*, Åbo: Åbo Akad. Forskningsinstitut, 37-50.
- Daneš, František (1964). "A three-level approach to syntax", in Josef Vachek (ed), *Travaux linguistiques de Prague I*. Praha: Československé akademie věd, 225-240.
- Dik, Simon C., Maria E. Hoffman, Jan R. de Jong, Sie Ing Djiang, Harry Stroomer and Lourens de Vries (1981), "On the typology of Focus phenomena", in Teun Hoekstra, Harry van der Hulst and Michael Moortgat (eds), *Perspectives on Functional Grammar*, Dordrecht: Foris, 41-74.
- Eggins, Suzanne (2005),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New York, NY: Continuum.
- Evans, Vyvyan and Melanie Green (2006), *Cognitive linguistics :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 Féry, Caroline and Shinichiro Ishihara (2016), *The Oxford handbook of information struc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illmore, Charles J. (1976), "Pragmatics and the description of discourse", in Siegfried J. Schmidt (ed.), *Pragmatik II*, Munich: Wilhelm Fink Verlag.
- Fillmore, Charles J. (1988), "The mechanisms of 'Construction Grammar'", in *Proceedings of the Fourteen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Berkeley, California, 35-55
- Firbas, Jan (1957), "Some Thoughts on the Function of Word-Order in Old English and Modern English", *Sborník Prací Filosofické Fakulty Brněnské University A5*, 72-100.
- Firbas, Jan (1962), "Notes on the function of the sentence in the act of communication: marginalia on two important studies in syntax by Anna Granville Hatcher", *Sborník Prací Filosofické Fakulty Brněnské University* 10, 133-148.
- Gabelentz, Georg von der (1869), "Ideen zu einer vergleichenden Syntax. Wort und Satzstellung", *Zeitschrift für Völkerpsychologie und Sprachwissenschaft* 6, 376-384.
- Gabelentz, Georg von der (1891/1984), *Die Sprachwissenschaft : ihre Aufgaben, Methoden und bisherigen Ergebnisse*, Tübingen: Gunter Narr.
- Goldberg, Adele (1995),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undel, Jeanette K. and Thorstein Fretheim (2004), "Topic and focus", in Laurence Horn and Gergory Ward (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Oxford : Blackwell, 175-196.
- Haegeman, Liliane M. V. (1998), *Introduction to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Oxford: B. Blackwell.
- Hajičová Eva, Barbara BH Partee, and Petr Sgall. (1998), *Topic-focus articulation, tripartite structures, and semantic content*,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Halliday, Michael A. K. (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2", *Journal of linguistics* 3(2), 199-244.
- Halliday, Michael A. K. and Christian M. I. M. Matthiessen (201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4th), Milton Park: Routledge.
- Hockett, Charles F.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Macmillan.
- Jendraschek, Gerd (2011), "A Fresh Look at the Tense-aspect System of Turkish", *Language Research* 47(2), 245-270.
- Krifka, Manfred and Renate Musan (2012), "Information structure: Overview and linguistic issues", in Manfred Krifka and Renate Musan (eds.), *The expression of information structure*, Berlin: Mouton de Gruyter, 1-44.
- Kuno, Susumu. (1972)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 case study from Japanese and English", *Linguistic inquiry* 3(3), 269-320.
- Kuroda, S.-Y. (1972), "The categorial and thethetic judgment: evidence from Japanese syntax", *Foundations of Language* 9, 153-185.
- Lakoff, George (1971), "On generative semantics", in Danny D. Steinberg and Leon A. Jakobovits (eds.), *Semantics: An interdisciplinary reader in philosophy, linguistics and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2-296.
- Lambrecht, Knud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mbrecht, Knud and Laura A. Michaelis (1998), "Sentence accent in information questions: Default and projec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21(5), 477-544.
- Law, Vivien (2003), *The History of Linguistics in Europe: From Plato to 16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s, David (1979), "Scorekeeping in a language game", in Rainer Bäuerle, Urs Egli and Arnim von Stechow (eds.), *Semantics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New York: Springer Verlag, 172-187.
- Lyons, John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ty, Anton (1918/1965), *Gesammelte Schriften*, Halle: Max Niemeyer Verlag.
- Mathesius Vilém. (1928), "On Linguistic Characterology with Illustrations from Modern English", *Actes du Premier Congrès International Linguistes* 3, 56-63. in Josef Vachek (ed.), (1964), *A Prague School Reader in Linguis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McElvenny, James. (2019), *Gabelentz and the Science of Language*.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Mel'čuk, Igor A. (2001), *Communicative Organization in Natural Language: The semantic-communicative structure of sentences*, Amsterdam: John Benjamins.
- Mel'čuk, Igor A. (2013), *Semantics: From meaning to text*. Vol. 3. Amsterdam: John Benjamins.
- Paul, Hermann (1880/1968),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Tübingen: Niemeyer.
- Prince, Ellen F. (1981), "Topicalization, focus-movement, and Yiddish-movement: A pragmatic differentiation", in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7, 249-264.

- Prince, Ellen F. (1986), "On the syntactic marking of presupposed open propositions", in *Proceedings of the 22nd Annu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208-222.
- Selkirk, Elisabeth (1984), *Phonology and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Sgall, Petr and Eva Hajičová (1971), "A 'functional' generative description: background and framework", *Revue roumaine de linguistique* 16(1), 9-37.
- Steedman, Mark (1991), "Structure and intonation", *Language* 68, 260-296.
- Steedman, Mark (2000), "Information structure and the syntax-phonology interface", *Linguistic inquiry* 31(4), 649-689.
- Vallduví, Enric (1990), "The informational componen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Vallduví, Enric (2016), "Information structure", in Maria Aloni and Paul Dekker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Formal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l, Henri (1844), *De l'ordre des mots dans les langues anciennes comparees aux langues modernes*, Paris: Didier Erudition.

저자명: 정해권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주소: (우)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이메일: haegwon@hufs.ac.kr

접수일: 2022. 02. 03

심사일: 2022. 02. 21

총평일: 2022. 02. 28

## Some Notes on Issues of Relativization

Jieun Lee

(Korea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Jieun Lee. 2022. Some Notes on Issues of Relativization.** *Linguistic Typology Research* 7(1), 29-62.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some well-visited issues concerning relativization. After a relative clause (RC) is defined, its types and forming strategies are described. This is followed by an investiga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the grammatical position of a noun phrase (NP) and its relativizability, which is referred to as the Accessibility Hierarchy (AH) in Keenan and Comrie (1977). After showing not every language allows all grammatical positions to be relativized, this study explores how restrictions in RC formation can be dealt with in languages. Lastly, the article points out that an RC may not be used if it sounds unnatural, even when the restrictions can be lifted.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a language may abandon an RC and adopt another construction to represent the meaning/function of an RC. (130)(Korea University)

**Key words:** relative clauses, attributive clauses, participles, the Accessibility Hierarchy, RC forming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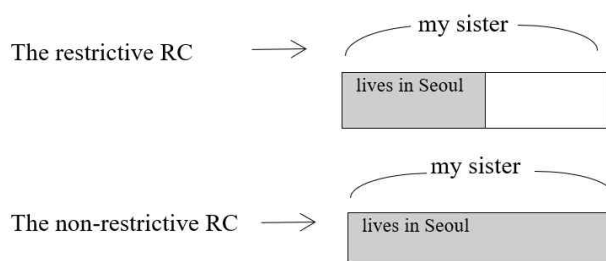
### 1. Introduction

A relative clause (RC) construction consists of a head noun and an RC. The semantic function of the head noun is to establish a set of entities, which may be called the domain of relativization (Keenan and Comrie 1977: 63; Song 2001: 211), and the one of an RC i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head noun. The information given by an RC either assists in focusing—or restricting<sup>3/4</sup>the reference of the head noun or adds further background about the head noun which is already uniquely identified (Dixon 2010: 314). When the information given in an RC restricts the reference of the head noun, the RC is called a restrictive RC, and when it

provides additional knowledge about the head noun, the RC is referred to as a non-restrictive RC. We can examine English RCs in (1) below.

- (1) a. My sister who lives in Seoul will visit me this Christmas.  
 b. My sister, who lives in Seoul, will visit me this Christmas.

In (1a), the noun phrase (NP), my sister, is the head noun, and its referent is narrowed down by the RC. That is, with the RC, the referent of my sister is restricted to the one who lives in Seoul. With a comma after the head noun, however, the function of the RC in (1b) is different from the one in (1a).<sup>1)</sup> The RC in (1b) does not restrict the referent of the head noun; the speaker supposes that the audience can identify the referent of the head noun. Rather, it gives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head noun. With the RC, the sentence in (1b) implies that the speaker has a single sister or that the listener already knows the precise referent of my sister. In this case, the RC is not identification but purely descriptive, providing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speaker's sibling (Whaley 1997: 260). The RC constructions in (1) can be diagrammed as in Figure 1.



<Figure 1> Information given in the RC and its application to the head noun in (1)

In Figure 1, the box represents the domain of the relativization, which is set by the head noun. The highlighted part of the box represents the referent of the head noun. Notably, in the non-restrictive RC, the domain of the relativization is identical to the referent of the head noun.

In English, two types of RCs, that is, a restrictive RC and a non-restrictive RC, ar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by a comma along with intonational differences.

1) Within speech, the distinction between an RC and a main clause is made through prosody.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for all languages. According to Dixon (2010: 352-353), the two types of RCs can also be differentiated by the position of the RC and the head noun as in Amele, by using a different marker for each type of RC as in Persian, or by prosodic features as in Hausa. Some languages even appear to make no formal distinction between restrictive and non-restrictive RCs, the interpretation relying entirely on pragmatic matters (Dixon 2010: 352). In Mojave, for instance, there is no structural or intonational difference, but for non-restrictive RC construction, the head noun is to have definite referents (Munro 1976: 205-207). Further, in Kambara, Manambu, and Jarawara, all RCs are of the restrictive type (Dixon 2010: 352). In Dhaasanac, coordination is used for what would be expressed by a non-restrictive RC construction in other languages (Tosco 2001: 282).

As there is diversity in how a restrictive RC and a non-restrictive RC are marked in a language, so there are varieties in how an RC construction is encoded, how many restrictions exist in RC formation, and how such restrictions can be dealt with in a language. These issues can be put into the questions given below, which will be examined one by one in the following sections.

- How can RCs be identified cross-linguistically?
- How can RCs be classified into different types?
- How can the formal restrictions in RC formation be described?
- How can the formal restrictions in RC formation be dealt with?

## 2. Identifying RCs for cross-linguistic study

RCs can be identified in a language by formal/syntactic features as well as functional/semantic features. For cross-linguistic studies, the latter is to be more highly regarded than the former since there are many variations in how languages encode RCs. English RC construction in (2), for instance, is morpho-syntactically different from its Turkish counterpart given in (3).

- (2) The woman whom I met yesterday is a poet.
- (3) Hasan-in Sinan-a ver-diğ-i patates-i yedim.  
 Hasan-of Sinan-to give-NR-his potato-ACC I ate  
 'I ate the potato that Hasan gave to Sinan.' (Comrie 1989: 142)

Contrary to the English RC in which the verb in the RC is finite, the Turkish RC is less clausal or more nominal since the verb *ver-* ‘give’ should be attached by the nominalizing suffix *-diğ* to form an RC. However, as far as the functional/semantic aspect is concerned, the Turkish construction in (3) is the same as the English RC in (2). As the English RC *whom I met yesterday* narrows down the referent of the head noun *the woman*, so the Turkish RC *hasan-ın sinan-a ver-diğ-i* ‘that Hasan gave to Sinan’ narrows down the referent of the head noun *patates* ‘potato’ (Comrie 1989: 143). With the formal varieties in how an RC is encoded, therefore, the functional/semantic features should be focused on more than the formal/syntactic features to identify RCs for cross-linguistic studies.

Two points should be made in arguing that the focus should be on the functional/semantic features in identifying RCs. First,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deal with constructions that are functionally similar to an RC, such as participles and adjectives. Second, we need to examine how to identify an RC when the function of an RC is carried by a construction that is not exclusive to an RC. We will investigate these two points in the following sections.

### Participles and adjectives

To begin with, when we define an RC with primarily functional criteria, it can be challenging to identify an RC in a specific language. This is because there may be a construction in that language whose function is similar to an RC. In English, for example, the participial construction in (4) and the attributive adjective in (5) can be treated as RCs when only the functional feature is considered.

- (4) Passengers leaving on flight 738 should proceed to the departure lounge.  
 (5) The good students all passed the examination.

(Comrie 1989: 143-144)

In (4), the participial construction *leaving on flight 738* restricts the referent of the modified noun *passengers*. Likewise, (5) can be interpreted such that the adjective *good* restricts the referent of the modified noun *students*.

With regard to participles and adjectives, Lehmann (1986) and Andrews (2007)

take a vague position. We can examine the definition of an RC below.

A relative construction is a construction consisting of a nominal. (or a common noun phrase, in the terms of. categorical grammar) (which may be empty) and a subordinate clause interpreted as attributively modifying the nominal. The nominal is called the head and the subordinate clause the RC. The attributive relation between head and RC is such that the head is involved in what is stated in the clause. (Lehmann. 1986:664)  
A relative clause is a subordinate clause which delimits the reference of an NP by specifying the role of the referent of that NP in the situation described by the RC. (Andrews 2007: 206)

Although these definitions of RCs include syntactic concepts such as a ‘subordinate clause’, which is evaluated as a device to filter out adjectival phrases (Hendery 2012: 15), they do not completely exclude adjectival phrases from RCs. Lehmann (1986: 672), for instance, demonstrates that there are degrees of nominalization of RCs, and at the point of strongest nominalization, which he calls ‘relative participle’, the RC is maximally similar to an attributive adjective. In a similar vein, although Andrews (2007: 210) argues that there are languages in which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 between RCs and ordinary adjectival modifiers, he admits the verbs of reduced RCs often have features of adjectival or nominal morphology in that they are phrasal in nature, as opposed to full RCs, which are clausal (2007: 211-212).

On the contrary, Dixon (2010) makes it very clear that participles and adjective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RCs. To be more specific, Dixon (2010: 316) regards a participle as an adjective derived from a verb that does not allow a full set of core arguments for a predicate. He further argues that, though a participle can take full arguments in German and Russian, it is distinguishable from an RC in that it follows an adjective in subject agreement and has different tense choices from an RC. Dixon (2010), however, does not provide further explanation of how an adjective can be distinguished from an RC. He only mentions that an RC has propertie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an adjective in every language (2010: 316).

Regarding how to deal with a participle and an adjective, we can point out two things. First, there is a disagreement about what a participle actually is. In English, for instance, Dixon (2010: 316) regards a construction as a participle only when

it comes before the modified noun, such as missionizing in the missionizing priests went to heaven. In this instance, a participle cannot include a full set of core arguments. In contrast, Croft (2003: 228) refers to a participle such as eating a pizza in the boy eating a pizza, and regards it as an example of a non-finite RC.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on the terminology. That is, it should be clearly defined whether a participle, a participial RC, and a participial modifier refers to the same construction. With the lack of a mutually-agreed-upon definition, it is difficult even to recognize a participle cross-linguistically.

Second, adjectives may resemble RCs not only in a functional aspect but also in a formal aspect. This is supported by the observation that in some languages attributive adjectives not only share the functions of RCs, but are encoded as RCs.<sup>2)</sup> In Korean, for instance, adjectives are attached by relativizers when they are used as modifiers. We can examine the examples given in (6).

- (6) a. yeppu-n           kkoch  
       pretty-REL       flower  
       ‘Pretty flowers’ or ‘flowers that are pretty’  
    b. cwuk-un           kkoch  
       die-REL         flower  
       ‘Dead flowers’ or ‘flowers that died’

In (6a), the adjective yeppu- ‘pretty’ modifies the noun kkoch ‘flower’ in the form of an RC. According to Hendery’s (2012: 15) definition of an RC, this is not an RC, since she regards a construction as an RC only when ‘some form of a verb’ is included. But, comparing (6a) to (6b) in which the intransitive verb cwuk- ‘die’ modifies the noun kkoch ‘flower’, it does not seem to be reasonable to regard only (6b) as an RC since (6a) and (6b) are encoded in the same form, that is, as an RC.

### Attributive clauses

---

2) According to Hajek (2004: 356), in languages where adjectives are verb-like in the predicate, the behavior of attributive adjectives in an NP also tends to be strongly verb-like. For instance, when a language has verbal adjectives, they are likely to be encoded as an RC when they modify an NP. With verbal adjectives, Korean is not an exception. Attributive adjectives are encoded as an RC in an NP.

In addition to the functional equivalents to an RC such as participles and adjectives, there is another construction that we need to deal with in order to identify RCs cross-linguistically. These are attributive clauses, which cover both RCs and fact-S constructions (or sentential complements with a nominal head). Based on Matsumoto's (1988) observation about Japanese attributive clauses, Comrie (1998: 51-52) investigates this construction cross-linguistically and concludes that attributive clauses are a geographical phenomenon that are found in a large part of Asia including Korea.<sup>3)</sup> We can examine Korean examples below.

- (7) ku        yeca-eykey    chayk-ul        cwu-n        namca  
       the        woman-to        book-ACC        give-REL     man  
       'The man who gave a book to the woman' (Comrie 1998: 52)
- (8) ku    namca-ka    ku    yeca-eykey    cayk-ul    cwu-n    sasil  
       the    man-NOM    the    woman-to    book-ACC    give-REL    fact  
       'The fact that the man gave a book to the woman' (Comrie 1998:52)

In (7), an example of an RC is given. The clause attached by -n narrows down the referent of the head noun *namca* 'man'. Notably, an NP co-referential to the head noun takes a subject role in the RC and is gapped from it. In the example of fact-S constructions given in (8), the clause attached by -n provides the content of the noun *sasil* 'fact'. There is no gap in the complement that is co-referential to the noun *sasil* 'fact'. The only formal difference between the RC in (7) and the fact-S construction in (8) is whether there is a gap co-referential to the modified NP.

Regardless of this formal difference, Comrie (1998) argues that (7) and (8) are the same construction. He suggests two points to support his argument: the gap in (7) may be caused by zero anaphora, and there is an example that can be regarded as an RC as well as fact-S constructions.<sup>4)</sup> First, he explains the gap in Korean RC with zero anaphora. That is, Korean allows zero anaphora, thus, there is no need to argue that there is a 'gap' corresponding to the head noun (1998: 52). We can examine the example in (9).

3) See Mun (2012) for further discussion of Korean examples supporting attributive clause analysis in Korean language.

4) Comrie's (1998) argument of attributive clauses in Korean is based on Matsumoto's (1988) observation on Japanese attributive clauses (or the noun-modifying construction in Matsumoto's (1988) terms).

- (9) ku namca-ka ku yeca-eykey cwu-ess-ta.  
 the man-NOM the woman-to give-PST-DEC  
 ‘The man gave (it) to the woman.’ (Comrie 1998: 52)

In (9), a direct object of the verb *cwu* ‘give’ is omitted in the sentence. The sentence in (9), however, is perfectly acceptable when the object is recoverable from context. If the RC in (7) is from (9), the gap in the RC may not be a feature of an RC but may be attributed to zero anaphora. If a gap is not presupposed, there is no formal difference between an RC and a fact-S construction. Second, he suggests examples that have features of both an RC and a fact-S construction. We can examine (10).

- (10) etten salam-i mwun-ul twutuli-ko iss-nun soli  
 some person-NOM door-ACC knock-CONT-REL noise  
 ‘The noise of someone knocking at the door’ (Comrie 1998: 52)

Functionally, (10) can be regarded as an RC because the clause marked by *-nun* narrows down the reference of the NP *soli* ‘noise’. Formally, however, (10) resembles a fact-S construction. There is no gap that is co-referential to *soli* ‘noise’.

The phenomenon of zero anaphora and the existence of examples that have features of both an RC and a fact-S construction seem to support the view that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an RC and a fact-S construction in Korean. Instead, one construction, which Comrie (1998) refers to as an attributive clause, is used for the general use of modifying an NP. We argue, however, that an RC can be distinguished as a discrete construction in Korean. First, the phenomenon of zero anaphora does not ensure that there is no gap in an RC. For instance, when the gap is filled with an NP, the RC in (11) becomes unacceptable.

- (11) \*ku-ka ku yeca-eykey chayk-ul cwu-n namca  
 he-NOM the woman-to book-ACC give-REL man  
 ‘The man who gave a book to the woman’

Unlike the gap in the RC, when an NP is omitted as a zero anaphora, the place can be filled by an NP as can be seen in (12).

- (12) ku        namca-ka    ku        yeca-eykey        kukes-ul    cwu-ess-ta.  
       the    man-NOM    the        woman-to        it-ACC       give-PST-DEC  
       ‘The man gave it to the woman.’

The difference of acceptability between (11) and (12) shows that the gap in the RC in Korean may not be explained with zero anaphora. Second, ambiguous examples between an RC and a fact-S construction can be understood when we suppose that there is no clear boundary between these two constructions in Korean.<sup>5)</sup>

Even when an RC is not distinguishable from an attributive clause as Matsumoto (1988; 1997) argues with Japanese examples, RCs can be distinguished from attributive clauses for cross-linguistic studies. We can examine the Japanese examples given in (13).

- (13) a. gakusei    ga        kata    hon  
       student    NOM    bought book  
       ‘The book that the student bought’  
       b. gakusei    ga        hon    o        kata        zizitu  
       student    NOM    book    ACC    bought    fact  
       ‘The fact that the student bought the book’  
       c. dareka        ga        doa    o        tataku    oto  
       someone    NOM    door    ACC    knock    sound  
       ‘The sound of someone knocking at the door’

(Comrie 1998: 54)

According to Matsumoto, Japanese has a single construction through which RCs (as in (13a)), a fact-S construction (as in (13b)), and a construction between these two (as in (13c)) are expressed. In all three cases, the modifying clause comes before the modified NP without any special marker; the missing object from the RC in (13) can be explained by zero anaphora (Comrie 1998: 54). As Haspelmath

---

5) One anonymous reviewer asked whether the two statements, that is, 1) an RC can be distinguished as a discrete construction in Korean and 2) there is no clear boundary between an RC and a fact-S construction, can be held simultaneously. I think these two observations can be found true in an analogy with nature. A rainbow, for instance, consists of various colors. We can identify a certain color among others but at the same time it is hard to draw a clear boundary between two colors. Likewise, we can find both of typical examples of RCs and in-between examples between RCs and fact-S constructions.

(2010: 672) points out, however, the construction in (13a) can be taken as an RC, although Japanese has no category that exactly corresponds to English RCs. That is, a construction does not have to be an RC in a particular language to be qualified as an RC for the purposes of cross-linguistic studies (2010: 672). In his argument, the former ‘RC’ designates a category of an RC, and the latter one refers to the concept of an RC. What he points out is that although a notion of an RC is represented through different categories, such as attributive clauses, we can identify an RC from them for cross-linguistic studies.

Considering our discussion above, two points can be made that are relevant for this study. First, when a verbal adjective is encoded as an RC, we regard it as an RC. Second, we presuppose that an RC can be distinguished from an attributive clause.

### 3. RC types and forming strategies

Previously, we defined an RC and examined how the RC construction can be identified for cross-linguistic studies. In this section, we will describe the diversities of RC constructions and will classify them based on formal/syntactic features. Lehmann (1986: 666), for instance, provides five subtypes of the RC construction based on three positional features: internal and external headedness,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head noun to an RC, and adjunction/embedding. Figure 2 shows Lehmann’s classification of RC constructions.

	Adjoined	Embedded
Internal-head	Preposed (14)	Circumnominal (15)
External-head	Postposed (16)	Adnominal { Postnominal (17) Prenominal (18)

<Figure 2> Lehmann’s (1986) classification of the RC construction

Examples of each case are given below.

## (14) Bambara RC

n ye tyé min ye, ò be fini fèrè.  
I COMP man REL saw D.3 IPFV cloth.DEF sell

‘The man I saw (, he) sells the cloth.’ (Bird 1968: 43; Lehmann 1986: 665)

## (15) Mojave RC

tadi:č-nʷ hapury m-u:čo:-lʷ ʔ-ičam-m.  
corn-DEF pot SBJ.2-make-LOC SBJ.1-put-RLS

‘I put the corn into the pot you made.’ (Munro 1976; Lehmann 1986: 665)

## (16) Turkish RC

hoca Nasreddin efendi-nin bir kuzu-su var  
each Mr. Nasreddin mister-GEN a lamb-POSS.3 EXIST  
i-miş ki gayet ile besle-r i-miş.  
COP-PFV SR care with rear-HABIT COP-PFV

‘The master Mr. Nasreddin had a lamb which he had reared with care.’  
(Finck 1909: 82; Lehmann 1986: 665)

## (17) Persian RC

kārxāne-yi ke dar ān kār mi-kard-am  
factory-indefinite SR in D.3 work IMPF-did-1.SG  
baste šode ast.  
closed become is

‘The factory in which I used to work has been closed.’ (Amin-Madani  
and Lutz 1972: 175; Lehmann 1986: 665)

## (18) Turkish RC

Orhan-ın gör-düğ-ü adam çık-tı.  
Orhan-GEN see-NR-POSS.3 man leave-P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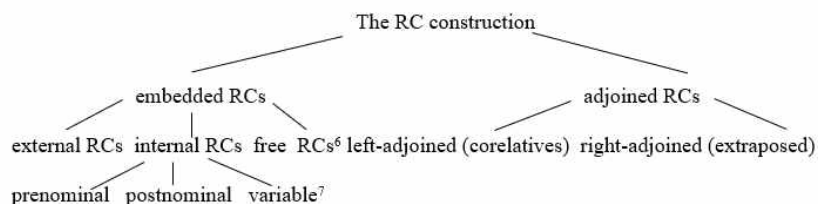
‘The man Orhan saw left.’ (Andrews 1975: 152; Lehmann 1986:666)

The RC constructions in the Bambara example in (14) and the Turkish example in (16) are adjoined. The former is preposed to the main clause and the latter is postposed to it. The others are embedded: the RC constructions in the Mojave example in (15) is circumnominal, the Persian example in (17) is postnominal, and the Turkish example in (18) is prenominal (1986: 665-666).

Based on his finding that the position of an RC correlates with the degree of the nominalization of an RC and the way in which the head noun is expressed in the RC, Lehmann suggests a complex continuum of various types of RCs (1986: 677). The two poles of the continuum are occupied by the preposed RC and the

prenominal RC respectively, which seem to have the opposite features. In the preposed RC, the head noun exists in an RC and an anaphoric pronoun appears in the main clause. The preposed RC presents no signs of nominalization, and the sequence of an RC and the main clause is invariable. On the other hand, the prenominal RC is nominalized to a high degree, forms a nominal with the head noun, and is unlikely to contain a representative of the head noun in the RC.

Unlike Lehmann, who sets internal/external headedness and adjunction/embedding as parameters of equal status, Andrews (2007) sets internal and external headedness as a subdivision of embedded RCs. After dividing RCs into embedded RCs and adjoined RCs, he further categorizes each of them into subtypes according to whether an RC is contained within the head noun or not.



<Figure 3> Andrews' (2007) classification of the RC construction

The main difference between Lehmann (1986) and Andrews (2007) is in how the term 'head' is understood (Hendery 2012: 21). Andrews (2007) regards 'head' as a syntactic term. Therefore, the adjoined RC cannot be described with a head since an RC does not make a constituent with the head noun in the adjoined RC. Lehmann (1986), however, uses a broader definition of 'head' to mean the nominal referent of the RC.

For a more elaborate description of RC types, we can refer to Dixon (2010), who categorizes RCs by focusing on the possibilities for realization of the head noun (the common argument in Dixon's terms) and the marking of an RC. The variants consisting of RC types are listed below:

- Possibilities for realization of the common argument (CA)
  - A. Fullest statement of the CA in the main clause (MC)
    - A-1 The CA is shown by a relative pronoun
    - A-2 The CA is shown by an independent pronoun within an RC
    - A-3 There is no statement of the CA in an RC, simply a 'gap'

where it would be

- B. Fullest statement of the CA is in an RC
- C. The CA can be stated in the MC or in an RC
- D. Statement of the CA is split between the MC and an RC
- E. Indeterminate status of the CA
- F. The CA is stated in neither clause

● Marking of an RC

- A. By one intonation contour across the RC construction
- B. By the position of an RC within the MC
- C. By prosodic means, such as stress, tone, or creaky voice
- D. By an inflection on the verb of an RC
- E. By an RC marker, generally a clitic or a short grammatical word
  - E-1 Relative marker at the beginning of an RC
  - E-2 Relative marker at the end of an RC
  - E-3 Relative markers enclosing an RC
  - E-4 Relative marker added to the beginning of the verb in an RC
- F. Relative marker added to the end of the verb in an RC
- G. By a relative pronoun

Dixon demonstrates the wide spectrum of possible RC types by examining every factor relating to RC formation, including intonation, which is not highlighted by those who write about grammar (2010: 339). Despite the thoroughness, his description of RCs can weaken the distinction between more critical factors and minor factors. To be more specific, in describing how the head noun is expressed in every possible language, he does not clearly deal with the position of the head noun vis-à-vis an RC. He simply suggests that an RC may follow the head noun, precede it, or take both of the positions (2010: 329). The choice not to focus on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head noun to an RC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is positional feature is meaningful only to the externally-headed RC, in which the head noun is expressed outside of an RC.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head noun to an RC, however, should receive more attention because the externally-headed RC is the most common type cross-linguistically<sup>3/4</sup>as Dixon (2010: 329) himself mentions. Moreover, it affects other factors, such as how the head noun is realized in an RC (Lehmann 1986: 674-676). In this respect, although Dixon's (2010) classification

can be useful in identifying RCs in unknown languages, it does not reveal what factors are less language-specific for use as typological parameters.

Dixon's (2010) description of RC types contrasts with Keenan and Comrie's (1977) in that the latter focuses on two features to describe RCs: the position of the head noun vis-à-vis an RC and the way that the head noun is expressed in the RC. What is distinctive in Keenan and Comrie is that they describe RCs in terms of 'RC-forming strategies' (1977: 64). Regarding the two features, they suggest five RC-forming strategies. Specifically, they suggest three RC-forming strategies according to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head noun to an RC, namely, postnominal RC strategy, prenominal RC strategy, and internal RC strategy, and two RC-forming strategies according to how the relativized noun is realized, that is, the [+case] RC strategy and the [-case] RC strategy.

Maxwell (1979) argues, however, that Keenan and Comrie's (1977) RC-forming strategies are not detailed enough in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case] and [-case] is not clear with regard to how the case of the head noun is encoded. He suggests, therefore, the use of a modified version based on Givón (1975): the word order strategy, the gap strategy, the anaphoric pronoun strategy,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and the non-reduction strategy. He further divides the word order strategy and the anaphoric pronoun strategy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head noun relative to an RC following Keenan and Comrie (1977): the postnominal word order strategy, the prenominal word order strategy, the postnominal anaphoric pronoun strategy, and the prenominal anaphoric pronoun strategy.

Accepting Maxwell's proposal, Keenan (1985) and Comrie (1989) propose that there are at least four different RC-forming strategies: the gapping or obliteration strategy,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and the non-reduction strategy (Song 2001: 217). As Song points out, contrary to the internally-headed RC in which the head noun appears in a full form within an RC, the externally-headed RC can be divided into subcategories with regard to how the relativized noun is expressed in the RC (2001: 216). This leads him to focus on three RC formation strategies: the obliteration strategy (the gap strategy in our terms),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and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2001: 217-220). He thus excludes the non-reduction strategy. Focusing on how the relativized noun is expressed in an RC can be very useful when a language uses more than one RC-forming strategy. This is because each of the RC-forming strategies is not employed randomly but systematically according to the explicitness in expressing the relativized noun. In other words, the RC-forming strategy that more explicitly

displays the relativized noun is employed to relativize an NP whose grammatical role is more difficult to relativize and vice versa (see Keenan and Comrie 1977: 92; Comrie 1989: 163; Song 2001: 227). This is the topic of the following section.

#### 4. The AH in RC formation

Examining about fifty languages, Keenan and Comrie (1977) argue that there is a regular pattern regarding which grammatical relations may or may not be relativized; they refer to this pattern as the Accessibility Hierarchy (AH), described below (Song 2001: 223):

SUB > DO > IO > OBL > GEN > OCOMP

N.B.: '>' = 'is more accessible to relativization than'; SUB = subject, DO = direct object; IO = indirect object; OBL = oblique; GEN = genitive; and OCOMP = object of comparison

What the AH shows is that if an NP has a subject role in a clause, it is more accessible to relativization than an NP that has the grammatical role of a direct object. Further, an NP with a direct object role is more accessible to relativization than an indirect object. Similarly, it is easier to relativize an indirect object than to relativize an oblique, and so on down the hierarchy. What should be pointed out is that every language should be able to relativize a subject. Thus, all languages must have the RC-forming strategy for a subject, referred to as the primary strategy by Keenan and Comrie (1977: 68). If the primary strategy in a language can apply to one position on the AH, it must apply to all higher positions. The primary strategy may cease to apply at any lower point on the AH.

Keenan and Comrie's (1977) AH has been followed by several related studies. Lehmann (1986: 668), for instance, suggests a sophisticated version of the AH. He argues that the hierarchy of syntactic functions is not unidimensional but a complex hierarchy composed of several sub-hierarchies. This is because the syntax of NPs depending on verbs differs from the syntax of NPs depending on nouns and further differs from the syntax of dependent NPs subject to additional conditions, such as coordination and the embedding of another subordinate clause in RCs. Based

on this observation, Lehmann (1986) proposes a modified version of the AH consisting of the adverbial syntactic functions (the left column below) and the adnominal syntactic functions (the right column below):<sup>6)</sup>

subject/absolutive	
direct object/ergative	
indirect object ~ local complement ~ temporal complement	possessive attribute
other complements	standard of comparison
adjuncts	prepositional attribute

N.B.: '/' = 'or'; '~' = 'the syntactic function linked by it is not ordered on this hierarchy'

<Figure 4> Hierarchy of syntactic functions (Lehmann 1986: 668)

With regard to Lehmann's AH model, four points can be made. First, the two sub-hierarchies are only loosely ordered with respect to one another (1986: 668). That is, the adverbial syntactic functions and the adnominal syntactic functions have their own fixed order among their constituents, but each of the hierarchical pillars can move up and down, which changes their relative order. For instance, in Indonesian and Dagbani, the possessive is much higher up in the hierarchy, being served by the same strategy that serves the subject. The hierarchy then breaks off for the right column (1986: 668). Second, the adverbial syntactic functions can be subdivided into complements and adjuncts (1986: 669). In other words, complements occupying the top four positions of the hierarchy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djuncts. Lehmann argues that complements are generally higher up in the hierarchy than adjuncts since the governors of complements, that is, verbs, make people expect them, while nothing makes people expect adjuncts (1986: 669). Third, two complements are excluded

6) Lehmann (1986: 679) uses the term 'adverbial' to stand for 'depending on a verb' and 'adnominal' to stand for 'depending on a noun'.

from the hierarchy: local complements and temporal complements. Though Lehmann (1986) does not provide a clear explanation for this, a clue can be found in the work of Comrie (1989). Re-examining Keenan and Comrie's (1977) AH, Comrie (1989) considers only subjects, direct objects, non-direct objects, and possessors. He regards this list as sufficient to form a cross-linguistically valid hierarchy in relativization. He rules out other positions such as locatives and temporals since these are easily relativized in some languages but extremely difficult to be relativized in other languages (1989: 156). Finally, Lehmann's (1986) AH has some flexibility, so it can be adapted to the case alignment system: the highest layer can be occupied by either subjects or absolutes, and the second layer can be occupied by either direct objects or ergatives.<sup>7)</sup>

Unlike Lehmann (1986), who adjusts the two far-left positions on the AH based on the case alignment system, Fox (1987) re-examines them with a different perspective. To be more specific, she argues that the discourse function of an RC, which she defines as 'situating the referent that is being introduced as a relevant part of the on-going discourse' (1987: 861), affects how grammatical positions line up on the AH. Examining the top two positions of the AH by analyzing data from naturally occurring English conversations, she concludes that it is not subjects as Keenan and Comrie (1977) suggest, but intransitive subjects and patients (or absolutive) that occupy the highest position on the AH. In other words, Fox (1987: 864) argues that every language with RCs must be able to relativize at least intransitive subjects and patients, rather than intransitive subjects and agents, because intransitive subjects and patients are much better at accomplishing the discourse function of RCs than agents.<sup>8)</sup> As Song (2001: 241) points out, however, Fox's (1987) discussion should be evaluated on the basis of in-depth analysis of discourse data from a wide range of languages since she draws her empirical support only from English.

---

7) Lehmann (1986: 21-29) argues that the relativization hierarchy should be formulated in different ways between nominative and ergative languages. In nominative languages the role most accessible to relativization is subject, intended as A/S, and the second most accessible one is O. In ergative languages, the most accessible role is S/O, and the second most accessible is A.

8) Fox (1987) uses the term 'patient' to refer to the semantic role associated with what some would call the 'recipient' of the action of a transitive verb and 'object' to refer to a particular grammatical role. Similarly, she uses 'agent' for a semantic role associated with the 'doer' of an action, while 'subject' is used for a grammatical role (1987: 857).

## 5. Conspiracy in RC formation

Regardless of how the AH is organized, there is one thing that remains true: not every language can relativize all the grammatical relations on the AH, and some languages will stop at a certain point. Considering that all languages with RCs have an RC strategy at least for a subject<sup>9</sup> the primary strategy<sup>3</sup> four predictions can be made if the primary strategy fails. Languages may resort to grammatical mechanisms, adopt a non-primary strategy, or stop using RCs. In other words, one can expect that languages try to make the unrelativizable NP accessible to RCs by using the grammatical devices that they already have or by adopting an RC-forming strategy that expresses the relativized noun more explicitly. An NP will not be able to be relativized if it fails in both respects. We will examine how languages deal with the restrictions in RC formation in the following sections.<sup>9)</sup>

### 5.1. Resorting to grammatical mechanisms

One of the plausible ways to make an NP accessible to RCs which cannot be relativized straightforwardly is to promote it to a higher position on the AH where it can be relativized. This is aptly described in Keenan and Comrie (1977), Givón (1979), Croft (1990), Song (2001). To begin with, Keenan and Comrie (1977: 68-69) describe languages that have a gap on the AH. In Toba Batak, for example, the primary strategy applies only to a subject. The other grammatical positions are relativized by the non-primary strategy. A direct object, however, cannot be relativized and is left as a gap on the AH. They explain that Toba Batak can relativize a direct object after promoting it to a subject position through passivization (1977 : 69).<sup>10)</sup> We can examine Toba Batak examples below.

9) We do not consider pragmatic factors in RC formation. See Yeon (2012; 2021) for how pragmatic knowledge influences the acceptability of Korean RCs.

10) Contrary to Keenan and Comrie (1977: 69), who refer to a grammatical position as a gap when it can be relativized only after it is promoted to higher position on the AH, Cristofaro (2003: 200-201) argues that it should be counted as an instance of the relativization of that grammatical position. In the case of Toba Batak, for instance, Keenan and Comrie (1977) regard the position of a direct object as a gap because it cannot be relativized directly but needs to be promoted to a subject position. In Cristofaro's (2003) argument, however, when a direct object is promoted to a subject and relativized, this will be regarded as a relativization of a direct object not a subject because the same conceptual situation is being expressed. To support her argument, she points to the morphosyntactic features of the RC construction.

- (19) a. manussi        abit        boru-boru    i.  
           wash        clothes    woman        the  
           ‘The woman is washing the clothes.’
- b. boru-boru    na        manussi    abit        i  
           woman        that     wash        clothes    the  
           ‘The woman who is washing clothes’
- c. \*abit        na        manussi    boru-boru    i  
           clothes     that     wash        woman        the  
           ‘The clothes that the woman is washing’

(Keenan and Comrie 1977: 68-69)

In (19b), a subject is relativized and in (19c), a direct object is relativized. As (19c) is ungrammatical, a subject but not a direct object can be relativized in Toba Batak. When the direct object is promoted to a subject position by passivization as in (20a) below, it can be relativized as in (20b).

- (20) a. disussi        ni        boru-boru    abit        i.  
           be washed    by        woman        clothes    the  
           ‘The clothes were washed by the woman.’
- b. abit        na        disussi        ni        boru-boru    i  
           clothes     that     be washed    by        woman        the  
           ‘The clothes that were washed by the woman’

(Keenan and Comrie 1977: 69)

Examining languages such as Toba Batak above, Keenan and Comrie (1977) suggest that unrelativizable NPs can be systematically promoted to higher positions on the AH, where they can be relativized:

If a language can relativize any position on the AH, then

---

When a grammatical position is relativized through promotion to some other positions, the construction used is not the same as those normally used for the relativization of those positions. There are, for example, derivational affixes signaling passivization or the like. Because RCs formed on promoted NPs are usually typologically marked displaying a higher number of morphemes, less inflectional distinctions, and reduced behavioral potential, she suggests to distinguish the relativization of a promoted position from the relativization of the position to which it is promoted.

it can relativize any higher position either directly or by promoting it to a position that can itself be relativized directly.  
(Keenan and Comrie 1977: 69)

Givón (1979) demonstrates how promotion works in languages in which RC formation is heavily constrained by interacting with the RC-forming strategy. He proposes the following relationship between relativization types and promotion types, which is appropriately summarized in Croft (1990):

If a language allows relativization of subjects only, then it has subject-creating verbal derivatives. If a language allows relativization of subjects and direct objects only, then it has applicative verbal derivatives. (Croft 1990: 227)

That is, if a language can relativize only a subject, then it probably has a grammatical device to promote other grammatical relations to a subject; further, if a language can relativize only a subject and a direct object, then it must have a way to promote an NP to a direct object. Croft describes this as a ‘conspiracy’ between accessibility to relativization and other grammatical devices attributed to communicative motivation: the need to provide some grammatical means to express virtually any concept or complex structure of a concept so that the functional communicative requirements can be satisfied (1990: 227-228).

Unlike the systematic application of grammatical devices to unrelativizable NPs, there are some cases in which grammatical mechanisms work on certain constituents to make them relativizable. Song (1991), for instance, demonstrates how the conjunction device and the adverb device contribute to the relativization of certain obliques in Korean. First, he describes how the conjunctive markers *-ase* and *-ko*, both meaning ‘and’, function in relativization by interacting with the promotion device (1991: 205-211). That is, when allative or ablative NPs are not accessible to relativization with the primary strategy (i.e. the gap strategy) or cannot be promoted into a relativizable position, the conjunctive marker *-ase* introduces a verb that is semantically compatible with the original verb and can perform the necessary promotion.<sup>11)</sup> Similarly, the conjunctive marker *-ko* introduces a verb that reflects

---

11) The example in (3) below is a case in point. The allative NP in (4b) cannot be relativized, as (4a) turns out ungrammatical. When the conjunctive marker *-ase* introduces the verb *tena-*

the meaning of the eliminated postposition along with the relativized NP, and restructures the NP as a direct object, a position that is easily accessible to the primary strategy. In addition, Song provides some examples where adverbs such as *kathi* or *hamkkey*, both meaning ‘together’, are used to make up for the loss of the comitative particle, which makes it possible to relativize comitative NPs that cannot be relativized straightforwardly (1991: 212). Though these devices in Korean seem to be similar to the promotion device discussed above, they are different from it in that they can operate only on a certain kind of oblique NPs.

## 5.2. Adopting the non-primary strategy

Another solution a language can employ to relativize a grammatical position that cannot be relativized with the primary strategy is to adopt a non-primary strategy. That is, languages can have more than one RC-forming strategy. If they do, RC-forming strategies are not distributed randomly but systematically according to the explicitness in expressing the relativized noun: the more explicit RC-forming strategy will be used lower down the AH and the less explicit RC-forming strategy higher up the AH. This distribution of RC-forming strategie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more difficult a position is to relativize, the more explicit an indication is given of what position is being relativiz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covery of this information (Comrie 1989: 163). To be more specific, Song (2001: 226-227) demonstrates a hierarchy of three relativization strategies in terms of explicitness in the encoding of the grammatical relation of the head noun in an RC (see also Keenan and Comrie

---

‘leave’, the head noun *hocu* ‘Australia’ is promoted to an object role and can be relativized by the gap strategy as in (3).

- (3) *kiho-ka ttena-ase o-n hocu*  
 Keeho-SUB leave-CONJ come-REL Australia  
 ‘(lit.) Australia, which Keeho left and came (here)’ (Song 1991: 206)
- (4) a. *\*kiho-ka ttena-n hocu*  
 Keeho-SUB leave-REL Australia  
 ‘Australia, for which Keeho left’
- b. *kiho-ka hocu-lo ttena-ass-ta.*  
 Keeho-SUB Australia-ALL leave-PST-IND  
 ‘Keeho left for Australia.’ (Song 1991: 202)

1977: 92; Comrie 1989: 163):

The gap strategy >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 means ‘less explicit than’)

Firstly, the gap strategy does not mark the grammatical relation of the head noun in an RC as we can see from the Japanese RC in (21) below.

- (21) [yamada-san ga ka't-te i-ru] sa'ru  
 Yamada-Mr NOM keep-PART be-PRS monkey  
 ‘The monkey which Mr Yamada keeps’ (Keenan and Comrie 1977: 72;  
 Keenan 1985: 143)

The head noun takes a direct object role in the RC (bracketed in the text), and it is gapped from it. Unlike the gap strategy, the other two strategies retain a pronominal ‘copy’ of the head noun in an RC. Generally,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gives more information about the head noun than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in two aspects. First, a relative-pronoun is more abstract than a pronoun.<sup>12)</sup> Second, the relative-pronoun is generally fronted to the beginning of the RC contrary to the pronoun in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which stays where it is expected to be in a simple clause. We can examine the Russian RC in (22) (bracketed in the text) and the Persian RC in (23) (bracketed in the text), each of which represents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and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respectively.

- (22) *ivan videl devušku, [kotoruju petr ljubit].*  
 Ivan saw the girl whom Peter loves  
 ‘Ivan saw the girl whom Peter loves.’ (Keenan and Comrie 1979: 344)

12) But, see also Dixon (2010: 346) describing information that a relative pronoun can include as given below.

- a. Type of reference of the head noun—whether to a person, animal, or thing (for instance, there may be different forms for human/non-human or for animate/inanimate), place, time, manner, etc. Sometimes also gender or noun class, or choice from a classifier system
- b. Number; for example, singular/plural
- c. Function of the head noun in an RC—often by case inflection (if the language has a case system) or marked by an adposition

- (23) *man zan-i râ [ke John be*  
 I woman-the DO that John to  
**u** sibe zamini dâd mišenâsam].  
 her potato gave know  
 ‘I know the woman to whom John gave the potato.’ (Keenan and  
 Comrie 1979: 337)

In the Russian example given in (22), the head noun takes a direct object role in the RC. The grammatical role of the head noun is expressed by the relative-pronoun which has been inflected with an accusative case. Notably, the relative-pronoun (bolded in the text) appears at the beginning of the RC unlike a direct object in a simple clause which comes after a verb in Russian. The RC in (22) can be compared with the Persian example given in (23), in which the head noun *zan* ‘woman’ takes an indirect object role in the RC, and a resumptive pronoun (RP) (bolded in the text) that is co-referential to the head noun is expressed in the position of a dative NP along with the dative case marker *be* ‘to’.

Based on how explicitly the RC-forming strategy expresses the relativized NP, there can be three possibilities for selecting the primary and the non-primary strategies. First, the gap strategy is used for the higher positions on the AH, and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for the lower positions. Second, the gap strategy is used for the higher positions on the AH, and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for the lower positions. Third,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is used for the higher positions on the AH, and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for the lower positions. The three possibilities are summed up as follows:

- the gap strategy >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 the gap strategy >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 (‘>’ means ‘less’ explicit than)

The first two possibilities illustrate cases where the grammatical role of the head noun is not marked in an RC for the higher positions of the AH and is marked for the lower positions of the AH. An example of an instance in which using the gap strategy as the primary strategy and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as the non-primary strategy can be seen in Hebrew. In Hebrew, the gap strategy is used

for a subject and a direct object, and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is optionally applied for a direct object, and is obligatorily applied for the grammatical positions other than a subject and a direct object (Song 2001: 221). We can examine Hebrew examples below (RCs are bracketed in the text).

- (24) a. tare li et ha-pil [she-martiv et ha-arye].  
 show me ACC the-elephant that-wets ACC the-lion  
 ‘Show me the elephant that wets down the lion.’ (Friedmann and Costa 2011: 228)
- b. raiti et ha-yeled [še rina ohevet (oto)].  
 saw-I ACC the-boy that Rina loves him  
 ‘I saw the boy that Rina loves.’ (Borer 1984; Rouveret 2011: 3)
- c.<sup>13)</sup> raiti et ha-yeled [še Miriam natan lo sefer].  
 saw-I ACC the-boy that Miriam gave to-him book  
 ‘I saw the boy to whom Miriam gave a book.’

In (24a), the relativized NP takes a subject role in the RC and is gapped from it.<sup>14)</sup> In (24b) and (24c), the relativized NP takes a direct object role and an indirect object role in the RC respectively; an RP (bolded in the text) co-referential to the head noun appears in the RC optionally in (24b) and obligatorily in (24c).<sup>15)</sup> Although it is theoretically possible to use the gap strategy as the primary strategy and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as the non-primary strategy, it is hard to find such an example. The difficulty in finding such a case may be attributed to the tendency for the gap strategy to be used in languages with the prenominal RC and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to be used in languages with postnominal RC (Keenan 1985: 154; Song 2001: 217-220)

Next, we will examine the possibility of a case where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13) The example in (24c) has been construed for this study.

14) The complementizer in Hebrew is transcribed either as ‘še’ or ‘she’.

15) Comire (1989: 154-155), however, shows an example of Modern Hebrew in which an oblique NP is relativized by the gap strategy when the grammatical role of the head noun is the same both in an RC and the main clause. In (5), for instance, the RP *lo* ‘to him’ optionally appear in the RC.

(5) *Natati sefer le oto yeled [še Miriam natna (lo) sefer].*  
 I-gave book to same boy that Mary gave to-him book  
 ‘I gave a book to the same boy that Mary gave a book to.’ (Comire 1989: 154)

is used for the higher positions on the AH, and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is used for the lower positions on the AH.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 grammatical role of the head noun is expressed in an RC in both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and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As can be expected from this similarity between these two RC-forming strategies, the relative-pronoun is generally not found to be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Song 2001: 221). There are only some languages that use both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and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These include Modern Greek, Modern Czech, and Slovenian (Maxwell 1979: 367; Keenan 1985: 151). These languages, however, cannot be an example of the case where the non-primary strategy is used as an alternative RC-forming strategy when the primary strategy ceases to apply. This is because in these languages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is used for all the grammatical positions on the AH.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can be applied apart from a subject and a direct object in Modern Greek (Keenan and Comrie 1977: 93),<sup>16)</sup> and apart from a subject in Modern Czech and Slovenian (Song 2001: 222).

Lastly, we will investigate English examples to find out whether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is used as an alternative RC-forming strategy for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To begin with, in English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is used as the primary strategy and it applies to all the grammatical roles on the AH (Keenan and Comrie 1977: 74). In the examples given in (25) and (26) below, however, a subject and an object of an embedded clause are relativized by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25) This is the road which I don't know where it leads. (Comrie 1989: 140)

(26) He looks like one of those guys you got to be careful throwing them fastballs.  
(Prince 1990: 483)

In (25), the head noun takes a subject role in the RC, and it (bolded in the

---

16) Joseph (1983) refutes Keenan and Comrie's (1977) prediction about the AH for Modern Greek by showing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is used for a subject position. He suggests the example below in which an RC is formed on a subject NP by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the RP is bolded in the text).

(6) *kséro ton ánthropo<sub>i</sub> [pu móno **aftós**<sub>i</sub> méni s tin Aθína].*  
know.1.SG the man.ACC REL only he.NOM live.3.SG in the Athens  
'I know the man that is the only one that lives in Athens.' (literally: 'I know the man that only he lives in Athens.')

text) appears co-referential to the head noun in the RC. Likewise, in (26), the head noun takes an object role in the RC, and them (bolded in the text) appears co-referential to the head noun in the RC. Without having the RPs in the RCs, (25) and (26) become ungrammatical. Unlike languages using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such as Hebrew, English is peculiar in that there is a discord between producing an RP and accepting it in an RC. Polinsky et al. (2013: 343), for instance, find that RPs appear in RCs in both a simple and a complex structural context, including even the highest subject position. English RCs with RPs, however, tend to be judged as unacceptable in those same contexts in which they are produced (2013: 344). This contradictory result implies that English speakers use an RP even when they think it is out of the normal boundaries that they judge to be grammatical. We can find the reason why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is used in English by observing the context in which an RP is used in English RCs. As Comrie (1989: 163) points out,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is used in some varieties for one of the least accessible positions, namely subject of a subordinate clause with an overt conjunction’. Examining languages that use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Hawkins (2004) shows that the RP is used for the least accessible position with increasing complexity.<sup>17)</sup> Further, he predicts that ‘when the grammar of a language allows the option of either an RP or a gap, RPs will be used more frequently in more complex structural environments, to facilitate processing in those environments’ (2004: 183-186). In sum, although having an RP in an RC can cause low acceptability, English speakers use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processing a complex construction.<sup>18)</sup>

### 5.3. Case-recoverability

Previously, we have shown that languages have ways to deal with the restrictions in RC formation so that the functional communicative requirements can be met (Croft 1990: 227-228). What should be emphasized is that the restrictions and solutions in RC formation are not arbitrary but systematic; there is a principle that applies to the arrangement of restrictions and solutions. Keenan and Comrie (1977) try

---

17) This is challenged by Polinsky et al. (2013) whose findings show RPs are used in a simple clause including the highest subject position.

18) Not fully licensed by the grammar, RPs in English RCs are referred to as ‘intrusive’ RP (Sells 1984) compared with the grammatically licensed RPs that are found in languages such as Hebrew (Francis et al. 2015: 57).

to explain the regular pattern in RC formation, which they call the AH, with psychological accessibility. They argue that the AH reflects the psychological ease of comprehension, that is, the lower a position is on the AH, the harder it is to figure out the position in which an RC is formed (1977: 88). As an example of this, they suggest Toba Batak, which can relativize subjects using a [-case] strategy, can relativize indirect objects, obliques, and genitives using a [+case] strategy, but cannot relativize a direct object with any strategy (1977: 89). In this language, a direct object can be promoted to the position that can be relativized via operations such as passivization, as noted in 2.5.1. They further argue that, in Toba Batak, it might be psychologically easier to promote a direct object to a subject and relativize it than to relativize it as a direct object (1977: 89). However, they fail to explain why, in this language, relativizing a direct object indirectly through promoting it to a subject is psychologically easier than relativizing it directly. An answer can be found in the case-recoverability discussed in Givón (1979) and Croft (2001).

Givón (1979: 145) points out that if there are any transformational operations, such as deletion, order scrambling, or changes in the case-marking morphology, it becomes harder to recover the case that the argument originally held. He refers to this as the case-recoverability problem. Although it is not the situation for every language in every instance, languages can have remedial strategies so that the original case function of the arguments can be easily recognized:

When the strategy used in the neutral sentence pattern for recognizing the case-function of arguments vis-à-vis the verb is tampered with by transformations, the language resorts to remedial strategies for recoding those case-functions. (Givón. 1979: 146)

Givón (1979) describes how the remedial strategies work in RC formation. RCs are formed in such a way that the case of the relativized noun is recovered, and he refers to it as the case-recoverability strategy.<sup>19)</sup> He further demonstrates the interaction

---

19) Givón (1979: 147-152) suggests eight case-recoverability strategies: the non-reduction strategy, the gap strategy, the word-order strategy, the nominalization strategy, the anaphoric pronoun strategy,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the equi-case strategy, and the verb-coding strategy. The case-recoverability strategy is distinguished from the RC-forming strategy in that the former focuses on how the case of the head noun can be recovered, not the whole head noun.

between the case-recoverability strategy and grammatical devices, such as promotion. He demonstrates, for instance, how promotion with the verb-coded case marker works in a language with a subject-only constraint in relativization to enable other constituents to be relativizable. In the same vein, Croft (1991) demonstrates that the RC-forming strategies and how they treat the constraints on RC formation are interrelated with case-recoverability:

Different relative clause strategies, and the interaction of constraints of accessibility with derived verb forms, anaphoric pronouns and relative pronouns, all have the effect of allowing relativization of virtually any NP, and (to a lesser extent) of maintaining case recoverability. (Croft 1991: 230)

The point of his argument is that languages employ the RC-forming strategy that is optimal to the case-recoverability, interacting with every factor relating to RC formation.

This is the situation in Toba Batak, and we can explain why this language prefers to use the promotion strategy rather than employing the non-primary strategy when we consider these complex factors related to case-recoverability. Specifically, word order, the case system, and the RC-forming strategy all should be considered when describing the relativization of Toba Batak. Toba Batak is a VOS language, and subjects and objects do not have any case markers on a noun or a verb. Further, it employs the gap strategy for subjects and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for indirect objects, obliques, and genitives. Thus, if a direct object is relativized with the gap strategy, there would be ambiguity in what NP is relativized since we could not decide whether the NP in the RC takes the subject or the object role. Even if a direct object is relativized with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one cannot eliminate the potential ambiguity since, if both of the NPs in the RC are pronouns, we might not tell which one is relativized between the two NPs. Therefore, as far as the case-recoverability is concerned, relativizing a direct object indirectly after promoting it to a subject position has more advantages in processing the construction clearly than relativizing the direct object directly.

## 6. Acceptability judgments

There is one more factor that should be considered regarding the AH. Even though an RC can be formed at a certain position on the AH, language users may not use it or just avoid that expression because it is regarded as unnatural. Keenan and Comrie (1977: 90) deal with this issue in terms of acceptability judgments and predict that RCs formed at the high end of the AH will be judged more acceptable than RCs formed at the low end. In English, for instance, an object of comparison can be relativized by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the primary strategy. There is, however, a preference for expressing the meaning by employing the semantically equivalent sentence in which the semantic object of comparison is presented as a subject. That is, the preferred way to express the idea of the man who Mary is taller than will be, in general, the man who is shorter than Mary (1977: 90). They further mention that although a majority of languages in their sample possessed some way of relativizing genitives, there was often some awkwardness in doing so. In some languages, it was not infrequent for a preferred alternative to be offered—one that relativizes a position higher on the AH. For example, in French, though genitives can be relativized by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as in (27a), people tend to use a paraphrased sentence where a genitive is turned into a direct object like (27b) (1977: 90-91).<sup>20)</sup>

- (27) a. la femme dont le manteau a été volé  
 the woman whose the coat has been stolen  
 ‘The woman whose coat was stolen’  
 b. la femme qui s’ est fait voler le manteau  
 the woman who herself is caused to-steal the coat  
 ‘The woman who got her coat stolen’

(Keenan and Comrie 1977: 91)

Likewise, although the non-primary strategy can be adopted when the primary RC strategy ceases to apply, it can cause awkwardness. Malay, for example, uses the gap strategy, and this can apply only to a subject and a direct object. Thus, to relativize an indirect object, it needs to adopt an interrogative pronoun that can take a preposition and thereby indicate the grammatical role of the head noun as in (28a).

---

20) The French example in (27) has been discussed in 1.1.

- (28) a. perempuan kepada siapa Ali beri ubi kentang itu  
 woman to who Ali give potato the  
 ‘The woman to whom Ali gave the potato’
- b. perempuan yang menerima ubi kentang itu daripada Ali  
 woman that received potato the from Ali  
 ‘The woman that received the potato from Ali’
- (Keenan and Comrie 1977: 71)

However, as Keenan and Comrie point out, using the interrogative pronoun is bookish and clumsy, so a lexically reorganized solution, in which an indirect object is turned into a direct object like (28b), is preferred (1977: 71).

Korean is another example in which the acceptability of RCs should be considered. Keenan and Comrie argue that in Korean subjects to obliques on the AH can be relativized with the gap strategy, and genitives can be relativized with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1977: 74). The problem is that having an RP in an RC sounds very unnatural in Korean, so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se kinds of RCs to be used in communication. Furthermore, there is no alternative way to relativize a genitive other than employing the non-primary strategy when it cannot be relativized. The next step that Korean speakers may adopt in order to attain the functional communicative requirement may be to abandon RCs and ‘recast examples without RCs’ (Mallinson and Blake 1981: 340).<sup>21)22)</sup>

## 7. Conclusion

In this paper, we explored the definition of an RC construction, illustrated its types and forming strategies, and discussed how the restrictions in RC formation can be dealt with. After describing the composition of an RC construction, we first argued that cross-linguistic definitions should focus on the function of an RC construction<sup>3)4)</sup>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head noun. Second, we classified RC

21) Mallinson and Blake (1981: 340) argue that Japanese speakers either recast examples without RCs or adopt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when there is ambiguity in recovering the role of the relativized NP.

22) One of the constructions that Korean can adopt to express the meaning/function of RCs is adverbial clauses. See Lee and Lookadoo (2020) for the discussion of alternative constructions for RCs in Korean.

types based on the expression of the head noun in an RC, the position of the head noun compared to an RC, and the encoding strategy of an RC.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expression of the head noun in an RC, we examined four RC-forming strategies: the non-reduction strategy, the relative-pronoun strategy,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and the gap strategy. Third, the ways in which a language deals with the constraints on RC formation have been discussed. We have shown that a language can use grammatical devices such as passivization to make an NP relativizable or can adopt an RC-forming strategy where the grammatical role of the head noun is more explicitly expressed in an RC. However, we have pointed out that these remedies can cause unnaturalness. Thus, we suggested that a language may abandon an RC and adopt another construction to transfer the meaning/function of an RC.

## References

- Amin-Madani, Sadegh & Dorothea Lutz (1972), *Persische Grammatik*, Heidelberg: Groos.
- Andrews, Avery D. (1975), *Studies in the Syntax of Relative and Comparative Clauses*. Ph.D.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_\_\_\_\_ (2007), Relative clauses, in Timothy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omplex Constructions*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6-236.
- Bird, Charles (1968), Relative clauses in Bambara. *Journal of West African Languages* 5(1), 35-48.
- Borer, Hagit (1984), Restrictive relatives in Modern Hebrew,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 219-260.
- Chae, Hee Rahk (2012), Hankukeey kwayeon kwankyeceli conjay hanunka (Are there relative clauses in Korean?: A participle clause analysis). *Kukehak*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7(40), 1043-1065.
- Comrie, Bernard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yntax and Morphology* (2nd ed.), Oxford: Blackwell.
- \_\_\_\_\_ (1998), Attributive clauses in Asian languages: Towards an areal typology, in W. Boeder, C. Schroeder, K. H. Wagner and W. Wildgen (Eds.), *Sprache in Raum und Zeit, In memoriam Johannes Bechert, Band 2: Beiträge zur empirischen Sprachwissenschaft*, Tübingen: Gunter Narr, 51-60
- Cristofaro, Sonia (2003), *Subordin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roft, William (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3), *Typology and Universals*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xon, Robert. M. W. (2010), *Basic Linguistic Theory 2: Grammatical Top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cis, Elaine J., Charles Lam, Carol C. Zheng, John Hitz & Stephen Matthews (2015), Resumptive pronouns, structural complexity, and the elusive distinction between grammar and performance: Evidence from Cantonese, *Lingua* 162, 56-81.
- Friedmann, Naama and João Costa (2011), Last resort and no resort: Resumptive pronouns in Hebrew and Palestinian Arabic hearing impairment, in Alain Rouveret (ed.), *Resumptive Pronouns at the Interfaces*, Amsterdam: John Benjamins, 223-240.
- Givón, Talmy (1975), Promotion, accessibility and case marking: toward understanding grammars. *Working Papers on Language Universals* 19, 55-125.
- \_\_\_\_\_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 Hajek, John (2004), Adjective classes: What can we conclude? In Robert. M. W. Dixon and Alexandra Y. Aikhenvald (eds.), *Adjective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48-61.
- Haspelmath, Martin (2010), Comparative concepts and descriptive categories in cross-linguistic studies, *Language* 86(3), 663-687.
- Hawkins, John. A. (2004), *Efficiency and Complexity in Gramma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endery, Rachel. (2012), *Relative Clauses in Time and Space: A Case Study in the Methods of Diachronic Typology*, Amsterdam: John Benjamins.
- Joseph, Brian. D. (1983), Relativization in Modern Greek: Another look at the accessibility hierarchy constraints, *Lingua* 60 (1), 1-24.
- Keenan, Edward. L. & Bernard. Comrie (1977), Noun phras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8, 63-99.
- \_\_\_\_\_ (1979), Data on the 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 *Language: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55(2), 333-351.
- Keenan, Edward. L. (1985), Relative clauses, in Timothy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omplex Constructions*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1-170.
- Lehmann, Christian (1986), On the typology of relative clauses, *Linguistic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the Language Sciences* 24 (4), 663-680.
- Lee, Ji-Eun & Jonathon Lookadoo (2020), On alternative constructions for the pronoun-retention strategy in Korean: A corpus and translation-based analysis, *Linguistic Research* 37(2), 217-266.
- Matsumoto, Yoshiko (1988), Semantics and pragmatics of noun-modifying constructions in Japanese. *Berkeley Linguistic Society* 14, 166-175.
- Maxwell, Daniel. N. (1979), Strategies of relativization and NP accessibility. *Language: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55 (2), 352-371.
- Mallinson, Graham & Barry. J. Blake (1981), *Language Typology: Cross-Linguistic Studies in Syntax*, Amsterdam: North-Holland.
- Munro, Pamela (1976), *Mojave Syntax*, New York: Garland.
- Mun, Suk-Yeong. (2012), Yuhyengloncek kwancemeyse pon hankwuke kwankyeceluy myech mwuncey (A study of Korean relative clauses in typological perspective). *Kaysinmwunyenkwu (Kaysin Language and Literature Study)* 35, 31-68.
- Polinsky, Maria, Lauren E. Clemens, Adam Milton, Ming X. Morgan & Dustin Heestand (2013), Resumption in English, in Jon Sprouse & Norbert Hornstein (eds), *Experimental Syntax and Island Effe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41-359.
- Prince, Ellen F. (1990), Syntax and discourse: A look at resumptive pronouns. *Proceedings of the Sixteen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482-497.
- Rouveret, Alain. (2011). Some issues in the theory of resumption: A perspective on early and recent research. In Alain Rouveret (ed.), *Resumptive*

- Pronouns at the Interfaces* (pp. 1-62). Amsterdam: John Benjamins.
- Schachter Paul & Fe T. Otanes (1972), *Tagalog Reference Gramm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ell, Peter (1984), *Syntax and Semantics of Resumptive Pronou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Song, Jae Jung (1991), Korean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Conspiracy and pragmatics, *Australian Journal of Linguistics: Journal of the Australian Linguistic Society* 11 (2), 195-220.
- \_\_\_\_\_ (2001) *Linguistic Typology: Morphology and Syntax*, Harlow: Longman.
- Tosco, Mauro (2001), *The Dhaasanac Language*, Cologne: Rudiger Köppe.
- Whaley, Lindsay J. (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The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Yeon, Jae-Hoon (2012), Yuhyengloncek kwancemuy hankwuke kwankyecel yenkwu (A functional-typological study on Korean relative clauses), *Kwukehak (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63, 413-457.
- \_\_\_\_\_ (2021), *Ene Yuhyenglon Kanguy* (Lectures on Linguistic Typology), Seoul: Hankookmunhwasa.

저자명: 이지은

소속: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언어교육연구팀 연구교수

주소: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언어학과

이메일: jicunlee01@korea.ac.kr

접수일: 2022. 2. 10

심사일: 2022. 2. 22

총평일: 2022. 2. 28

## 한·중 SHARP 형용사의 어휘유형론적 연구

후박문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Bo-wen Hou. 2022. A Lexical Typological Study on Korean and Chinese SHARP adjectives.** *Linguistic Typology Research* 7(1), 63-94. This paper is a contrastive study on SHARP adjectives in Korean and Chinese from the perspective of lexical typology. The research method follows the approach of Moscow Lexical typology, and the analysis data are collected from dictionary description, corpus use, and consultation result according to native speaker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 terms of basic meaning, similar lexical strategies were found in the two languages. In terms of derivative meaning, Chinese is distinguished from Korean in that derivation meaning related to SHARP is divided into several independent words. However, SHARP lexical in Korean cover a wider semantic range than in Chinese.(Seoul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lexical typology, SHARP adjectives, semantic map, contrastive study /

어휘유형론, SHARP 형용사, 의미지도, 대조 연구

### 1. 서론

본 연구는 어휘유형론의 관점에서 한·중 SHARP 형용사의 의미 특징을 밝히고, 두 언어 SHARP 어휘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HARP 형용사란 사물의 ‘날카로움’을 지시하는 물리 속성 형용사를 뜻한다. 유형론 연구를 위해 대문자 ‘SHARP’으로 이 어휘장의 개념을 표시한다.

어휘유형론의 취지는 범언어적인 조사를 통해 어휘 체계의 보편적인 규칙성을 밝히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취지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 SHARP 개념의 어휘화 전략을 살피고, 기초 의미와 파생 의미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대조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모스크바 어휘유형론(Moscow Lexical Typology, 이하 MLexT로 약칭)’ 연구팀에 의해 제기된 SHARP

어휘장의 의미지도가 본 연구의 관찰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려 한다.

연구 대상은 한국어, 중국어의 표준어에 쓰이는 형용사를 중심으로 한다. 논의하는 과정에 일부 방언 자료도 참고할 것이다. 선정된 어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한·중 SHARP 형용사 목록

- a. 한국어: 날카롭다, 뾰족하다, 예리하다, 침예하다 등
- b. 중국어: 尖, 快, 锋利, 尖锐, 锐利, 尖利 등

연구 자료는 사전 기술, 말뭉치에서 추출한 용례, 그리고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얻은 결과이다. 한국어 말뭉치는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버전 1.0)’를 이용했고, 중국어 말뭉치는 북경언어대학교 ‘BCC 말뭉치’와 북경대학교 ‘CCL 말뭉치’를 활용했다.

본 연구는 2장에서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3, 4장에 걸쳐 한국어와 중국어 SHARP 형용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찰하고, 5장에서 한·중 SHARP 어휘장에 대해 대조·분석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 2. 선행 연구

본고의 기반이 되는 것은 모스크바 어휘유형론 학파의 연구이다. MLexT연구팀은 2010년부터 물리 속성 형용사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WET/DRY’, ‘NEW/OLD’, ‘SHARP/BLUNT’, ‘SMOOTH/ROUGH’, ‘SOFT/HARD’, ‘LIGHT/HEAVY’ 등 어휘장이 연구 대상으로 채택되었다. ‘SHARP/BLUNT’ 어휘장 연구의 경우, 20개 언어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했으며,<sup>1)</sup>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어 화자의 직관으로 해당 어휘장의 분할 방식을 구상하고, 이중 언어 사전과 말뭉치 자료를 통해 더 많은 언어 자료를 확보한 후 각 언어의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sup>2)</sup> 다음, 분석

1) 구체적인 언어는 다음과 같다. 캅카스(Caucasian) 어족의 카바르디아어(Kabardian)와 아글어(Aghul), 우랄(Uralic) 어족의 헝가리어(Hungarian), 핀란드어(Finnish), 코미어(Komi), 목샤어(Moksha), 오스트로네시아(Austronesian) 어족의 말레이어(Malay), 만데(Mande) 어족의 클라-덴어(Kla-Dan),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 수화이다.

2) 관련 설문지는 모스크바 어휘유형론 그룹의 공식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http://lextyp.org/projects/physical-qualities-sharp-and-blunt/>).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어휘장의 의미지도를 내세우고, 각 언어의 어휘화 전략을 분석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연구의 최종 성과는 아직 공식 출판되지 않았다.<sup>3)</sup> 본 연구는 Ryzhova & Obiedkov(2017), 李亮(2019)를 비롯한 연구팀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진행한다. 그중 Ryzhova & Obiedkov(2017)는 SHARP 어휘장을 예로 들어 의미지도를 설계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이고, 李亮(2019)는 중국어 물리 속성 형용사를 주요 논의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아래에는 李亮(2019: 72-101)을 바탕으로 MLexT에 의해 이뤄진 SHARP 어휘장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2.1. SHARP 어휘장의 매개변수(parameter)와 프레임(frame)

매개변수(parameter)와 프레임(frame)은 MLexT가 어휘 의미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먼저 매개변수에 대해 알아보자. 매개변수란 어휘장의 성원을 구별할 수 있는 의미 자질을 가리킨다. 이는 구조주의 의미론에서 사용하는 의미성분(semantic component)과 차이가 있다. 의미성분은 친족 어휘 체계에 쓰이는 [+남성] [+연장자]처럼 서로 독립성을 지닌 자질이다. 이와 달리 매개변수는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관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Rakhilina & Reznikova 2016: 104).

SHARP 어휘장의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쌍이 설정된다.

### (2) SHARP 어휘장의 매개변수

- a. ‘선(edge)’과 ‘점(end-point)’의 대립
- b. ‘기능(function)’과 ‘모양(form)’의 대립

‘선(edge)’과 ‘점(end-point)’의 대립은 SHARP 어휘가 표현하는 물체의 생김새가 ‘선형’인지, ‘점’인지를 뜻한다. 날카로운 칼날은 ‘선’으로, 끝이 뾰족한 창은 ‘점’으로 추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선’과 ‘점’의 대립이 설정된다. 이 변수는 많은 언어에 작동되는데 가령 이탈리아어의 ‘affilato’와 ‘tagliante’는 물체를 베는 도구를 묘사하며, ‘appuntito’와 ‘aguzzo’는 물체를 찌르는 도구를 수식한다.

‘기능(function)’과 ‘모양(form)’의 대립은 SHARP 어휘가 표현하는

3) 李亮(2019: 331)에 의하면 SHARP/BLUNT 형용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성과는 출판 예정이며, 문헌 정보는 다음과 같다. Kyuseva, M. & Parina, E. & Ryzhova, D. (in print), “Methodology at work: semantic fields «sharp» and «blunt»”, In Rakhilina, E. & Reznikova, T. (eds.). *The Typology of Physical Qualitie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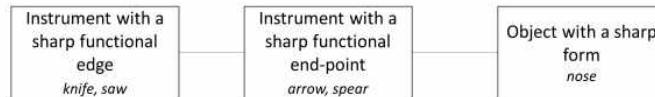
물체가 도구로서 어떤 기능적 용도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기능성이 없고 생김새만 드러내는 것인지를 뜻한다. 전자는 주로 ‘칼, 낫, 도끼, 가위’와 같은 도구를 의미하고, 후자는 주로 ‘지붕, 모자, 코, 턱’과 같은 끝이 점차 가늘어지는 물체를 가리킨다.

이어서 SHARP 어휘장의 프레임(frame)에 대해 알아보자. 프레임은 매개변수의 전형적인 조합으로 형성된 장면을 가리킨다. 만약 한 개념이 여러 언어에서 독립된 단어로 어휘화된다면 이 개념은 고정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프레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 SHARP 어휘장의 프레임에는 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 (3) SHARP 어휘장의 프레임

- a. 날카로운 면을 갖고 베는 기능을 하는 도구  
(매개변수 [선]과 [기능]의 조합)
- b. 뾰족한 끝을 갖고 찌르는 기능을 하는 도구  
(매개변수 [점]과 [기능]의 조합)
- c. 끝이 점차 가늘어지는 모양의 물체  
(매개변수 [점]과 [모양]의 조합)

이와 같은 세 가지 프레임 중 [선]과 [모양]의 조합은 단독으로 프레임을 형성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李亮(2019: 74)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찰한 언어 가운데서 단독으로 ‘선+모양’을 표현하는 단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조합은 전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핵심 의미가 포함된 SHARP 어휘장의 의미지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 1> 핵심 개념이 포함된 SHARP 어휘장의 의미지도  
(Ryzhova & Obiedkov 2017: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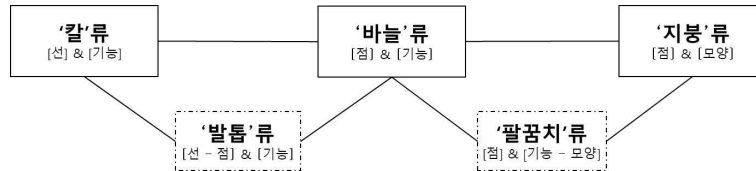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 어휘가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sharp’와 러시아어의 ‘ostrjy’가 그것이다. 한 가지 의미만 나타내는 어휘도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 ‘tranchant’은 칼과 같은 선형 도구만 수식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의미 간에 서로 겹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 가령 ‘짐승의 발(claw)’은 찌르는 도구로 쓸 때는 ‘점’의 자질로 볼 수 있고, 물체의 표면을 긁을 때는 ‘선’의 자질로 볼 수 있다. 또한, ‘팔꿈치’는

일반적으로 ‘모양’으로 분류되나 사람을 공격할 때는 ‘기능’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계 부분이 <그림 1>에 추가되면 다음과 같은 의미지도가 그려진다. 그중 ‘X류’는 해당 프레임을 대표하는 명사이다.



<그림 2> 주변 의미가 포함된 SHARP 어휘장의 의미지도 (李亮 2019: 75)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 사용 양상에 더욱 부합되는 단어를 선정하여 <그림 2>를 다음과 같이 변환한다. 아래 그림에서 ‘발톱’류와 ‘팔꿈치’류를 핵심 의미와 같은 수직선에 배열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경계 부분이 꼭 모든 언어에서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중국어 SHARP 형용사는 ‘팔꿈치, 발톱, 어깨’를 비롯한 ‘팔꿈치’류 단어를 전부 수식할 수 없다.



<그림 3> SHARP 어휘장의 의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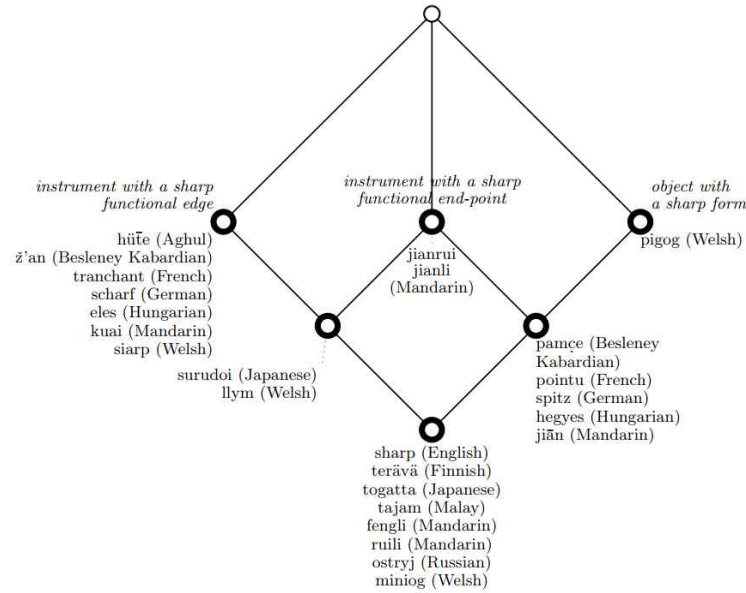
## 2.2. SHARP 어휘의 기초 의미와 파생 의미

MLexT는 단어가 지니는 구체적인 속성을 기초 의미(basic meaning)로 정의하고, 이 기초 의미에서 은유, 환유 등 기제를 통해서 파생된 추상적인 의미를 파생 의미(derived meaning)라고 한다.

여기서 ‘기원 의미’ 대신 ‘기초 의미’를 사용한 이유는 어휘유형론 분석의 초점이 어원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 의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기본 의미가 현대에 가장 많이 쓰인다는 뜻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단어 중 적지 않은 단어는 파생 의미가 더 빈번히 쓰이고 기초 의미가 덜 쓰인다. 예컨대, 중국어 ‘尖锐’는 흔히 ‘尖锐的批评(날카로운 비판)’과 같이 ‘언어, 투쟁 등이 격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비교적 드물게 ‘把锥子磨得非常尖锐(송곳을 아주 뾰족하게 갈다)’처럼 기초 의미로 쓰인다.

본고는 기초 의미와 파생 의미의 구분을 받아들이고, SHARP 형용사의 기초 의미를 물리 속성적 의미에 한정하고, 파생 의미를 물리 속성으로부터 다른 영역으로 확장된 다른 의미로 파악한다.

기초 의미에 대한 접근은 앞서 소개한 의미지도 모형에 의한 것이다. 의미지도를 통해 범언어적으로 공통된 매개변수를 발견하고, 각 언어의 어휘화 전략을 비교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12개 언어의 자료가 반영된 의미지도이다.



<그림 4> 12개 언어의 자료가 포함된 SHARP 어휘장의 의미지도  
(Ryzhova & Obiedkov 2017: 82)

파생 의미에 대한 접근은 언어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MLexT는 구체적인 의미지도를 제시하지 않고 각 언어의 파생 의미를 망라식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 다음에 기초 의미가 파생 의미로 확장하는 과정의 유연성(motivation)을 찾으려 하며, 은유와 환유의 기제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李亮(2019: 82)에 따르면 SHARP 어휘의 파생 의미에 대한 고찰은 ‘지붕’류 프레임에 대한 언어 데이터의 부족으로, 매개변수 [기능]이 작용하는 도구 사용 프레임에만 치중해 왔다. 칼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과 연관을 맺으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 확장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

(4) SHARP 어휘장의 파생 의미 형성 경로 (도구 사용 프레임)

- a. 도구를 사용하는 주체의 각도
- b. 도구의 영향을 받은 객체의 각도
- c. 도구를 사용하는 사건을 관찰하는 시각 수신자의 각도

이 세 가지 경로로 파생된 의미는 뉘앙스에 있어서 긍정·부정적 차이를 지닌다. 도구를 사용하는 주체의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물건을 베는 칼이 정확하고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가 형성된다. 이런 의미는 은유적으로 사람의 지각, 감각적 능력에 의해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sharp eye, sharp brain’의 용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도구의 영향을 받은 객체의 각도에서 기원한 파생 의미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칼질은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는 은유적으로 아픔의 정도가 심하거나 충동이 격렬하다는 뜻으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 영어의 ‘sharp pain, acute disease’는 이런 뜻으로 풀이된다.

세 번째 부류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관찰하는 관점이다. 날카로운 칼은 베는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이로부터 행위가 급하거나 빠르다는 의미가 도출된다. 가령, 영어의 ‘sharp breath’는 급한 호흡을 의미한다. 또한, 날카로운 표면을 베고 나면 일반적으로 뚜렷한 선형의 흔적이 남는다. 시각 수신자의 관점에서 기원한 ‘선’의 특징을 관찰하고, 이로부터 ‘경계가 뚜렷하다’와 같은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 이를테면 영어에서 사진의 선명도를 나타내는 표현 ‘sharpness’를 들 수 있다. 시각 수신자의 각도로부터 형성된 의미는 뉘앙스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중립적이다.

다음 표는 李亮(2019: 82-85)에서 제시한 파생 의미 목록을 번역하여 정리한 것이다. 분석 과정에 이 표의 항목을 참조하되 한·중 SHARP 형용사에서 확인되는 여타의 의미 확장 양상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이다.

<표 1> SHARP 어휘장의 파생 의미 목록(도구 사용 프레임)

주체의 각도	1. (눈, 귀, 시각, 청각, 기억력 등) 좋다.
	2. (안목 등) 분석 능력이 빠르고 뛰어나다.
	3. (머리 등) 민첩하고, 예민하다.
	4. (언어 등) 정곡을 찌르듯이 정확하다.
	5. (사람 등) 영리하다. 말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객체의 각도	1. (사람, 성격) 성미가 거칠다.
	2. (언행 등) 우악스럽다.
	3. (눈빛 등) 매섭고 적대적이다.
	4. (소리, 빛, 냄새 등) 감각에 거슬릴 만큼 강하다.
	5. (바람 등) 매섭다.
	6. (추위 등) 정도가 깊다/강도가 높다.
	7. (아픔 등) 갑작스럽고 정도가 심하다.
	8. (질병 등) 엄중하다. 급성이다.
	9. (느낌 등) 강렬하다.
	10. (인간관계, 충돌, 논쟁, 전투 등) 과격하다.
	11. (문제 등) 시급하다.
시각 수신자의 각도	1. (동작 등) 빠르고 갑작스럽다.
	2. (달리기, 리듬 등) 빠르다.
	3. (회전하는 행위) 급하다.
	4. (산비탈 등) 가파르다.
	5. (변화 등) 빠르고 갑작스럽다.
	6. (선, 경계, 사진 등) 뚜렷하고 분명하다.
	7. (결론, 해석, 명령 등) 명료하다.

### 3. 한국어 SHARP 어휘장

한국어 SHARP 어휘장에는 주로 ‘날카롭다, 뾰족하다, 예리하다, 첨예하다’ 등 단어가 있다. ‘첨리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첨예하다’의 유의어로 표제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 빈도가 많이 낮아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칼이) 날카롭게 되다’라는 의미를 지닌 ‘서다’도 있는데 품사가 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아래에는 ‘날카롭다, 뾰족하다, 예리하다, 첨예하다’ 네 가지 단어를 위주로 논의한다.

한국어 분석 자료는 ‘모두의 말뭉치’ 문어 원시 말뭉치에서 네 가지 단어가 포함된 용례들이다. 각 단어의 출현 빈도는 ‘날카롭다: 45351회, 뾰족하다: 12411회, 예리하다: 13260회, 첨예하다: 6022회’이다. 단어의 사용 양상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빈도 조사도 함께 시행하였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원시 말뭉치에서 네 가지 단어가 포함된 용례를 추출하고, 해당 문장을 형태소 분석기로 처리하여 형태 분석된 파일을 확보한다.<sup>4)</sup> 다음,

4) 본고에서 사용한 형태분석기는 마이칼AI에서 개발한 `deeqnlp` 패키지이다.

형용사의 출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관형어로 쓰인 ‘날카로운, 뾰족한, 예리한, 첨예한’의 용례를 추출하고, 관형어 뒤 두 어절 이내에 출현한 명사를 출력하여 빈도를 계산한다. 이로써 총 5185개 명사가 포함된 목록을 얻게 되었다.

다음은 인공적인 가공이다. 이 목록에서 낮은 빈도수를 보이는 단어일 경우, 직접 수식 관계를 맺는 명사가 아닐 확률이 높으므로 일단 확실적으로 출현 빈도가 3회 이하의 명사를 제외한다. 이로써 총 1762개 명사가 선정되었다. 이 목록 안에 직접 수식 관계가 아닌 명사도 포함되므로, 인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첨예한’과 공기한 명사 중, 14회로 나타난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용례를 살펴보면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립’, ‘첨예한 이데올로기 투쟁’ 등과 같다. 이럴 때 ‘첨예한’은 ‘이데올로기’를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검토를 거친 결과, 총 1368개 명사가 포함된 목록이 형성되었다. 아래는 명사 목록과 빈도수가 함께 반영된 파일의 예시이다.

	1	2	3	4	5
1 단어	뾰족하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첨예하다	
2 수	1273	0	0	0	
3 방법	449	0	3	0	
4 끝	236	177	37	1	
5 부분	146	44	12	9	
6 턱	141	64	0	0	
7 들	137	100	5	0	
8 대책	120	0	0	0	
9 모양	113	38	10	0	
10 대안	106	0	0	0	
11 지붕	102	0	0	0	

<그림 5> 한국어 SHARP 형용사와 명사 결합 빈도표 예시

### 3.1. 한국어 SHARP 어휘장의 기초 의미

전반적인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날카롭다, 뾰족하다, 예리하다’는 곧고루 SHARP의 물리 속성적 의미로 많이 쓰인다. 반면, ‘첨예하다’는 기초 의미의 용례가 극히 적게 발견된다. 위 <그림 5>에서 제시한 명사 목록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SHARP 형용사가 기초 의미로 쓰일 때 수식하는 명사는 총 299개로 판정된다. 그중, ‘첨예하다’와 수식 관계를 맺는 명사는 ‘형태, 부분, 공간, 곳, 칼날, 칼끝, 끝’과 같은 7개 명사이다. 그리고 ‘형태, 부분, 공간, 곳’은 구체적인 의미와 추상적인 의미로 모두

쓰이기 때문에 ‘첨예하다’와 결합한 예는 전부 추상 명사의 용법으로 확인된다. 분석 자료에서 한 자릿수에 불과한 ‘첨예하다’의 기초 의미적 쓰임은 다음과 같다.

- (5) a. 저 산의 모양이 과연 저랬던가. 좀더 높지 않았던가. 봉우리들이 더 가파르지 않았던가. 봉우리 끝이 더 첨예했던 것 같은데.  
 b. 진정한 애정은 우리 시대의 가장 첨예한 모순의 한복판으로 걸어 나가는 일, 그리고 그 현장의 첨예한 칼끝으로부터 부단히 상처받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첨예하다’의 첫 번째 의미는 ‘날카롭고 뾰족하다’로 해석되지만, 이상의 말뭉치 고찰을 통해 이와 같은 기초 의미는 현대 한국어에서 아주 드물게 쓰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래에는 각 프레임에 따라 ‘날카롭다, 뾰족하다, 예리하다’의 용법을 살펴보겠다.

### 3.1.1. ‘칼’류 프레임

‘칼’류 프레임은 매개변수 [선]과 [기능]이 작용하는 것이다. ‘칼’류에 속하는 명사로는 ‘칼, 칼날, 면도날, 메스, 비수, 가위, 검, 낫, 단도, 군도, 도끼, 채찍’ 등이 있다. ‘날카롭다, 예리하다’는 ‘칼’류 프레임에 쓰이는 전형적인 단어이다. ‘뾰족하다’는 소수의 용례가 발견되지만, [선]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각 단어의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6) a. 로라는 그때 날카로운 칼로 오렌지를 까면서 껍질을 벗겨낸 속살들을 가지런히 쌓아 놓고 있었다.  
 b. 파채같은 칼날이 날카로우므로 세척할 때 조심해야 한다.  
 c. 선교사는 날이 무딘 돌도끼보다 날카로운 쇠도끼가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 (7) a. 아직도 그 예리한 칼날이 무뎠는지 않았나요?  
 b. 예리한 낫에 원명화의 검은 치마는 순식간에 잘려져 버렸다.  
 c.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리한 면도날이 되어 그의 가슴을 파고들어 가슴속을 쉬지 않고 베며 돌아다녔다.

(6)과 (7)은 각각 ‘날카롭다’와 ‘예리하다’가 ‘칼’류 명사와 결합한 예를 보여준다. 다음 (8)은 말뭉치에서 ‘뽀족하다’가 ‘칼, 칼날’과 결합한 예이다. 표면적으로 ‘칼’류의 특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개변수 [선]과 [기능]의 조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8) a. 익혀서 껍질과 뼈를 발라낸 닭살을 잘 드는 뽀족한 칼을 이용해 잘게 다진다.  
 b. 검시관의 보고는 아침 3 시쯤 6 인치 길이의 가늘고 둥글며 뽀족한 칼로 살해되었다는 것이었다.

(8a)의 ‘뽀족한 칼’이 사용된 장면은 닭살을 다지는 것이다. 이럴 때 칼끝이 얼마나 뽀족하고 예리한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이 맥락에서 ‘뽀족한 칼’의 의미를 해석할 때 [선] 대신 [점]의 자질이 더 두드러진다. (8b)의 경우, ‘가늘고 둥글며 뽀족한 칼’의 기술은 칼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초점은 [기능] 대신 [모양]에 맞추어져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칼’류 프레임에는 ‘날카롭다, 예리하다’가 잘 쓰이고, ‘뽀족하다’가 잘 쓰이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3.1.2. ‘바늘’류 프레임

‘바늘’류 프레임은 매개변수 [점]과 [기능]이 작용하는 것이다. ‘바늘’류에 속하는 명사는 주로 ‘바늘, 침, 갈끝, 창, 화살촉, 활, 막대기, 몽둥이’ 등이 있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뽀족하다’는 모두 ‘바늘’류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9) a. 그런데 아들의 몸에는 이상한 얼룩들이 있었고 머리에는 날카로운 화살촉과도 같은 뿔이 나 있었다.  
 b. 바늘을 가치 있게 사용하면 따뜻한 옷을 재봉할 수 있지만, 가치 없이 휘두르면 도리어 날카로운 바늘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c. 단순히 검의 강도만 따지자면 그레인시아에서 대적할 것이 없을 황룡목검은 검이라기보다는 날카로운 몽둥이에 더 가깝게 보였다.

- (10) a. 공항에서 비행기가 솟아오를 때면 두통이 생기고 가슴을 예리한 바늘로 찔리는 듯 아픔을 느끼곤 했다.

- b. 뒷배는 6 마디이고 좁고 길며 뒤끝에 예리한 독침이 있다.
- c. 이와 관련된 쉬운 비유로 ‘나에게 다가오는 예리한 창끝을 보지 말고 그 창끝에 매달린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 (11) a. 아름다운 경치에 정신을 팔던 왕비는 그만 뽀족한 뜨개질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 b. 금속성의 뽀족한 칼끝이 내 옆구리를 찔렀다.
- c. 우리는 뽀족한 막대기를 하나씩 준비해서는 땅을 쿡쿡 찌르며 다녔다.

위의 (9-11)은 각각 ‘날카롭다, 예리하다, 뽀족하다’의 예를 보여준다. 특히 ‘뽀족하다’의 경우, ‘끝’과 결합된 양상이 많이 보인다. 앞에서 ‘뽀족하다’가 ‘비수’나 ‘채찍’과 같은 ‘칼’류 프레임에 잘 쓰이지 못한다고 했지만, ‘뽀족하다’가 ‘끝’과 같이 관형사절을 형성한 다음 ‘끝이 뽀족한’ 전체가 ‘비수’나 ‘채찍’을 수식할 수 있다. 다음 (12)는 이런 경우를 보여주는 예이다.

- (12) a. 술이 몇 순배 돌아 무송은 별안간 옷자락 밑에서 끝이 뽀족한 비수를 쑥 뽑아내더니 상 위에도 탁 쏜다.
- b. 거대한 전투용 도끼를 과시하듯 등에 멘 전사 뒤로, 검은 외투를 입고 끝이 뽀족한 채찍이 보이는 자가 따른다.

그러므로 ‘바늘’류 프레임에는 ‘날카롭다, 예리하다, 뽀족하다’가 모두 잘 쓰인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바늘’류 프레임과 ‘칼’류 프레임의 비교를 통해 ‘뽀족하다’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점]의 특징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3.1.3. ‘지붕’류 프레임

‘지붕’류 프레임은 [점]과 [모양]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프레임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명사로는 ‘지붕, 턱, 모자, 첨탑, 탑, 구두, 구두코, 귀, 돌, 코, 하이힐, 봉우리, 잎, 턱수염, 산봉우리, 뱃머리’ 등을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뽀족하다’만이 이 프레임에 잘 나타난다.

- (13) a. 그들은 흘쩍 몸을 날려 어느 막사의 뽀족한 지붕 위로 올라섰

- 다.
- b. 늙은 할멈은 위가 뽀족한 모자를 쓰더니, 빗자루에 올라탔습니다.
  - c. 기다란 손가락으로 뽀족한 턱을 만지면서 생각에 잠기는 모습.
  - d. 대략 1885년부터 19세기 말까지 유행한 뽀족한 구두코는 미국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13)은 ‘뽀족하다’가 끝이 점차 가늘어지는 물체를 수식하는 용례들이다. 이들은 모두 [점]과 [모양]의 매개변수로 분석될 수 있다.

이상으로 중심적인 세 가지 프레임을 분석함으로써 ‘날카롭다, 예리하다, 뽀족하다’가 차지하는 의미 영역을 알아내게 되었다. ‘날카롭다’와 ‘예리하다’의 의미 영역은 ‘칼’류와 ‘바늘’류를 포함하고, ‘뽀족하다’의 의미 영역은 ‘지붕’류와 ‘바늘’류를 포함한다. 아래에는 ‘발톱’류, ‘팔꿈치’류를 비롯한 경계 프레임을 분석하고자 한다.

#### 3.1.4. 기타 경계 프레임

‘발톱’류 프레임은 [기능]과 [점-선]의 매개변수로 이루어진 것이다. ‘발톱’류에 속하는 명사는 주로 ‘발톱, 손톱, 발, 이, 이빨, 송곳니, 이금니’ 등이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뽀족하다’는 이 프레임에 모두 쓰일 수 있다. 해당 예문은 다음 (14)와 같다.

- (14) a.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이 스위프티의 심장을 꿰뚫었다.  
 b. 날카로운 송곳니, 예리한 발톱으로 일격에 적의 목뼈를 부러뜨리는 강한 힘을 지녔다.  
 c. 사자의 뽀족한 발톱이 아폴로의 등을 향해 날아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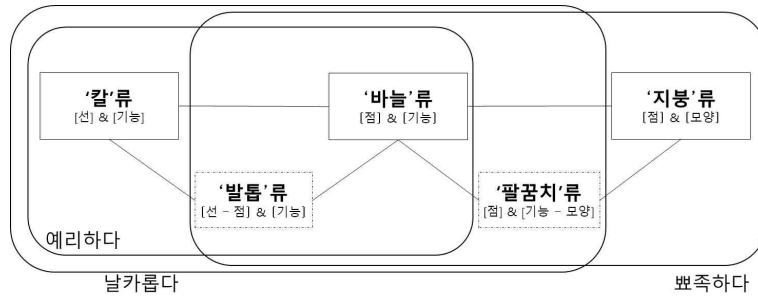
‘팔꿈치’류 프레임은 [점]과 [기능-모양]의 매개변수로 이루어진 것이다. ‘팔꿈치’류에 속하는 명사는 주로 ‘팔꿈치, 발꿈치, 어깨’와 같은 신체 부위이다. 이 가운데, ‘예리하다’는 이 부류의 명사들과 잘 결합하지 않는 듯하다. 연구 대상 말뭉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팔꿈치, 발꿈치, 어깨’와의 결합 양상은 모두 0회로 나타났다. 즉 ‘팔꿈치’류와의 결합은 ‘예리하다’의 주변적인 용법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날카롭다’와 ‘뽀족하다’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는 각각 ‘팔꿈치’와 결합할 때 [기능]과 [모양]의 자질이 드러나는 예들이다.

- (15) a. 곧이어 날카로운 팔꿈치가 폼비의 옆구리를 찔렀다. ([기능])
- b. 정문에는 빠드렁니에 뒤틀린 뿔과 털 복숭이 귀, 그리고 뼈만 앙상하고 날카로운 팔꿈치를 가진 사나운 외계 전사가 그려져 있었다. ([모양])
- c. 그러고는 옆으로 몸을 숙여 창끝처럼 뾰족한 팔꿈치로 실크라인의 갈비뼈를 찔렀다. ([기능])
- d. 그는 긴 발을 짧은 등자에 넣어서 무릎이 거의 안장의 앞머리까지 올라왔고, 그의 뾰족한 팔꿈치는 메뚜기처럼 튀어 나와 있었고, 채찍을 마치 왕이 지팡이를 들듯이 수직으로 들고 있었는데, 말이 뛰어갈 때마다 그의 양팔의 움직임은 새가 날개를 퍼덕거리는 것과 다를 게 없었다. ([모양])

(15a)와 (15c)에 쓰인 ‘날카로운 팔꿈치, 뾰족한 팔꿈치’는 모두 찌르는 행위를 하는 주체이므로 [기능]의 자질이 두드러진다. (15b)와 (15d)의 경우, 모두 사람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것이므로 [모양]의 자질이 주목받는다. (15)에 보이는 이러한 차이는 의미의 국면(facet)으로 설명해 볼 수도 있다. 즉, ‘팔꿈치’와 같은 명사는 [모양]과 [기능] 두 가지 국면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SHARP 형용사 기초 의미에 대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의미지도를 상정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한국어 SHARP 형용사 기초 의미의 의미지도

이러한 의미지도는 <그림 5>에서 보여준 빈도 조사표를 통해 수치적 근거도 찾을 수 있다. 우선, ‘뾰족하다’와만 결합한 단어는 ‘지봉, 모자, 타원형, 첨탑, 탑’ 등과 같이 ‘지봉’류에 해당하는 단어들이다. 이는 ‘뾰족

하다'가 배타적으로 차지한 의미 공간에 부합한다.

다음, '예리하다'와 결합 빈도가 가장 많은 앞 10위 단어는 '칼, 칼날, 낫, 칼끝, 무기, 검, 비수, 끝, 바늘, 흉기' 등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베거나 찌르는 도구들이다. 이는 '예리하다'가 차지하는 의미 공간이 [기능]이 작용하는 영역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날카롭다'와 결합 빈도가 가장 많은 앞 10위 단어는 '이빨, 칼, 발톱, 칼날, 송곳니, 비수, 가시, 창, 손톱, 부리' 등이다. '날카롭다'와 '예리하다'가 차지하는 공간은 유사하지만, '날카롭다'는 '예리하다'에 비해 '칼'류, '바늘'류 외에 '발톱'류 명사와 더 빈번히 결합한다. 수치적인 차이는 <그림 6>과 같은 의미지도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향후 확률적 의미지도 모형으로 보완해 봄 직하다.

### 3.2. 한국어 SHARP 어휘장의 파생 의미

선행 연구에서는 도구 사용 프레임에서 기원한 파생 의미에 대해 분석했다. 한국어의 '날카롭다', '예리하다'는 이 프레임에 부합되었으나, '뽀족하다'의 핵심적인 의미 영역은 [모양]에 속하기 때문에 따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는 도구 사용 프레임과 '지붕'류 프레임으로 나눠 파생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 3.2.1. 도구 사용 프레임

우선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목록에 따라 각각 (도구를 사용하는) '주체의 각도', '객체의 각도', 그리고 '시각 수신자의 각도'로 분석해 본다. 다음 <표 2>는 주체의 각도에서 분석된 파생 의미이다.

<표 2> 한국어 SHARP 어휘장의 파생 의미(주체의 각도)

의미	용례
1. (눈, 귀, 시각, 청각, 기억력) 좋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a. 그는 아마 가수였기에 <u>귀가 날카로워진</u> 것이겠지. b. 각 과목 선생님들의 다양한 발자국 소리를 파악하는 <u>예리한 청각</u> 이다.
2. (안목) 분석 능력이 빠르고 뛰어나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a. <u>예리하고 날카로운 분석력</u> 과 재치가 있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u>깔끔하다</u> . b. 미로의 도처에 <u>날카로운 지적 통찰</u> 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3. (머리) 민첩하고, 예민하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a. 법관은 머리가 날카롭기보다는 따스한 가슴을 가져야 한다. b. 그 여자는 놀랍다고 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u>머리가 예리한</u> 젊은 여자였어요.
4. (언어) 정곡을 찌르듯이 정확하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a. 여기에 대해 니체는 날카로운 지적을 가한다. b. 날카로운 풍자와 예리한 비판 때문일까?
5. (사람) 영리하다. 말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a. 그 분은 문화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b. 에라스무스가 수십 년간이나 교회에 대한 예리한 비판가로서 활동했다.

<표 2>에서 보듯 ‘날카롭다’와 ‘예리하다’는 ‘주체의 각도’에서 분석된 다섯 가지 의미에 모두 쓰일 수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의미에도 내재적인 질서가 존재한다. 이들의 공통된 의미 속성은 도구를 사용하는 주체의 느낌에서 기원한 ‘빠르고 정확하다는 느낌’이다. 적용 영역은 감각적으로 비교적 직접적인 시각, 청각으로부터 판단, 인식에 이르기까지 보다 추상적인 영역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과정은 은유의 기제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5번 의미와 같이 ‘사람’을 수식하는 것에는 환유의 기제가 작동된다. 즉, ‘날카로운 판단력’으로부터 그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을 환유적으로 도출해 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객체의 각도’에서 형성된 파생 의미를 알아보려고 한다. 각 의미와 용례는 <표 3>과 같이 정리된다. 용례 칸에 ‘-----’는 한국어에서 해당 용례가 확인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3> 한국어 SHARP 어휘장의 파생 의미(‘객체의 각도’)

의미	용례
1. (사람, 성격) 성미가 거칠다.	날카롭다 부인은 몹시 까다롭고 날카로운 성미더군요.
2. (언행) 우악스럽다.	날카롭다 창이나 칼처럼 날카로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히는 무기가 됩니다.
3. (눈빛) 매섭고 적대적이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a. 예리한 눈초리로 승객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계류장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군인들이 내내 신경에 거슬렸다. b. 비프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응시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4. (소리, 빛, 냄새) 감각에 거슬릴 만큼 강하다.	<p>날카롭다, 예리하다</p> <p>a. 휘두르는 나뭇가지에서는 공기를 찢는 <u>날카로운 소리</u>가 울렸다.</p> <p>b. 눈알을 찌르는 것처럼 <u>날카로운 빛</u>이었다.</p> <p>c. 젖어서 늘어진 공기 속에서 젊은 여자의 화장품 <u>냄새</u>는 <u>찌르듯이 날카로웠다</u>.</p> <p>d. 순간 칼날 같은 <u>예리한 소리</u>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p> <p>e. 그때, 암흑을 자르는 것 같은 <u>예리한 빛</u>이 <u>획</u> 하고 나쓰에의 손을 비추었다.</p>
5. (바람) 매섭다.	<p>날카롭다, 예리하다</p> <p>a. 헬멧을 쓰지 않은 탓에 <u>날카로운 바람</u>이 얼굴을 때렸다.</p> <p>b. 사정없이 꽃히는 <u>예리한 바람</u> 때문에 얼굴이 아팠다.</p>
6. (추위) 정도가 깊다 / 강도가 높다.	<p>날카롭다, 예리하다</p> <p>a. 비록 코트 외엔 걸친 게 없었지만 4월 밤의 <u>날카로운 추위</u>도 느낄 수 없었다.</p> <p>b. 소슬한 바람이 이제는 제법 <u>예리한 추위</u>로 변해서 살점을 파고들었다.</p>
7. (아픔) 갑작스럽고 정도가 심하다.	<p>날카롭다, 예리하다</p> <p>a. 채연은 생전 처음 느끼는 <u>날카로운 아픔</u>에 숨을 멈추고 눈을 찌푸렸다.</p> <p>b. 그가 곁에 없는 고통보다 더 <u>육중하고 날카로운 고통</u>이 그녀를 강타하기 시작하였다.</p> <p>c. 오웬스 부자를 생각하니 아만다의 마음에 <u>날카로운 분노</u>가 치솟았다.</p> <p>d. 고통이 <u>예리한 통증</u> 수준으로 찾아들었다.</p>
8. (질병) 엄중하다. 급성이다.	-----
9. (느낌) 강렬하다.	<p>날카롭다</p> <p>a. <u>날카로운 첫 키스</u>의 추억은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는다.</p> <p>b. 내 속에서 <u>날카로운 기억</u> 하나가 발돋움을 하며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p>
10. (인간관계, 충돌, 논쟁, 전투) 과격하다.	<p>침예하다</p> <p>a. 한 치의 양보도 없는 <u>침예한 대립</u>의 양상이 벌어졌다.</p> <p>b. 등록금은 대학인에게는 아주 <u>침예한 이해</u> 관계이고, 이에 대한 불만 역시 높다.</p>
11. (문제) 시급하다.	-----

<표 3>에서 알 수 있듯 ‘객체의 각도’를 기원 영역으로 한 파생 의미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는다. 파생 의미의 형성 기제는

기본적으로 은유에 의한다. 의미의 원천(source) 영역을 날카로운 칼에 쪼린 느낌이라고 하면, 목표(target) 영역은 시각, 청각, 후각, 통각, 추상적인 감각 등 다른 영역의 느낌이다.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의미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날카롭다’에 대한 5번째 의미 항목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지나치게 민감하다’이다. 이는 흔히, ‘신경이 날카롭다’와 같이 쓰인다. 이때 ‘날카롭다’는 ‘예민하다, 민감하다’의 유의어로 볼 수 있다.

또한, ‘날카롭다’가 ‘침묵’을 수식하는 흥미로운 표현이 발견된다.

(16)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쳐다보았다. 날카로운 침묵이 2~3 분 가량 흘렀다.

‘날카로운 침묵’을 해석해 보자면 ‘분위기가 칼처럼 배듯이 침묵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날카로운 쇠소리’와 같이 청각적인 느낌을 수식할 때는 높은 소리로 인하여 귀가 거슬린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침묵’은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은 것이지만, 청각적으로 사람에게 불안을 주는 효과도 있다.

이처럼 ‘날카로운 침묵’이라는 표현 역시 원천 영역을 ‘객체의 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표 4> 한국어 SHARP 어휘장의 파생 의미(시각 수신자의 각도)

의미	용례
1. (동작) 빠르고 갑작스럽다.	-----
2. (달리기, 리듬) 빠르다.	-----
3. (회전하는 행위) 급하다.	-----
4. (산비탈) 가파르다.	오후가 되자 날카로운 압벽이 우리를 막아섰다.
5. (변화) 빠르고 갑작스럽다.	-----5)
6. (선, 경계, 사진) 뚜렷하고 분명하다.	그의 작품은 선이 매우 날카롭다.
7. (결론, 해석, 명령) 명료하다.	-----

<표 4>는 ‘시각 수신자의 각도’에서 형성된 파생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어 SHARP 형용사는 주로 시각적으로 [선] 관련 의미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가늘고 경계가 명확한 날은 원천 영역이고, 은유를 통해 턱선, 콧대, 윤곽, 그림자, 능선, 암벽 등 선형 물체로 확장한다. 다음 (16)은 이 의미에 부합하는 다른 예문들이다.

- (17) a. 얼굴이 짧은 역삼각형 얼굴에는 타원형 안경을 착용하면 날카로운 턱선이 부드러워 보인다.
- b. 산들은 날카로운 윤곽을 잃고 완만한 비탈의 구릉으로 변했다.
- c. 곧고 날카로운 콧대는 지적으로 보였다.
- d. 날카로운 그림자를 덧씌운 에보크네일이 공간을 찢어놓을 듯한 기세로 날아들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선이 가늘고 힘 있다’로 기술하고,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의 경우 ‘선’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은 없지만, 코, 콧대, 콧날 등 명사 부류에 대해 ‘(코가 끝이) 뾰족하고 살이 없다’ 정도의 풀이가 보인다. 이러한 의미는 기본적으로 ‘날카롭다’에서 발견되는 것이지만 말뚝치 속 ‘예리하다’에서도 높은 빈도는 아니지만 일부 용례가 관찰된다.

- (18) a. 혐의 용식 진전에 따라 코크피트는 부드러운 원정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석회암의 성질에 따라 예리한 능선을 나타내기도 한다.
- b. 나는 유독 내가 좋아하는 그녀의 예리한 턱선을 보면서, 그녀의 말을 끈질기게 기다렸다.
- c. 이마 가장자리에서 미간으로 흡사 칼로 그은 듯이 예리한 선으로 보이던 햇불너머로 선명히 봤던 그 적색선이야말로 상법에서 익혔던 죽음의 색이었다.

### 3.2.2. ‘지붕’류 프레임

아래에는 ‘뾰족하다’의 파생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뾰족하다’에 대한 사전 기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말뚝치에서 ‘날카로운 변화’는 7회 출현했다. 하지만 이들은 외국 텍스트를 번역할 때 드러나는 번역투나 특정 상황 또는 맥락에 쓰인 비유적 표현으로 묶일 수 있다. 따라서 ‘(변화) 빠르고 갑작스럽다’라는 의미는 ‘날카롭다’의 고정적인 의향(sense)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lt;표 5&gt; ‘뽀족하다’의 사전 기술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
1. 물체의 끝이 점차 가늘어져서 날카롭다.	1. (물체가) 끝이 차차 가늘어져 날카롭다.	1. (물체의 끝이) 날카롭다.
2. (주로 ‘뽀족한’ 꼴로 쓰여) 계획이나 생각, 성능 따위가 신통하다.	2. (주로 ‘뽀족하게’, ‘뽀족한’의 꼴로 쓰여) (생각이나 계획이) 별나게 신통하다.	2. [‘뽀족한’의 꼴로 쓰여] (생각이나 방법 따위가) 신통하다.
		3. (이렇다 할 만큼) 두드러지게 특별하다.
		4. (성격이나 태도가) 등글지 않고 모나다.

‘뽀족하다’의 사전적 기술을 보면, 첫 번째 뜻풀이는 기초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다. 파생 의미에 있어서 세 가지 사전은 모두 ‘(생각이나 방법 따위가) 신통하다’는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말뚝치에서도 잘 관찰된다. ‘뽀족한 수, 뽀족한 방법, 뽀족한 대책, 뽀족한 대안, 뽀족한 해결책, 뽀족한 계획’을 비롯한 언어 관계는 ‘뽀족하다’에서만 발견되고 다른 SHARP 형용사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19) a. 상대가 갈대형의 사람인지를 분간하려면 평소에 자세히 관찰하는 것 외에는 뽀족한 수가 없다.
- b. 도대체 어떻게 되어 그 사람의 원한이나 미움을 사게 되었는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지만 뽀족한 이유를 찾아낼 수 없다.
- c. 부장들과 함께 군막에 둘러앉아 작전을 짜보았으나 뽀족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19)의 ‘뽀족하다’는 대개 ‘절묘하다, 좋다’의 정도로 바꾸어 쓸 수 있다. 그런데 물체의 끝을 표현하는 ‘뽀족하다’는 어떻게 이 의미로 확장된 것일까? ‘뽀족한 계획’을 하나의 예로 들면, 특정 문제에 직면하여 핵심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해결책이 곧 ‘뽀족한 계획’인 것이다. 이는 추상적인 점처럼 문제의 정곡을 찌른 것에 비견된다. 이처럼 ‘뽀족하다’의 파생 의미는 은유의 기제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에는 다른 사전에 비해 두 가지 의미가 추가로 기술되어 있다. 우선 ‘(이렇다 할 만큼) 두드러지게 특별하다’라는 뜻풀이

를 보자.

- (20) a. 영숙 씨와 정든 것을 생각하면 그만둘 수도 없고, 결혼을 하자니 앞날에 뽀족한 일도 없겠고...
- b. 하지만 그렇다고 뽀족하게 갈 만한 곳도 없었다.
- c. 유감스럽게도, 세상에는 신간 소설에다 철자상의 오류를 찾아 적는 일 외에 뽀족하게 할 일이 없는 백수나 현학자들이 있다.

(20)에 보인 바와 같이, ‘특별하다’의 뜻으로 쓰인 ‘뽀족하다’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맥락에 나타난다. 부사어로 쓰일 때는 대개 ‘그다지’와 비슷하다. 이 의미의 파생 경로를 생각해 보면, 첨형 물체에 보인 모양으로부터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뽀족한 방법’과 달리 ‘뽀족한 일’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성격이나 태도가) 둥글지 않고 모나다’의 의미를 살펴보자. 이 의미는 ‘날카롭다’의 파생 의미에서도 확인된다. 끝이 뽀족한 물체의 시각적인 특징이 사람의 성격에 투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모나다’도 사람의 성격이나 성미에 쓰인다. ‘뽀족하다, 날카롭다, 모나다’는 모두 둥글지 않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의미 확장 경로를 보이는 것이다.

한국어 SHARP 형용사의 파생 의미에 대한 이상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날카롭다, 예리하다, 첨예하다’의 파생 의미는 기본적으로 도구 사용 프레임에 의한 것이고, ‘뽀족하다’의 파생 의미는 ‘지붕’류 프레임에 의한 것이다.

도구 사용 프레임에 있어서 ‘날카롭다’가 차지하는 의미 영역의 폭이 가장 넓다. 그에 비해 ‘예리하다’의 파생 의미는 ‘날카롭다’의 부분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첨예하다’는 ‘상황이나 사태 따위가 날카롭고 격하다’는 하나의 파생 의미로만 쓰이는데 ‘날카롭다, 예리하다’의 의미 공간과 겹치지 않는다.

‘지붕’류 프레임에 있어서는 ‘뽀족하다’가 주된 어휘이다. 이는 ‘수, 계책, 방안, 방법’과 같은 명사와 결합하여 ‘신통하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또한 ‘일’과 같은 명사와 결합하여 ‘특별하다’는 의미를 지닌 채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인다. 그 외에 ‘날카롭다’와 유사하게 사람의 성격이 까다롭다는 의미로도 나타난다.

#### 4. 중국어 SHARP 어휘장

중국어 SHARP 형용사에 대한 분석은 李亮(2019)에서 충분히 많이 이루어졌다. 본 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재검토하고, 말뭉치 고찰 및 방언 자료를 추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어 SHARP 어휘장의 전반적인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중국어 SHARP 어휘 체계는 비교적 복잡하다. 여기에는 단음절 단어 ‘尖’, ‘快’와 쌍음절 단어 ‘锋利, 锐利, 尖利, 尖锐’가 포함된다. 그 이유는 현대 중국어의 어휘 형성 과정과 관련된다. ‘利, 锐’는 고대 중국어에서 모두 단독으로 SHARP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현대 중국어 보통화에서는 온전한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하고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쌍음절 단어를 만들어야 한다.<sup>6)</sup> ‘利’를 축으로 이루어진 단어로는 ‘锋利, 锐利, 尖利, 犀利’ 등이 있고, ‘锐’를 축으로 이루어진 단어로는 ‘锐利, 尖锐, 敏锐’ 등이 있다. 이러한 쌍음절 안에서 다시 기초 의미와 파생 의미를 분화한 양상도 보인다. 가령, ‘犀利’는 기초 의미로 전혀 쓰이지 못하고, ‘犀利的批判’처럼 ‘날카로운 비판’의 뜻으로만 쓰인다.

‘锐利, 尖利, 尖锐’도 기초 의미보다 파생 의미가 더 많이 쓰이는 특징이 있다. 이런 경향성을 보여주기 위해 BCC 말뭉치에서 ‘锐利的n, 尖利的n, 尖锐的n’와 같은 검색어로 후행 명사 목록을 추출했다. ‘锐利, 尖利, 尖锐’가 수식하는 명사 가운데 앞 10위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표 6> 기초 의미로 쓰인 ‘锐利, 尖利, 尖锐’가 수식하는 명사 목록

	锐利	尖利	尖锐
1	目光(눈빛)	声音(소리)	声音(소리)
2	眼睛(눈)	牙齿(이)	问题(문제)
3	眼神(눈빛)	叫声(외침)	叫声(외침)
4	眼光(눈빛, 안목)	瓜子(밭)	痛楚(고통)
5	眼(눈)	指甲(손톱/발톱)	笑声(웃음소리)
6	刀(칼)	笑声(웃음소리)	社会矛盾 (사회갈등)
7	视线(시선)	口哨(휘파람 소리)	目光(눈빛)
8	武器(무기)	东西(물건)	噪音(목소리)
9	光芒(빛)	目光(눈빛)	东西(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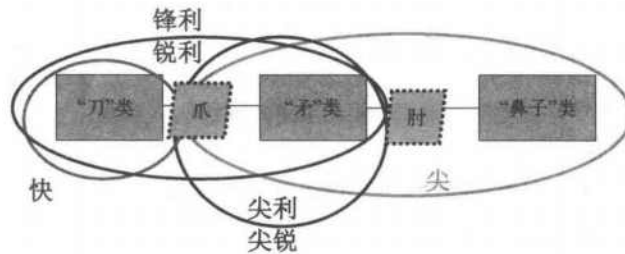
6) 粤방언을 비롯한 일부 방언에서는 ‘利’가 단독으로 ‘날카롭다’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10	思想(사상)	石头(돌)	刹车声(제동 소리)
----	--------	-------	------------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锐利, 尖利, 尖锐’가 기초 의미로 쓰이는 하지만 ‘눈빛, 소리’ 등 파생 의미에 더 많이 쓰인다. 특히 이러한 단어들은 ‘칼’류, ‘바늘’류 물체를 수식할 때 문어투가 더 많이 드러난다. 구어에서는 일반적으로 ‘锋利, 尖, 快’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아래에는 기초 의미와 파생 의미의 순으로 중국어 SHARP 형용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4.1. 중국어 SHARP 형용사의 기초 의미

李亮(2019: 79)에서는 중국어 SHARP 형용사의 의미지도를 다음과 같이 상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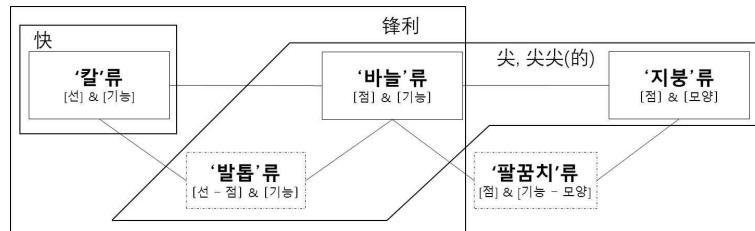
<그림 7> 李亮(2019)가 상정한 중국어 SHARP 형용사의 의미지도

본고는 이러한 분석 방안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두 가지 고려 사항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팔꿈치’류는 중국어에서 아주 어색한 프레임으로 여겨지므로 이 의미가 의미지도에 포함되면 안 된다. 실제로 말뚝치에서도 이러한 용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주변 중국어 모어 화자에 대해 ‘肩膀(어깨), 胳膊肘(팔꿈치), 膝盖(무릎)’ 등 단어가 ‘尖’과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모두 쓰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말뚝치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신체 부위 명사가 ‘尖’과 같이 쓰일 수 있는 것은 ‘下巴(턱), 耳朵(귀), 鼻子(코), 嘴(입), 嘴巴(입), 头(머리), 脸(얼굴), 瓜子脸(오이씨같이 가름한 얼굴)’ 등이다. 이들 명사는 모두 [모양]의 매개변수로만 나타나고, [기능]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점]과 [모양-기능]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팔꿈치’류 프레임은 중국어 SHARP 형용사가 나타날 수 있는 프레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둘째, 중국어의 SHARP 어휘장을 조사할 때 중첩형 ‘尖尖的(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단음절 형용사 ‘尖’는 분포상 제약적이다. 관형어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대체로 제한적이거나 세 가지 방책이 있다. ‘很’과 결합하여 ‘很尖的’로 쓰이는 것, ‘尖刀(뾰족한 칼)’와 같이 단어 구성 요소에 국한되는 것, 그리고 ‘尖鼻子(뾰족한 코)’와 같이 ‘의’ 없이 일부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자유롭지 못한 특징은 중첩형 형용사 ‘尖尖的(的)’와 대조적이다. ‘尖尖的(的)’은 문장에서 서술어, 관형어 등 성분으로 쓰일 때는 자유롭다. 따라서 중국어 SHARP 어휘장에는 ‘尖尖的(的)’도 함께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국어 SHARP 어휘장의 의미지도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본다. 시각적인 편의를 고려하여 구어에서 기초 의미로 잘 쓰이지 않는 ‘锐利, 尖利, 尖锐’를 의미지도에서 제외하고, ‘快, 锋利, 尖, 尖尖的(的)’만 표상하고자 한다.



<그림 8> 중국어 주요 SHARP 형용사 기초 의미의 의미지도

중국어 SHARP 어휘장의 기초 의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快’는 단독으로 ‘칼’류 프레임만 차지한다. ‘快’는 기본적으로 ‘빠르다’의 뜻으로 쓰이는데 이로부터 ‘날카롭다’의 의미가 형성된다.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한된 의미 영역에만 나타난다. 둘째, ‘尖’는 전형적으로 점상 물체를 수식하는 단어이다. 이는 ‘尖’가 기원적으로 물체의 끝자리를 뜻하는 명사였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셋째, ‘锋利’의 의미 공간은 주로 [기능]이 작용하는 영역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날카로운 도구를 수식할 때 쓰인다.

#### 4.2. 중국어 SHARP 어휘장의 파생 의미

이어서 중국어 SHARP 형용사의 파생 의미를 살펴본다. ‘快’는 기원적으로 SHARP 의미장에 속하는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파생 의미의 형성도 SHARP 의미와 무관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아래 도구 사용 프레임과 ‘지붕’류 프레임을 각각 살펴보도록 한다.

4.2.1. 도구 사용 프레임

한국어 SHARP 형용사의 파생 의미가 차지하는 의미 영역은 중국어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앞서 분석된 결과를 대조항으로 삼아 중국어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하는 의미가 SHARP 형용사로 표현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시를 제시하고, 만약 그 의미가 SHARP와 연관 어휘장에 속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면 ‘(#)’표로 표시한다.

우선 ‘주체의 각도’로 분석될 수 있는 파생 의미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한·중 SHARP 형용사의 파생 의미(주체의 각도)

의미	한국어 용례	중국어 용례
1. (눈, 귀, 시각, 청각, 기억력) 좋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a. 귀가 날카롭다 b. 예리한 청각	尖, 灵敏(#) a. 耳朵很尖 b. 灵敏的听觉
2. (안목) 분석 능력이 빠르고 뛰어나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a. 예리한 통찰력 b. 날카로운 판단	敏锐(#), 犀利(#) a. 敏锐的洞察力 b. 犀利的判断
3. (머리) 민첩하고, 예민하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머리가 날카롭다	(방언형이 있음. 아래 참조)
4. (언어) 정곡을 찌르듯이 정확하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날카로운 비판	尖锐, 犀利(#) a. 尖锐的批评 b. 犀利的批判
5. (사람) 영리하다. 말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날카로운 비평가	犀利(#) 犀利的批评家

<표 7>에서 확인되듯 SHARP 의미장의 기초 의미로 쓰이지 못하는 단어들이 많이 보인다. 시각, 청각 등 감각 능력이 좋다는 의미로 쓰인 ‘尖’은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일 수 있지만, 관형어로 쓰일 때는 문법적이지 않다(예: \*尖的听觉). 이때에는 灵敏(‘예민하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한편, 추상적으로 지각 능력을 표현하는 의미는 주로 ‘锐’, ‘利’를 축으로 형성된 쌍음절 단어가 담당한다. 이처럼 감지 능력의 영역에 따라 사용되는 어휘가 달라진다.

&lt;표 8&gt; 한·중 SHARP 형용사의 파생 의미(객체의 각도)

의미	한국어 용례	중국어 용례
1. (사람, 성격) 성미가 거칠다.	날카롭다 날카로운 성미	-----
2. (언행) 우악스럽다.	날카롭다 날카로운 말	尖锐 他讲话很尖锐
3. (눈빛) 매섭고 적대적이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날카로운 눈빛	锐利, 锋利, 尖利, 尖锐, 犀利 {锐利, 锋利, 尖利, 尖锐, 犀利}的 目光
4. (소리, 빛, 냄새) 감각에 거슬릴 만큼 강하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a. 날카로운 소리 b. 날카로운 빛 c. 날카로운 냄새	소리: 尖, 尖尖(的), 尖锐, 尖利, 刺耳(#) a. {尖利, 尖锐, 尖尖的}声音 b. 声音尖 c. 刺耳的声音 빛: 刺眼(#) 刺眼的光线 냄새: 刺鼻(#) 刺鼻的味道
5. (바람) 매섭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바람이 날카롭다	刺骨(#) 刺骨的寒风
6. (추위) 정도가 깊다/강도가 높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날카로운 추위	刺骨(#) 刺骨的寒意
7. (아픔) 갑작스럽고 정도가 심하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날카로운 아픔	尖锐, 刺骨(#) a. 尖锐的刺痛 b. 刺骨的痛
8. (질병) 엄중하다. 급성이다.	-----	-----
9. (느낌) 강렬하다.	날카롭다 날카로운 추억	刻骨铭心(#)(각골난망) 刻骨铭心的记忆
10. (인간관계, 충돌, 논쟁, 전투) 격렬하다.	침예하다 침예한 갈등	尖锐 尖锐的矛盾
11. (문제 등) 시급하다.	-----	-----

위 표는 ‘객체의 각도’에서 유연성을 찾을 수 있는 파생 의미 목록이다. 각 의미의 어휘 수량을 보면, ‘눈빛’과 ‘소리’를 묘사하는 것은 중국어 SHARP 형용사의 주된 영역이다. 위 표에서 확인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직접적으로 SHARP 형용사에 대응시키기 어려운 의미 영역에 ‘刺X’류 단어가 쓰인 점이다. ‘刺’는 ‘찌르다’의 의미이고, 뒤에 붙이는 X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명사이다. ‘刺鼻’를 하나의 예로 들자면, 이는 ‘코를 찌르다’는 동사적 결합으로 ‘귀에 거슬리다’ 정도의 형용사로 쓰인다. 따라서 ‘날카로운 냄새’는 중국어로 ‘刺鼻的味道’로 말한다. 이러한 조어론적 방법은 원래 SHARP 형용사만으로 나타낼 수 없는 의미 영역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刺骨(뼈를 찌르다)’는 아픔, 바람, 추위 등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이런 ‘刺X’류 단어가 쓰인다는 현상은 SHARP 어휘장이 형용사뿐 아니라, 연관된 동사와도 연관을 맺음을 보여준다. 인간은 ‘날카롭다’라는 단어를 파악할 때 단지 물리 속성의 영역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도 함께 인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각 수신자의 각도’로 설명될 수 있는 경우이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열거한 의미는 모두 중국어 SHARP 형용사에 의해 표현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한다. 중국어 자체에는 이런 의미가 없지만, 최근에는 영어의 영향을 받아 그림 편집 작업에 ‘sharpen’이라는 말이 ‘锐化’로 번역되어 쓰이기도 한다.

#### 4.2.2. ‘지붕’류 프레임

‘지붕’류 프레임은 ‘尖’이 전형적으로 쓰이는 의미 영역이다. 앞서 도구 사용 프레임에 몇 가지 용법이 언급되었지만, 중국어의 여러 방언에서 기존의 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許宝華, 宮田一郎(編)(2020: 1642)에 따르면, ‘尖’은 ‘영리하다, 똑똑하다’ 등의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한편, ‘인색하다, 교활하다, 이기적이다’ 등의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

- (21) a. 의미: 聪明, 伶俐, 机灵, 精明(영리하다, 똑똑하다)  
 방언: 東北官話, 北京官話, 中原官話, 西南官話  
 예문: 这个娃儿尖得很. (貴州, 赫章)  
 이 아이는 무척 영리해.
- b. 의미: 自私, 爱占人便宜(이기적이다)  
 방언: 東北官話, 冀魯官話, 中原官話, 蘭銀官話, 江淮官話, 西南官話, 閩語  
 예문: 这个人尖咧, 从来不吃亏. (江蘇, 淮陰)  
 이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

안 하지.

c. 의미: 狡詐, 油滑(교활하다)

방언: 東北官話, 中原官話, 西南官話

예문: 这个人待人处世很尖. (黑龍江, 哈尔滨)

이 사람의 처세술은 교활하기 그지없다.

d. 의미: 吝嗇, 小气(인색하다)

방언: 東北官話, 中原官話, 晉語, 西南官話, 吳語

예문: 不要这么尖撒, 就给我十块钱也不行? (湖北, 武漢)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마. 10 위안도 못 줘?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는 앞서 ‘시각, 청각, 후각 등에 민감하다’라는 의미로부터 도출해 볼 수 있다. 즉, 민감한 대상을 돈이나 자신의 이익에 전이하면, 돈을 아끼고 인색하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형용사로서의 ‘尖’ 외에 형태소로 쓰인 ‘尖’은 더 다양한 의미 확장을 보인다. ‘尖’에는 ‘물체의 가장 끝자리’를 뜻하는 명사적 용법도 있기 때문에 현대 중국어에서 ‘TOP’의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 ‘尖子生(최우수 학생)’, ‘尖端(첨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 5. 한·중 SHARP 어휘장의 대조 분석

여기서는 한국어, 중국어 SHARP 어휘장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SHARP 어휘장에서 확인되는 양상들을 대조해 보기로 한다. 우선 각 어휘장에 쓰이는 단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2) a. 한국어 SHARP 어휘장

기초 의미: 날카롭다, 뾰족하다, 예리하다, (침예하다).

파생 의미: 날카롭다, 뾰족하다, 예리하다, 침예하다.

### b. 중국어 SHARP 어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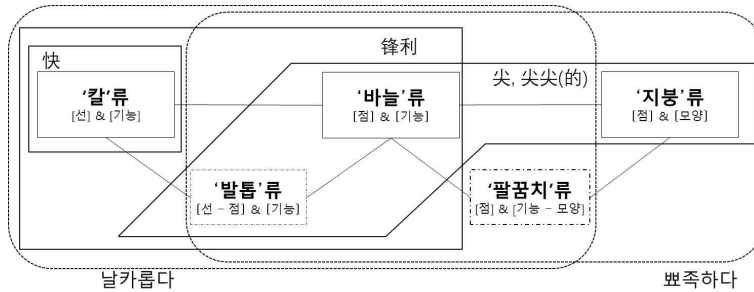
기초 의미: 快, 锋利, 尖, 尖尖(的), (尖利, 锐利, 尖锐).

파생 의미: 锋利, 尖, 尖尖(的), 尖利, 锐利, 尖锐, (犀利 등).

우선 어휘장의 수량을 비교해 보면, 중국어 SHARP 어휘장의 전체 수량은 한국어보다 많다. 그런데 기초 의미와 파생 의미 간의 사용 경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초 의미에 있어 구어에서 많이 사용된 경우를 고려하면, 두 언어 간에 수치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 파생 의미에

있어 중국어 단어의 수가 더 많은 것은 세부적인 의미를 독립된 단어로 어휘화하는 중국어의 특성과 연관된다.

아래에는 한·중 SHARP 형용사의 의미 분할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휘장의 체계성을 반영하는 단어만 선정하여 의미지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한·중 주요 SHARP 형용사 기초 의미의 의미지도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어 SHARP 형용사가 차지하는 영역은 중국어보다 넓다. 중국어 SHARP 형용사는 ‘팔꿈치’류 프레임에 사용되지 못하는 반면, 한국어 SHARP 형용사는 이 프레임에 나타날 수 있다. 이 프레임만 제외하면, 중국어 ‘尖, 尖尖(的)’는 ‘뾰족하다’와 유사한 의미 영역을 차지하고, ‘锋利’는 ‘날카롭다’와 유사한 의미 영역을 차지한다. 한편, 중국어의 ‘快’는 ‘칼’류 프레임에만 쓰이는 형용사이다. ‘快’가 다른 의미 영역에서 기원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로 한국어에서도 유사한 예시로 ‘시퍼런 칼’에 쓰인 ‘시퍼렇다’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단어는 색깔의 의미 영역으로부터 SHARP에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SHARP 형용사의 파생 의미에 대해 대조 분석을 해 본다. 거시적으로는 도구 사용 프레임과 ‘지붕’류 프레임으로 나누어 한·중 SHARP 형용사의 파생 의미를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어는 시각 수신자의 각도’로 분류된 의미가 발견되지 않고, 한국어는 ‘날카로운 선’과 같은 쓰임이 발견된다. 한편, 미시적으로 같은 기초 의미를 지닌 두 언어의 단어를 비교하면, 더 선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锋利’는 기초 의미에 있어 ‘날카롭다’와 유사한 의미 공간에 쓰이지만, 파생 의미에 있어 ‘锋利’는 오직 ‘눈빛, 시선’ 등 단어를 수식할 때만 쓰이는 것에 비해 ‘날카롭다’는 더 다양한 의미로 나타날 수 있다.

한·중 SHARP 어휘장에는 또 하나의 특이한 존재가 있는데 곧 한국어의 한자어이다. 한국어의 한자어는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 중국어의 용법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처럼 두 언어에 사용되는 기원이 같은 단어를 흔히 가짜 친구(false friend)라 한다. 한·중 SHARP 어휘장의 ‘銳利하다’와 ‘銳利’, ‘尖銳하다’와 ‘尖銳’가 여기에 속한다.

‘예리하다’와 ‘銳利’를 대조해 보자. 기초 의미로 쓰일 때, 두 단어가 차지하는 의미 공간은 별 차이가 없다. 모두 ‘칼’류, ‘바늘’류 프레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파생 의미에 있어서 중국어의 ‘銳利’는 주로 ‘눈빛’류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반면, 한국어의 ‘예리하다’는 ‘시각, 청각’을 비롯한 감각류, ‘판단, 통찰력’을 비롯한 지적 능력류, ‘눈빛’류, ‘바람’류, ‘추위’류, ‘아픔’류 등 다양한 명사 부류와 널리 결합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예리하다’는 중국어 SHARP 형용사가 쓰일 수 없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예리한 선’, ‘예리한 윤곽’과 같이 [선]의 특징에서 확장된 의미들이 그것이다. 이런 용법을 번역할 때 중국어 SHARP 어휘장에는 빈칸이 생기므로 다른 말로 옮겨야 한다. 이 현상은 ‘예리하다’가 한국어 어휘부에 정착된 후, 의미 변화의 과정은 중국어와 더 이상 관계가 없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예리하다’의 파생 의미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날카롭다’의 부분 집합이라는 점을 보면, ‘예리하다’의 다양한 파생 의미는 ‘날카롭다’의 영향을 받아 의미 전염(contagion)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 6. 결론

본 연구는 어휘유형론의 관점에서 한·중 SHARP 형용사에 대한 개별적인 고찰을 토대로, 한·중 SHARP 어휘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 SHARP 어휘장에 포함된 단어의 절대적인 양은 중국어에 비해 낮지만, 어휘가 차지하고 있는 의미 공간은 중국어보다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초 의미에 있어서는 한·중 두 언어에서 유사한 어휘화 전략이 존재한다. ‘날카롭다’와 ‘鋒利’는 비슷하게 ‘칼’류, ‘바늘’류 프레임에 쓰이고, ‘뽕족하다’와 ‘尖, 尖尖(的)’은 ‘지붕’류, ‘바늘’류 프레임에 유사하게 쓰인다. <그림 9>에 제시된 의미지도는 그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파생 의미에 있어서는 중국어가 세부적인 개념을 독립된 단어로 어휘화한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구별되는 한편, 한국어는 중국어에 비해 SHARP 어휘장에서 파생 의미가 차지하는 공간이 더 넓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결과는 <표 7>과 <표 8> 세부적인 의미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 과정에서는 기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뿔족하다’, ‘尖’의 파생 의미 양상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는 향후 ‘지방’류 프레임에서 기원한 SHARP 형용사를 고찰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고는 주로 MLexT의 연구 방법론에 따라 말뭉치 용례, 사전 정보를 대상으로 질적 분석의 방식을 취했다. 말뭉치의 빈도수를 부분적으로 참고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양적 분석을 반영하지는 못했다. SHARP 어휘장에 속하는 유의어들의 용법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산언어학, 코퍼스 언어학적 접근법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연계한 연구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 참고 문헌

### <논저>

Rakhilina, Ekaterina & Reznikova, Tatiana (2016), “A frame-based methodology for lexical typology”, in Päivi, Juvonen & Maria Koptjevskaja-Tamm (eds.), *The lexical typology of semantic shifts*, Berlin & Boston: Walter de Gruyter GmbH, 95-129.

Ryzhova, Daria & Obiedkov, Sergei (2017), “Formal concept lattices as semantic maps”. *Proceedings of the Workshop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and Language Science*, 78-87.

李亮(Kholkina Liliya)(2019), 汉语物理属性形容词研究[한어 물리 속성 형용사 연구], 上海: 中西书局.

### <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8),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출처: <https://stdweb2.korean.go.kr/>.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

출처: <https://ilis.yonsei.ac.kr/dic/>.

許宝華, 宮田一郎(編)(2020), 漢語方言大詞典(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 <말뭉치 자료>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1.0 버전), 출처: <https://corpus.korean.go.kr/>.

北京大学 CCL 语料库[북경대학교 CCL 말뭉치], 출처: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北京语言大学 BCC 语料库[북경언어대학교 BCC 말뭉치], 출처:

<http://bcc.blcu.edu.cn/>.

저자명: 후박문

소속: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인문대학 304호

이메일: [pkuhou@snu.ac.kr](mailto:pkuhou@snu.ac.kr)

접수일: 2022. 02. 14

심사일: 2022. 02. 22

총평일: 2022. 02. 28

## 한국어 피동에 대응하는 아랍어 동사의 의미지도

강 미 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과정)

**Mi-hee Kang, 2022. A Semantic map of Arabic Verbs Corresponding to Passive in Korean. *Linguistic Typology Research* 7(1), 95-122.** Arabic's grammatical morphemes /u-i/ and suffixes /ta/ and /n/ corresponding to Korean passive markers '-i/hi/ri/gi-' are used in various ways to express Arabic verbs. These function words are more abstract and meaningful than content words, so they are used in many ways(Haspelmath, 2003:1). The passive voice is a type of voice. Voice is a system in which the speaker recognizes the event and expresses it in a syntactic structure corresponding to the participant's participation in that event. Cognition reflects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based on perception and physical experience(Langacker, 2008:98-28). Since experience determines the category of the conceptual system and each culture has a different conceptual system, the peoples' viewpoint towards the situation differ within different societies and cultures(Lakoff & Johnson, 1980:147-155). That is, when viewing an event, a specific way of express oneself through language can be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speaker's choice(Langacker, 2008:55). Speakers can express this voice by referring by objects, events, qualities, and relationships in different ways respective to their linguistic background(Jarvis, 2011:2). For example, the Korean affix '-i/hi/ri/gi-' is used identically to describe a spontaneous event, whereas Arabic clearly distinguishes it from the passive by adding the suffix /n/. Therefore, in order to identify and confirm the influence of Cross-Linguistic Influence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 explanation of how languages interact in the mind is required(Jarvis & Pavelenko, 2008:111; Jarvis, 2015:1-2). It is possible to explain and reveal the multifunctional types of vowels /u-i/, suffixes /ta/, and /n/ that represent Arabic verbs corresponding to the Korean suffix '-i/hi/ri/gi-' through a semantic map(Haspelmath, 2003:1-5).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semantic map, voice, polysemy, middle voice, passive mark, reflexive mark/**

의미지도, 태, 다의어, 중간태, 피동 표지, 채귀 표지

## 1. 서론

상황(situation)은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으로 표현되고(Radden & Dirven, 2007:50), 상황의 유형(Situation type)은 유형 내 맥락(context)이 공유하는 의미 속성(semantic property)에 따라 정의된다.<sup>1)</sup> 다양한 상황 유형의 의미 속성은 언어적 표현이 사상(mapping)되는 ‘묘사된 상황’ 또는 개념적 상황의 요소인 ‘사건(event)’, 사건에 참여하는 ‘참가자(participant)’, 사건의 참가자를 연결하는 ‘관계(relation)’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Kemmer, 1993:7-8). 그리고 이런 의미 속성이 통사 기능으로 실현되는 방식이 태(voice)이다(Ward, G. et al., 2002:1427).<sup>2)</sup>

- (1) a. 아이가 창문을 닫는다. (능동)  
 b. 창문이 아이에 의해 닫힌다. (피동)  
 c. 창문이 닫힌다. (자발)  
 d. 날씨가 풀렸다. (자발)

태는 능동(active)과 피동(passive)의 대립으로서 이해되어 왔다(Comrie, 1988:12-13). 한국어의 경우 형태적 피동 표지 ‘-이/히/리/기-’가 전형적인 피동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기인하여 능동태인 (1a)에 대응하는 피동태의 (1b)와 동일한 범위 안에서 피동으로 보기 어려운 (1c)을 설명하기도 한다. 또는 (1d)와 같은 문장을 ‘능동문을 상정할 수 없는 피동문’으로 지칭하는 입장(고영근·구본관, 2018:370)도 있지만, 매우 모순적이다(정해권, 2020:316). 즉, 태를 능동과 피동의 대립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상황 유형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 (2) a. yughliq            at-tifl-u            ash-shubbāk-a.<sup>3)</sup> (능동)  
 close-PRS.3M.SG DEF-boy-NOM DEF-window-ACC  
 ‘The boy closes the window’  
 “아이가 창문을 닫는다”

1) 동사와 서술어의 통사적·의미적 특성마다 필요한 논항(argument)이 존재하는데, 이런 논항의 역할을 의미역(semantic role)이라 한다(고영근, 구본관, 2018:116-117). 의미역에는 동작주(Agent), 피동작주(Patient), 대상(Theme), 장소(Location), 등이 있다(Langacker, 1991:284-285; Kemmer, 1993:8).

2) 사건은 행동(action), 과정(process), 상태(state)를 포괄한다(Kemmer, 1993:8).

3) 본고에서 사용된 아랍어는 ا(a / ā), ب(b), ت(t), ث(th), ج(j), ح(h), خ(kh), د(d), ذ(dh), ر(r), ز(z), س(s), ش(sh), ص(s), ض(d), ط(t), ظ(z), ع(ʿ), غ(gh), ف(f), ق(q), ك(k), ل(l), م(m), ن(n), ه(h), و(w), ي(y) / 단모음(a, i, u), 장모음(ā, ī, ū)으로 표기한다.

- b. *yughlaq*                      *ash-shubbāk-u*                      (피동)  
 close-PRS.PASS.3M.SG DEF-window-NOM<sup>4)</sup>  
*min qibali aṭ-tifl-i.*  
 by                      DEF-boy-GEN<sup>5)</sup>  
 ‘The window is closed by the boy’  
 “창문이 아이에 의해 닫힌다”
- c. *yanghaliqu*                      *ash-shubbāk-u.*                      (자발)  
 close-PRS.3M.SG DEF-window-NOM<sup>6)</sup>  
 ‘The window closes’  
 “창문이 닫힌다”
- d. *ighṭasala*                                      *zayd-un.* (신체 중간)  
 wash one's own body-PST.3M.SG Zayd-NOM.INDEF  
 ‘Zayd washed himself’  
 “제이드는 (자기를) 씻었다”

아랍어에는 태를 (2a)의 능동과 (2b)의 피동, 두 가지 태 유형으로 구분하면서도 이와 명확히 구별되는 유형이 존재한다(Wright, 1996:7, 51). 이런 기능을 일반적으로 재귀(reflexive)로 바라보는데(Geniušienė, 1987:8), 이를 표시하는 주된 재귀 표지(reflexive marker)는 접사 /ta/이다. 이는 (2d)와 같이 여러 동사 유형에서 나타나는 반면, (2c)의 접사 /n/는 특정 부류의 동사로 제한되어 나타난다(Glanville, 2018:51). 다시 말해, 아랍어의 재귀 구문에 다양한 용법이 존재하지만 그 경계가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다(정규영, 2008:8).

(3) a. 제이드가 [(자기) 몸을 / ?자기를] 씻었다. (신체 중간)

- 4) 본고에서 사용된 축약형(abbreviation)은 1(first person), 3(third person), ACC(accusative), ADV(adverb), DEF(definite), DU(dual), F(feminine), INDEF(indefinite), GEN(genitive), M(masculine), NOM(nominative), PASS(passive), POT(potential), PRS(present tense), PST(past tense), SG(singular), SPO(spontaneous), TOP(topic marker)이다.
- 5) 아랍어에서 3인칭 단수 남성 과거(third-person masculine singular past)는 동사 형태이며, 기본형으로 사용된다(Wright, 1996:29).
- 6) 아랍어는 사건 시간, 발화 시간과 관련된 기준 시간의 전위성(Anteriority)을 나타내는 데 과거(Past)/비과거(Non-past)나 완망(Perfective)/미완망(Imperfective)에 대하여 동일한 정형 동사형(finite verbal form)을 애매하게 사용한다. 이들은 형태적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서로 관련이 있다. 완망/미완망은 종결성(telicity)과 상호적으로 작용하지만 의존적이지는 않다(Fehri, 2012:4). 이에 본고는 아랍어 시간 표현을 Fehri(2012)에 따라 과거와 현재(비과거)로 구분한다.



- b. 最近 昔のことが よく 思われる。(자발)  
 saikin mukasi-no-koto-ga yoku omowa-re-ru  
 recently old days-GEN-things-NOM often think-SPON-PRS  
 ‘Recently the things of the old days often come to mind’  
 “최근 지난 일들이 자주 생각난다” (Shibatani, 2006:224)
- c. 海が 見える. (가능)  
 umi-ga mi-e-ru.  
 sea-TOP see-POT-PRS  
 ‘I can see the sea’  
 “바다가 보인다”

이는 범언어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 일본어에서는 피동을 표시하는 접사 ‘/re/’가 두루 쓰인다(황주하, 2011:143). (5a)의 일본어 동사 /nagurareta/('to be hit')과 동일한 접사를 공유하는 (5b)의 omowareru/('to come to mind')는 피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Shibatani, 2006:224-225).

- (6) a. *The boy was hit by the man.* (피동)  
 “아이가 남자에게 맞았다”
- b. *This door opens.* (자발)  
 “문이 열린다”
- c. *This pen writes well.* (가능)  
 “이 펜은 잘 써진다”

영어의 경우 이런 표지가 없으므로 (6a)의 장면인 피동과 구별되는 장면 유형을 (6b), (6c)와 같이 능동태에 포함시킨다(Kemmer, 1993:148). 이런 문법 기능들은 의미와 문맥 요소에 의해 구별되는데, 문법 의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 기능들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 관계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Bybee, 1985:195-196). 본고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어 피동 표지 ‘-이/히/리/기-’가 묘사하는 다양한 장면 유형에 대응하는 아랍어의 동사가 원형 의미에서 확장된 주변적 의미로 구성되는 방사 범주(radial category)의 다의성을 밝히고, 이를 의미지도(semantic map)로 나타냄으로써 그 특성과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7)

7) 의미지도는 인지 문법의 ‘연결망(networks)’과 유사하며, 기능이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Haspelmath, 1987:35; 2003:8).

## 2. 한국어와 아랍어의 원형적 피동

태는 참가자가 사건의 행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대응하는 통사 구조로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Shibatani, 2006:220).<sup>8)</sup> 이런 문법 형태가 다의성을 띄기도 한다(Langacker, 2008:225-226).<sup>9)</sup> 태의 일종인 피동은 다양한 구조를 다루는 데 범언어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 가운데 피동과 유사하면서도 피동으로 묘사하지 않을 태 유형들이 있다(Siewierska, 1984:2; Croft, 2005:23; Shibatani, 2006:263). 태의 범주는 기능유형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태 연속체(voice continuum)를 형성한다. 따라서 피동의 범주와 정의에 원형적 접근(prototype approach)을 하여 피동을 원형적인 유형과 주변적인 유형으로 배열되는 연속체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Croft, 2001:283; 연재훈, 2011:166; 정해권, 2020:312).

<표 1> 피동의 원형적 특징 (Shibatani, 1985: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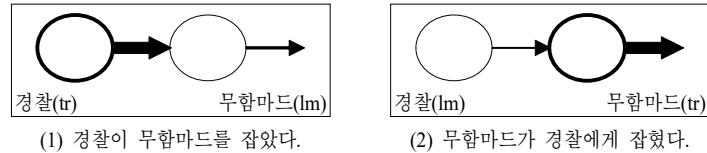
1. 우선적 화용적 기능	동작주의 탈초점화
2. 의미적 특징	
1) 의미 결합가	술어(동작주, 피동작주)
2) 주어가 영향을 받음	
3. 통사적 특징	
1) 통사적 부호화	동작주 ⇒ ∅ (부호화 안 됨), 피동작주 ⇒ 주어
2) P(술어)의 결합가	능동 = P/n, 피동 = P/n-1
4. 형태적 특징	능동 = P, 피동 = P [+피동]

범언어적으로 피동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면, 피동은 동작주의 탈초점화(defocusing)가 일어나는 화용적 기능을 가진다. 즉, 동작주(Agent)와 피동작주(Patient)의 두 참여자가 존재하는 가운데 주어가 영향을 받는 논항이 된다는 의미이다. 통사적으로는 피동작주가 주어로서 기능하게 되는데, 이때 동작주가 부호화되지 않거나 사격어(oblique)로 부호화됨에 따라 능동문의 타동사가 피동문의 자동사로 변환되면서 결합가가 감소한

8) 한국어에 Shibatani(2006), Kemmer(1993)에서 제시된 다양한 태의 범주가 모두 반영되지는 않는다(정해권, 2013:269).

9) 인간의 어휘 능력에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단어를 이용하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고(Aitchison, 1987:143), 머릿속에 어휘망(lexical network)을 형성하여 어휘가 서로 상호적인 연결을 이루는 데 기인한다. 하나의 단어가 갖는 여러 의미들은 방사 범주 안에서 작용하고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 과정으로 연결된다(Littlemore, 2009:41; 정해권 외, 2021:200). 즉, 다의성은 다른 상황에 발생하는 단어 사용에 의한 해석의 변화로 이해된다(Croft & Cruse, 2004:109).

다. 그리고 동사에 피동 표지(passive marker)가 붙는다(Siewierska, 1984:2; Shibatani, 1985:837; 1988:3-21). 이를 통해 피동이 표시되는 데 전경화(foregrounding)와 배경화(backgrounding)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 능동과 피동 장면의 전경과 배경

피동작주를 전경(figure)으로 윤곽부여(profiling)하고, 동시에 동작주를 배경(ground)으로 낮추는 작용과 동작주를 배경으로 격하시켜 피동작주가 현저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정해권, 2015:88).<sup>10)</sup> 이 작용들은 타동성(transitivity)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타동성은 다양한 태 체계의 논의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Kemmer, 1993:247; Shibatani, 2006:220).<sup>11)</sup>

<표 2> 타동성의 변인 (Hopper & Thompson, 1980:252)

	높은 타동성	낮은 타동성
참여자	둘 이상의 참여자 (A와O)	단일 참여자
운동성	운동성	비운동성
종결성	종결	비종결
순간성	순간적	비순간적
의도성	의도적	비의도적
긍정성	긍정	부정
서법	현실	비현실
동작주성	잠재성이 높은 A	잠재성이 낮은 A
O의 피영향성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O	영향을 받지 않는 O
O의 개체성	매우 개별화된 O	개별화되지 않은 O

10)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의 관점에서는 장면의 두드러지는 대상을 전경(탄도체, trajector: tr)이라 칭하고 현저성이 낮은 대상을 배경(지표, landmark: lm)이라 한다(Ungerer & Schmid, 2013:168).

11) 태는 접사 또는 어미가 동사 어간에 가깝게 결합할수록 긴밀한 의미 관계를 나타내며, 그 융합 순서는 ‘어간-결합가-태-상-시제-양태-일치’와 같다. 이 가운데 태와 결합가(valence)는 동사와 근접하게 결합하는 문법 범주로서 문장 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Bybee, 1985:4; 정해권, 2015:42-43).

<표2> 타동성 변인의 정도성(degree)을 기반으로 하여, 구문에서 실현 되는 타동성의 정도에 따라 타동성에 대하여 술어의 행동이 주어인 동작주에서 목적어인 피동작주로 옮겨지는(transferred) 것으로 정의된다. 높은 타동성은 전경화와 관계가 있으며 낮은 타동성은 배경화와 상관관계가 있다(Hopper & Thompson, 1980:251-294).<sup>12)</sup> 이는 타동성과 피동 사이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타동성을 가지는 경우 피동화(passivize)될 수 있다(Siewierska, 1984:8). 즉, 원형적 피동은 높은 타동성을 나타내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능동문이 존재하는데, 피동문의 주어로서 피동작주가 기능하고 동작주는 부사어로 실현되거나 생략된다. 이때 동사에는 피동 표지가 첨가된다. 이런 피동의 원형적 특징은 한국어와 아랍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 (7) a. 무함마드가 경찰에게 **잡혔다**.  
 b. <sup>3</sup>밥이 제이드에게 **먹혔다**.  
 b'. 제이드는 밥이 **먹힌다**.

한국어에서 (7a)의 문장은 높은 타동성을 가지는 장면이다. 두 참여자가 존재하는 장면으로서 피동작주인 ‘도둑’이 현저성을 가지며 주어로 기능한다. 동시에 동작주인 ‘경찰’은 부사어로 나타나고 동사에 피동 표지 ‘-이/히/리/기-’가 붙는다. 한국어에서 (7b)와 같이 ‘먹히-’는 장면의 경우, ‘먹히-’는 대상을 잃게 되므로 타동성이 낮다(김영일, 2019:95). 따라서 일반적인 피동의 의미보다 (7b')와 같이 내재된 동작주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어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백정화, 2016:51).

- (8) a.  $\dot{u}tuqila$  muḥammad-un.  
 catch-PASS.PST.3M.SG Muhammad-NOM.INDEF  
 ‘Muhammad was caught’  
 “무함마드가 잡혔다”  
 b. shuribat al-qahwat-u kullu-ha.  
 drink-PASS.PST.3F.SG DEF-coffee-NOM all  
 ‘All the coffee was drunk’  
 “커피 전부가 마셔졌다”

12) 의미적으로 타동성이 나타나는 형식의 타동 구문은 두 참여자가 필요하다(연계훈, 1997:107).

아랍어의 피동은 규칙적이다(Raslan, 1990:220).<sup>13)</sup>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 주어로 부호화되면서 주격 표지 /u/ (Damma, 담마)를 가지고, 능동문의 주어는 생략된다(Saad, 1982:31).<sup>14)</sup> (8a)의 동사인 /u'tuqila/('to catch')는 의미적으로 힘의 전달과 관련된 타동 사건(transitive event)을 묘사한다. /u'tuqila/('to catch')는 동작주가 동작을 행하여 발생하는 에너지가 피동작주인 /muḥammad/('Muhammad')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의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피동작주에게 초점화되는 변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피동작주인 /muḥammad/('Muhammad')가 주어로 표시되고 동작주는 생략되는데, 동작주를 표시하지 않아도 동작주의 존재를 내포하고 있다.<sup>15)</sup> 한편 아랍어에서는 (8b)의 /shuribat/('to be drunken'), /ukila/('to be eaten')와 같은 장면이 피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가능하다.<sup>16)</sup>

- (9) a. faraqat                    zayd-un                    ar-rajul-ayni. (능동)  
 separate-PST.3M.SG Zayd-NOM.INDEF DEF-two man-ACC  
 'Zayd separated the two man'  
 “제이드가 두 남자를 떼어 놓았다”

- 13) 아랍어 피동의 과거형은 첫 번째 자음에 /u/ (Damma, 담마), 중간 자음에 /i/ (Kasra, 카스라)가 결합한다. 그리고 현재형에는 /ya/ 위에 /u/ (Damma, 담마), 어근의 두 번째 자음에 /a/(Fatha, 파트하)가 결합하는 형태이다(이병학, 2014:690).
- 14) 아랍어는 유형적으로 주격-대격 언어이다. 아랍어에서 자동사의 단일 논항과 타동사의 동작주는 주격 /u/로 표시되고(Danks, 2011:31), 대응하는 타동문에서는 동작주가 대격 /a/로 표시된다(Mahmoud, 1991:121-122). Laks(2009:6)은 'u-i'나 'u-a' 형태가 결합가 변화와 관련된다고 설명하였다.
- 15) 아랍어에서 피동은 신이나 조물주를 글쓴이로 나타내거나 글쓴이의 존재를 알지 못할 때, 혹은 화자나 글쓴이가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며, 피동작주에게 청자나 독자의 초점을 이끌고자 할 때 피동으로 나타낸다(Wright, 1961:50). 피동문에 동작주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피동을 '동작주가 없는 동사'라 부르기도 한다(정규영, 2009:33).
- 16) '먹는 것(eating)'과 '마시는 것(drinking)'은 몸이나 마음에 무언가가 들어오는 활동으로서 이를 수행하는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동작의 한 종류이다. 동사의 행위가 주어에서 끝나고 영향을 받는 것은 주어인 경우 언어적으로 부호화된다. 그러나 /akala/('to eat')의 경우, 객체가 감소되어 영향을 받지만 반드시 소비되지 않는 무언가를 갉아먹거나 갉아먹는 행동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shariba/('to drink')와 /akala/('to eat')에서 각각 파생된 동사를 비교한 결과, /shariba/('to drink')만이 일관되게 consumer에 대한 영향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tasharraba/('to absorb, soak up')에서는 객체를 받아들이지만, 동일한 패턴으로 형성된 자동사 /ta'akkala/('to erode')는 객체가 조금씩 닳아가는 동작을 묘사하는데, 전자는 액체의 내성(internalization)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개체(entity)의 분해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shariba/('to drink')는 객체가 주어와 근접하게 위치하여 언어적으로 표시(marked)되지만, 주어가 객체에 영향을 미치는 /akala/('to eat')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Glanville, 2018:40).

- b. iftaraqa                      ar-rajula-ani.                      (피동)  
 separate-PST.3M.SG DEF-two man-NOM  
 ‘The two man separated’  
 “두 남자가 떼어졌다”

한편 아랍어의 피동은 모음 부호의 변화 외에도 접사를 붙여 표시하기도 한다(Khafaji, 1996:22). 능동문인 (9a)에 대응하는 피동문 (9b)의 경우 동작주인 /zayd/('Zayd')의 동작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동작주 /ar-rajula-ani/('the two man')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장면을 표현한다. 피동작주인 /ar-rajula-ani/('the two man')가 주어로서 기능하며, 동작주인 /zayd/('Zayd')가 생략되고 동사에 접사 /ta/가 첨가된다(Glanville, 2018:158).<sup>17)</sup>

### 3. 한국어 피동 표지에 대응하는 아랍어 동사의 주변적 의미

피동 표지는 원형적 피동 표시의 필요조건이다. 다양한 상황을 제한된 수의 문장으로 묘사해야 하는 한계로 인하여 피동을 표시를 위한 표지와 동일하다(정해권, 2017:97; 2020:316). 그렇더라도 개시자(initiator)가 종점(endpoint) 혹은 영향을 받는 개체이거나, 사건의 정교성이 낮은 것으로 기술되는 사건들의 의미 영역이 나타나는 장면 유형의 상위 개념은 중간태(middle voice)이다. 중간태의 다양한 하위 유형이 갖는 세부 기능과 통시적 기원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애매한 범주의 본질에 대해 통찰하는 것이 가능하다(Kemmer, 1993:1).<sup>18)</sup>

#### 3.1. 가능의 의미

형태적으로 피동과 동일하지만 원형적인 피동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사건의 동작에 참여하는 대상(Theme)이나 주어로 부호화되는 대상이

17) Glanville(2018:158)에 따르면 /iftaraqa/('to separate')가 단일 변화를 나타내지만, /tafarraqa/('to disperse')는 다중 분리, 다방향 확장, 단계별 변화를 형성한다.

18) 중간태(middle voice)는 자연 언어 문법 가운데 복잡한 현상의 일종이다(Croft et al., 1987:179). 중간태 관련 용어로 'mediopassive(Kurylowicz, 1964; Geniushienė, 1987), actional passive(Danks, 2011), pseudo-intransitive verb(Hassan, 2017), quasi-reflexive, agentless passive, pseudo-reflexive, deponent and neuter, 중간 구문(천효재, 2009), 중간 동사(우형식, 1996, 중동(이상익, 1999; 남수경, 2007; 이선웅, 2012; 백정화, 2018)' 등이 혼용된다. 용어 'middle'에는 '동(動)'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백미현 역(2003)에서 사용된 '중간태'를 사용한다(정해권, 2015:14).

어떤 가능한 속성(quality)을 가지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태는 가능태 (Potential voice)라 지칭하기도 한다(정해권, 2015:110). 가능은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 사건의 정도, 화자가 인지하는 사건 결과의 특성 판단 (quality judgments), 상대적 특성(relative quality), 본질적인 능력(intrinsic ability), 비교를 묘사한다(Kemmer, 1993:147). 이때 부사어 ‘잘’, ‘안’, ‘쉽게’와 함께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목적어와 도구의 부사어가 주어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남수경, 2012:82-91; 정해권, 2016:162; 2020:214).

- (10) a. 이런 댕에도 범이 **잡**히나? (최현배, 1961:422)  
 b. 이 창문은 잘 **닫**힌다.  
 b'. ?창문이 아이에 의해 잘 **닫**힌다.  
 b". ?아이가 창문을 잘 **닫**는다.  
 c. 그 소리가 **들**린다.

(10a)의 동사 ‘잡히-’는 남의 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어가 움직임을 할 수 있다는 속성을 보이는 것이다. (10b)의 주어인 ‘이 창문’은 (10b')의 목적어에 대응하지 않고, (10b")와 같이 동작주를 나타내면 어색하다(남수경, 2012:83). (10c)의 ‘들-’과 같은 지각 동사는 감각과 관련된 동작을 일으키며, 그 힘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유정물인 경험주(experiencer)가 상황을 인지하는 장면과 관련됨에 따라 비의지적 영향을 받으므로 낮은 타동성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능력을 내포하므로 이는 가능으로 해석된다(Kelly & Martin, 1994:108; 정해권, 2020:314).

- (11) a. al-kitāb-u      yubā'u      jāīdan.  
 DEF-book-NOM sell-PRS.3M.SG well-ADV  
 ‘The book sells well’  
 “그 책은 잘 팔린다” (이병학, 2014:576)  
 b. hadha al-qalam-u yakhuṭṭu jāīdan.  
 this DEF-pen-NOM write-PRS.3M.SG well-ADV  
 ‘This pen writes well’  
 “이 펜은 잘 써진다”  
 c. 'asma'u      aṣ-ṣawt-a.  
 hear-PRS.1.SG DEF-sound-ACC  
 ‘I can hear the sound’  
 “(나는) 그 소리가 들린다”

한국어에서 가능의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과 같이 아랍어에서도 피동 표지로 표현된다. (11a)의 문장에서 피동인 동사 /yubā'u/('to be sold')와 동일한 형태 /yubā'u/('to sell')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한편 아랍어는 영어와 같이 능동의 형태로 가능을 묘사하기도 하는데, 이는 (11b)의 경우와 같이 도구의 부사어가 주어로 기능함으로써 도구가 가지는 속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또한 (11c)의 /samī'a/('to hear')는 주어의 대상을 청각적으로 인식하거나 식별하고, 영어 'the way I hear it'과 동일하게 정신적 인상을 형성한다. /samī'a/('to hear'), /ra'ā/('to see') 등의 지각 동사는 일반적으로 타동성이 갖는 특징이 거의 없는 상황을 묘사하며, 인지하는 경험주가 영향을 받는다(Glanville, 2018:34-35). 경험주가 받는 영향은 보거나 듣는 경험이며, 개체 간의 작용과 경험의 확장을 나타내기 위해 타동성을 만든다(Saad, 1982:88).

### 3.2. 재귀의 의미

재귀(Reflexive)는 주어의 영향이 외부에 의해 발생하여 저절로 주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자발적 해석을 낳는다(Shibatani, 2004:1158). 이는 동작주와 피동작주의 두 참여자가 동일한 개체를 지시하므로 두 논항을 서술하는 구문으로도 나타낸다(Faltz, 1985:3).

(12) a. 무함마드가 [(자기) 몸을 / ?자기]를 씻는다.

한국어는 (12)의 문장과 같이 재귀 대명사 '저, 자기, 자신, 자기자신, 당신'을 사용하여, [N동작주가 N재귀사 V타동사] 구문으로 재귀 장면을 묘사한다(정해권, 2015:94-95).

- (13) a. 'arrafa                      muḥammad-un  
introduce-PST.3M.SG Muhammad-NOM.INDEF  
bi    nafs-i-hi    li-zayd-in.  
himself-GEN    to-Zayd-GEN.INDEF  
'Muhammad introduced himself to Zayd'  
'무함마드는 제이드에게 자신을 소개하였다'
- b. \* nahara                      muḥammad-un                      nafs-a-hu.  
kill-PST.3M.SG Muhammad-NOM.INDEF himself-ACC  
'Muhammad killed himself'  
'무함마드가 자신을 죽였다'<sup>19)</sup>

- b'.  $\dot{\text{intahara}}$   $\text{muḥammad-un.}^{20}$   
 commit suicide-PST.3M.SG Muhammad-NOM.INDEF  
 ‘*Muhammad committed suicide*’  
 “무함마드가 자살하였다”
- c.  $\text{jama'a}$   $\text{ar-rajul-u}$   $\text{an-nās-a.}$   
 gather-PST.3M.SG DEF-man-NOM DEF-people-ACC  
 ‘*The man gathered the people*’  
 “남자는 사람들을 모았다”
- c'.  $\text{ijtama'a}$   $\text{an-nās-u.}$   
 gather-PST.3M.SG DEF-people-NOM  
 ‘*The people gathered*’  
 “사람들이 모였다”

아랍어의 채귀 장면은 (13a)와 같이 명사 /nafs/ (‘soul, self’), /dhāt/ (‘being, essence’), /ayn/ (‘eye, spring’)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정규영, 2008:3-6). 하지만 (13b)의 동사 /naḥara/ (‘to sacrifice, to slaughter, to fight/kill’)은 채귀 명사와 공기하는 것이 어색한데, 이는 (13b)의 동사 /intahara/ (‘to commit suicide’)와 같이 접사 /ta/를 첨가함으로써 채귀 기능과 의미를 나타낸다. (13c)의 /jama’a/ (‘to gather’)는 동작주인 /ar-rajul/ (‘the man’)의 행위에 의해 피동작주인 /an-nās/ (‘the people’)이 결합되는 장면이다. 그러나 (13c)의 문장은 동작주인 /ar-rajul/ (‘the man’)과 영향을 받는 피동작주인 /an-nās/ (‘the people’)의 구분이 사라지고, 동사 /ijtama’a/ (‘to gather’)는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태 변화를 묘사한다(Glanville, 2018:164-165).

- (14) a. Judas s'est tué. (채귀)  
 ‘*Judas killed himself*’  
 “Judas 가 자기를 죽였다”
- b. Bathseba s'est lavée. (몸단장)  
 ‘*Bathseba washed*’  
 “Bathseba 가 씻었다”

19) 동사 /naḥara/는 동물을 대상으로 ‘to sacrifice, to slaughter’의 의미를 갖지만, 주어가 사람인 경우 ‘to fight/kill’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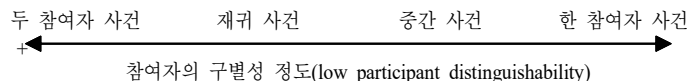
20) 동사 /intahara/ (‘to commit suicide’)는 개시자와 끝점이 동등하게 초점화되며, 두 역할은 동일한 개체에 속하게 된다(Glanville, 2018:56-57).

- c. Mamoud s'est agenouillé. (신체 관리)  
 ‘Mamoud kneeled down’  
 “Mamoud 가 무릎을 꿇었다”
- d. Elisabeth et Marie se sont rencontrées. (상호)  
 ‘Elizabeth and Mary met’  
 “Elizabeth 와 Mary 가 만났다”
- e. La porte s'est ouverte. (자발)  
 ‘The door opened’  
 “문이 (저절로) 열렸다”  
 (Haspelmath, 2003:12)

많은 언어에는 재귀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와 관련된 문법 형태소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자동사와 관련된 의미도 있는데, 영어 ‘-self’에 해당하는 ‘se(him/herself)’, ‘me(myself)’, ‘te(yourself)’를 사용하는 프랑스어가 대표적이다(Haspelmath, 2003:12). 재귀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중간태가 재귀태와 형태를 동일하게 표시하기도 한다(Klaiman, 1991:46). 이는 재귀태가 피동의 기능을 상징하는 범언어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Langacker & Munro, 1975:820). 중간태와 피동태 기능 사이의 연관성은 능동태와 구별되는 태(nonactive voice)를 두루 지칭하기 위해 ‘mediopassiv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서 확인된다. 용어 ‘mediopassive’는 통시적으로 중간 범주가 피동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일부 인도유럽어에서 기능을 확장하였다는 의견을 반영한다(Klaiman, 1991:45). 즉, 일반적으로 재귀 형태소의 사용이 인도유럽어의 능동태와 중간태 체계에 기인한다는 것이다(Siewierska, 1984:163).

중간태는 동작주의 역할과 피동작주의 역할이 같은 개체로 전이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내재적인 재귀 동사(inherently reflexive verb)’로 지칭되며, 개념적으로 두 참가자의 역할을 구별하기 어렵게 하여 낮은 참가자 구별성(low participant distinguishability)를 갖게 한다(Kemmer, 1993:243).<sup>21)</sup> 한편 재귀는 한 참가자 구문과 두 참가자 구문의 중간 상태로 설명될 수 있는 언어적 특성을 가진다. 하나의 논항을 가진 구문보다는 타동성이 높을 수 있고, 두 개의 논항을 가진 구문보다는 낮은 타동성을 가질 수 있다. 즉, 재귀는 타동사와 자동사의 중간에 있다는

21) 사건 참여자의 구별성 정도는 다음과 같다(Kemmer, 1993:73)



사실을 의미한다(Hopper & Thompson, 1980:277; Kemmer, 1993:73; Tsunoda, 2006:301).

아랍어는 접사 /ta/, /n/가 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는 무표지 동사(unmarked verb)와 공기하는 재귀 대명사이었다. /nafs/ ('soul, self'), /dhāt/ ('being, essence') 등과 같은 재귀 명사와 대명사가 음소적(phonetically)으로 감소되고 동사에 첨가되는 피동 표지가 문법화되는 전형적인 방법이며,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Glanville, 2018:52-57). 이때 본래 가진 재귀 의미(reflexive signification)가 아닌 부차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Wright, 1996:38).<sup>22)</sup> 아랍어의 접사 /ta/가 '재귀의 /ta/'로 지칭되기도 하고, '타동사를 자동사화하는 장치', '피동태로 전환하는 장치'로 불리는 데(정규영, 2009:33-37), 범언어적으로 재귀 표지는 피동이 가지고 있는 원형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표시하는 넓은 의미 범주를 표시한다(백정화, 2018:13).<sup>23)</sup> 다시 말해, 명확하게 동작주가 언급되지 않는 구문에서 동사가 능동인 형태를 가지지만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명확하게 한 참여자가 존재하더라도 동작주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채로 무언가에 배치되는 사건을 표현한다. 파생 피동(derivational passive)(Raslan, 1990:220; Ryding, 2005:657), 능동적 피동(actional passive)(Danks, 2011:148), 의사 자동사(pseudo-intransitive verb)(Hassan, 2017:37) 등으로 불리지만, 이런 동사는 재귀화(reflexivization), 탈사역화(decausativization), 상호화(reciprocalization) 등의 작용이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것이다(Laks, 2009:5).

### 3.3. 신체 중간 의미

중간태는 동일한 의미 부류(semantic class)를 표현하기 위한 용도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어휘(lexicon)에서 그 기능의 명확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입-(to dress)', '씻-(to wash)' 등의 몸단장(grooming), 신체 관리(body care), 신체 동작(body action)과 같이 동작주인 자신에게 행하는 사건의 범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신체 중간(body action middle)으로 지칭된다. 무표지 자동사에 중간(재귀) 표지(label)의 형태를 사용하기도 하며(Croft et al., 1987:181-182), 중간 표지를 객체인 신체 부위에 첨가하여 명시되는 것도 일반적이다(Kemmer, 1993:253).

22) Wright(1996:40)는 /mutāwi/로 지칭하며 재귀나 중간 의미의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파생형의 결과 의미를 나타내는 아랍어 용어로서 어휘적으로 관련이 있는 특정 동작을 따른다고 바라보는 관점이다(Ryding, 2005:530).

23) 아랍어 V형, VI형, VIII형, X형에는 접사 /ta/가 붙고, VII형에는 /n/이 결합되며, 의미적 요소에 따라 분류한다(Danks, 2010:34).



아랍어의 경우, (17a)의 피동 표지나 (17b)의 동사 /iḡhtasala/('to wash one's own body')는 /fa'ala/형인 /ḡhasala/('to wash something')에 접사 /ta/를 결합함으로써 객체의 끝점 역할이 주어에 할당하여 '씻-'는 동작과 위치가 바뀌는 결과를 겪는 경험을 묘사하게 된다. 이는 접사 /ta/가 개시자와 끝점 사이에서 동일성(identity)을 부호화하는 것이다. 즉, 동사의 원형 패턴과 차이(deviation)을 표시하는 체계로서 문법화의 결과이다. 문법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17b')와 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의미 구조들이 이해되었으나, 접사 /ta/가 /ḡhasala/('to wash something')에 결합되어 동사 표기 체계가 생기고 '자신의 몸을 씻는 장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Glanville, 2018:53-91). (17c)의 /yartajifu/('to tremble')은 별다른 위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신체 운동 조작(non-translational motion type)의 범주에 포함되는 동작이다(Kemmer, 1993:56).

### 3.4. 상호의 의미

재귀와 마찬가지로 중간태와 관련 있는 의미 영역은 상호 사건이다. 두 참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동작주의 영향성 또는 피동작주의 피영향성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는 상호태(reciprocal voice)로 지칭되기도 한다. 상호(reciprocal)는 여러 구문이 대응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참가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두 사건의 낮은 정도의 구별성(low participant distinguishability)으로 특징지어진다(Kemmer, 1993:95-112; 정해권, 2013:281; 201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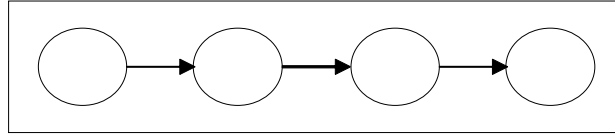
- (18) a. 무함마드가 제이드를 만났다.  
 a'. \*무함마드가 제이드를 서로 만났다.  
 b. 무함마드와 제이드가 만났다.  
 b". \*제이드가 무함마드에게 만나졌다.

(18a)의 장면에서는 두 참가자가 존재하는 가운데, 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에게 영향을 주는 장면을 타동 구문(transitive construction)을 통해 나타낸다. 이는 한 참가자에게 개시자의 역할이 할당되고, 다른 참가자에게 끝점의 역할이 주어지는 원형 상호(prototype reciprocal)이다. 원형 상호는 (18a)와 같이 상호사 '서로'를 첨가하면 비문이 된다(정해권, 2015:105). 중간태와 관련이 있는 본질 상호(naturally reciprocal), 즉, 두 참가자 혹은 그 이상의 참가자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 장면은 (18b)와 같이 나타내는데, 이때 개시자와 끝점 역할의 참가자 사이에

구별되는 별도의 표현이 없고, 두 역할의 참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다(Kemmer, 1993:96-97, 117-118). 한국어에서는 본질 상호태를 나타내는 동사 ‘만나-’, ‘닭-’, ‘싸우-’는 (18b)와 같이 피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

- (19) a. qābala / qātala / nāhara muḥammad-un  
meet/fight/kill-PST.3M.SG Muhammad-NOM.INDEF  
zayd-an. (원형 상호)  
Zayd-ACC-INDEF  
‘Muhammad met/fought Zayd’  
“무함마드가 [제이드를 만났다 / 제이드와 싸웠다 / 제이드와 죽일 듯 싸웠다]”
- a'. taqābala / taqātala / tanāhara al-'atfāl-u. (본질 상호)  
meet/fight/kill-PST.3M.SG DEF-children-NOM  
‘The children met/fought each other’  
“아이들이 (서로) [만났다 / 싸웠다 / 죽일 듯 싸웠다]”
- b. tarākama ath-thalj-u. (연쇄 상호)  
pile up-PST.3M.SG DEF-snow-NOM  
‘The snow piled up’  
“눈이 쌓였다”

아랍어는 원형 상호 장면을 (19a)의 동사 /qābala/('to meet'), /qātala/('to fight'), /nāhara/('to kill')과 같이 나타내며, (19a)의 동사에 접사 /ta/를 결합하여 본질 상호 장면을 표현한다(Badawi, 2004:60-61; Ryding, 2005:503-543; Ajer & Hall, 2015:16). 많은 언어에서 상호 상황과 재귀 상황이 동일한 표지(marker)로 부호화되는데, 두 상황 모두 각 참가자가 개시자와 끝점이라는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상호 상황은 구분되는 두 개의 개체가 상호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만, 재귀 개체의 경우, 끝점이 동일한 개체라는 관계를 지닌다(Kemmer, 1993:98). 한편 원형 상호 이외에도 상호태의 하위 부류로서 분산(distribute), 집단(collective), 연쇄(chaining) 상호 유형이 있다. ‘눈이 쌓이-’는 장면은 (19b)와 같이 연쇄 상호 /tarākama/('to accumulate')로 주어인 ‘눈’이 이전보다 더 쌓이고, 다음에는 이전 상태보다 더 쌓인 장면을 해석(construal)한다. 일반적으로 비교 부사, 전치사, 형용사를 반복하여 한 참가자의 점진적(progressive)이고 증가적(incremental)인 변화를 나타내지만, 아랍어는 동사 /tafā'ala/형을 사용하여 점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Glanville, 2018:77-104).



<그림 2> 연쇄 상호의 의미 모형(Kemmer, 1993:100)

원형 상호와 연쇄 상호의 상황은 모두 한 참가자가 한 관계의 개시자이고 동일한 유형의 두 번째 관계의 끝점인 쌍으로 구성된 ‘개시자와 끝점’ 관계가 있다. 원형 상호의 경우는 관계가 두 참가자를 서로 연결하는 반면에 연쇄 상호의 상황은 각 참가자는 연쇄가 진행되는 참가자와 관련이 있는 개시자인 동시에 사슬에서 이어지는 참가자와 또 다른 관계의 끝점이 된다(Kemmer, 1993:101).

### 3.5. 자발의 의미

일반적으로 죽음(dying), 숙성(ripening), 부패(rotting), 성장(growing) 등과 같이 특정한 시작 과정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물리적 과정이나 행위는 자발 사건(spontaneous event)으로서, 동작주의 이해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작주가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장면을 나타낸다. 이는 자발(spontaneous)으로서 개체의 상태 변화를 표현하며, 물리적 특성 변화, 크기, 색상, 형태, 발전(develop), 기원(originate), 증발(evaporate) 등의 실질적 변화도 유사하게 표현되는 사건으로 포함된다(Kemmer, 1993:142-143).

- (20) a. 아이에 의해 창문이 닫힌다. (피동)
- b. 창문이 닫힌다. (자발)
- b'. \*창문이 (누군가)에 의해 닫힌다.
- b". \*(누군가)가 창문을 잘 닫는다.
- c. 창문이 잘 닫힌다. (가능)

자발은 행동의 근원이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참여자에게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피동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피동태는 낮은 담론 관련성(low discourse relevance)를 가지는 동작주이고, 자발은 외부 환경이 행동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피동문인 (20a)는 피동작주인 ‘창문’이 동작주인 ‘아이’의 동작에 따른 영향으로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나 원형적 피동과 비교하여 자발은 (20b)와 같이 동작주를 상정하기 어렵고, 동작주

를 나타내는 능동문인 (20b)"과 같이 교체하는 경우 어색하다(정해권, 2013:276; 2015:119). 피영향 개체에 초점을 둔다는 관점에서 (20c)의 기능이 자발과 유사하지만, 사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고유한 개체의 특성에 기인하여 개시자의 상태가 피동작주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자발과 구별된다(Kemmer, 1993: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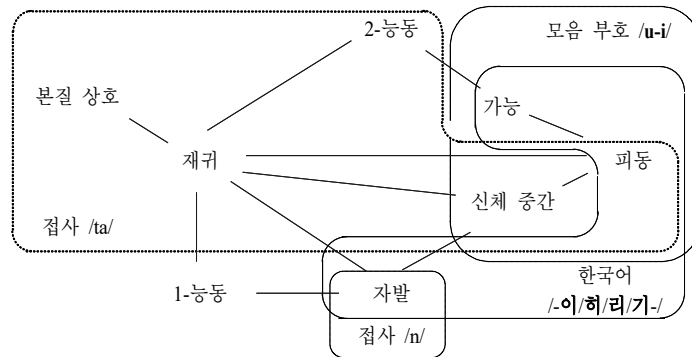
- (21) a. *yughliq*            *aṭ-ṭifl-u*            *ash-shubbāk-a*. (능동)  
 close.PRS.3M.SG DEF-boy-NOM DEF-window-ACC  
 ‘The boy closes the window’  
 “아이가 창문을 닫는다”
- b. *yanghaliq*            *al-shubbāk-u*. (자발)  
 close-PRS.3M.SG DEF-window-NOM  
 ‘The window closes’  
 “창문이 닫힌다”
- c. *yughlaq*                            *ash-shubbāk-u*  
 close-PRS.PASS.3M.SG DEF-window-NOM  
 (min qibali aṭ-ṭifl-i). (피동)  
 (by DEF-boy-GEN)  
 ‘The window is closed (by the boy)’  
 “창문이 (아이에 의해) 닫힌다”

(21a)의 동사인 /ghalaqa/('to close')의 경우, 주어인 ‘아이’에게 개시자의 역할이 할당되고 피동작주인 ‘창문’은 ‘닫히-’는 상황 변화가 일어나는 끝점이 이다. 반면에, (21b)의 /yanghaliq/('to close')는 개시자와 끝점의 구분이 없다. 이때 주어인 ‘창문’의 상태가 바뀌어 저절로 ‘닫히-’는 상황을 묘사한다(Glanville, 2018:52-53). 직접적 시작이 없이 발생하는 동작에서 동작주가 부호화되지 못하고 형태·통사적으로 변화를 겪는 개체가 부호화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sup>24</sup> 이는 기본 동사와 접사 /n/이 공기하는 형태로 실현되며, 피동형이 존재하지 않는다(Badawi, 2004:61; Saad, 1982:4). 또한 원형적 피동태인 (21c)의 /yughlaq/('to be closed')와 명확하게 구분된다(Danks, 2011:239; Ajer & Hall, 2015:17).

24) 반사동(anticausative)은 행위자(actor)가 완전히 통사적·의미적으로 제거되며, 이 과정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발현된다(Haspelmath, 1987:6-7). 이는 동작주는 부호화되지 않고, 변화를 겪는 개체가 형태적·통사적으로 부호화되는 유형으로 자발 사건(spontaneous event)로 지칭되기도 한다(Kemmer, 1993:142).

#### 4. 한국어 피동 표지에 대응하는 아랍어 동사의 의미지도

이처럼 다양한 기능이 유사할 때 문법 단위(gram)의 다기능성이 나타나며, 문법 형태의 다의성은 의미지도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미지도는 개념지도(conceptual map)의 분할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sup>25)</sup> 개념지도는 언어적으로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의미지도는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특히, 범언어적으로 두 개의 개념이 하나의 언어 요소로 표현되는 일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 두 개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다의성이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개념들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similarity)의 정도나 관계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박진호, 2012:460-461). 유사성은 표현 공간 내 여러 노드(node)들 사이의 근접성에 의해 표현되며(Haspelmath, 2003:2-5), 공유 의미 속성(shared semantic property)의 관점에서 두 유형 사이의 의미 관계가 가까울수록 서로 공유하는 속성이 많아진다(Kemmer, 1993:7).



<그림 3> 한국어와 아랍어의 재귀-중간-피동과 관련된 의미지도

한국어의 피동, 가능, 자발은 동일한 문법 표지 ‘-이/히/리/기-’를 사용하여 표현된다.<sup>26)</sup> 이처럼 아랍어의 모음 부호 ‘u-i’와 접사 /ta/가 다기능성을 가지는데, 이와 같이 아랍어의 태 범주를 의미지도로 나타내면 이들이 개념적 유사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피동 혹은 재귀로 애매하게 구분되던 태의 범주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25) 박진호(2012:461)에 따르면, 연관된 개념들은 하나의 개념공간(conceptual space)을 형성하는데, 개념공간의 개념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 양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개념지도(conceptual map)이다.

26) 정혜권(2015:65)은 한국어의 태를 기능적으로 분류하여 의미 지도를 제시하였다.

## 6.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는 다양한 기능 영역이 하나의 문법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Haspelmath, 2003:2), 범언어적으로 태의 범주가 다양한 태 연속체를 형성한다는 관점(Kemmer, 1993; Croft, 2001:283; 연재훈, 2011:166; 정해권, 2020:312)에서 한국어의 피동 표지 ‘-이/히/리/기-’와 아랍어의 모음 부호 변화 /u-i/와 접사 /ta/가 다의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인간은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이나 장면을 관찰하므로 문화마다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방식은 개념적인 표현을 제시 (package)하고 표현(present)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며(Evans & Green, 2006: 536), 이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가 언어에 반영된다(Littlemore, 2009:13). 또한 언어는 무수히 많은 개념을 한정된 형태로 나타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개방 부류 요소(open-class)와 문법 형태의 다의성은 빈번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Langacker, 2008:225-226, 정해권, 2016:158).

한국어의 피동은 접사 ‘-이/히/리/기-’로 표시한다. 그리고 아랍어의 피동은 모음 부호 변화를 표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접사 /ta/를 첨가하여 피동 의미로 확장되는 방법이 있다. 한국어의 피동 표지는 피동 외에도 가능, 자발, 신체 중간 등을 표시한다. 아랍어의 경우, 모음 부호 변화를 통해 피동, 가능, 신체 중간을 나타내고, 접사 /ta/는 재귀, 피동, 상호, 신체중간 등을 나타낸다. 또한 자발 상황은 접사 /n/을 첨가하여 명확하게 피동과 구분한다. 따라서 /u-i/, /ta/, /n/가 사용되는 서술 유형을 구분하고 의미 관계를 밝혀, 이를 통해 실현되는 다양한 태 범주들의 개념적 영역이 인접하여 분포한다는 것을 의미 지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상황을 관찰하더라도 다른 언어 배경을 가진 화자가 상이한 방식으로 해석(construal)하고, 그 의미 차이를 반영하여 한국어와 아랍어가 태를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는 언어간 영향(Cross-Linguistic Influence: CLI)을 식별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언어가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Jarvis & Pavlenko, 2008:111; Jarvis, 2015:1-2).

### 참고 문헌

- 고영근·구본관(2018), 《개정판 우리말 문법론》, 파주: 집문당.
- 김영일(2019), “한국어 피동사 피동문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 남수경(2007), “한국어 피동문의 문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 남수경(2012), “‘-히-’계 접미사 구문의 한 유형에 대한 고찰: 한국어 가능 피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7, 77-102.
- 박진호(2012),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요소와 문법요소의 의미 기술”, 《국어학(國語學)》, 63, 459-519.
- 백정화(2016), “한국어 저절로 피동 구문의 반사동적 특징”, 《한국어 의미학》, 54, 33-60.
- 백정화(2018),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피동사 구문의 의미적 특징”, 한양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 연재훈(1997),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 21(1), 107-132.
- 연재훈(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 이병학(2014), 《종합 아랍어 문법 1: 어형과 품사편》, 문예림.
- 이병학(2014), 《종합 아랍어 문법 2: 구문편》, 문예림.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임지룡(2018), “‘의미’연구의 흐름과 전망”, 《한국어 의미학》, 59, 1-30.
- 정규영(2008), “아랍어의 재귀 구문 -한국어, 아랍어, 영어의 유형적 연구-”, 《아랍어와 아랍문학》, 12(2), 67-86.
- 정규영(2009), “아랍어의 수동태 -유형론적 고찰-”,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13(2), 31-47.
- 정해권(2013), “한국어 태 범주의 연속체”, 《언어과학연구》, 67, 267-286.
- 정해권(2015), “한국어 태 체계의 정립과 습득 및 교육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해권(2016), “한국어 피동 표지의 다의성과 습득 양상 -피동과 가능 기능의 구별”, 《이중언어학》, (63), 157-180.
- 정해권(2017), “한국어 감정 구문의 문법 표상과 개념적 사상”, 《담화와인지》, 24(2), 95-114.
- 정해권(2020), “한국어 주변적 피동에 대한 재검토”, 《형태론》, 22, 312-333.
- 정해권, 서강보, 신수련(202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심성어휘집 연결에 대한 모어 영향 연구”, 《언어와 문화》, 17(2), 199-226.
-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황주하(2011), “한국어 교육에서의 피동 표현 교육 방안-과생 피동사에 의한 피동법을 중심으로”,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1(2), 143-155.
- Aitchison, J. (1987), *Words in the mind: An introduction to the mental lexicon*, John Wiley & Sons.
- Ajer, H. D. & Hall, T. (2015), “Aspects of the Arabic middle- an exploration of voice, aspect and valency”, University of Cambridge.

- Anderson, L. B. (1982), "The 'perfect' as a universal and as a language-specific category", *Tense-aspect: Between semantics and pragmatics*, 227-264.
- Badawi, S. E., Carter, M. & Gully, A. (2004), *Modern Written Arabic - A Comprehensive Grammar*, Routledge.
- Bybee, J. L.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Vol. 9), John Benjamins Publishing.
- Comrie, B. (1988), "Passive and voice", in Shibatani, M. (Ed.). (1988), *Passive and voice* (Vol. 16), John Benjamins Publishing., 9-23.
- Croft, W., Shyldkrot, H. B. Z., & Kemmer, S. (1987), "Diachronic semantic processes in the middle voic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storical linguistics* (Vol. 48), 179-192.
- Croft, W. (2001),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Syntactic theory in typologic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Croft, W. (2005), "Logical and typological arguments for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Construction grammars: Cognitive grounding and theoretical extensions*, 273-314.
- Croft, W. & Cruse, D. A. (2004),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nks, W. (2011), *The Arabic Verb: Form and meaning in the vowel-lengthening pattern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Evans, V. & Green, M. (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An Introduc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 Faltz, L. M. (1985), *Reflexivization: A study in universal syntax*, Garland Publishing.
- Fehri, A. F. (2012), *Key features and parameters in Arabic grammar (Vol. 182)*,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 Geniušienė, E. (1987), *The typology of reflexives*, Berlin; New York; Amsterdam: De Gruyter Mouton.
- Glanville, P. J. (2018), *The Lexical Semantics of the Arabic Verb*,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spelmath, M. (1987), "Transitivity alternations of the anticausative type.(= Arbeitspapiere NF 5) Cologne", University of Cologne.
- Haspelmath, M. (2003), "The geometry of grammatical meaning: Semantic maps and cross-linguistic comparison", in *The new psychology of language*, Psychology Press, 217-248.
- Hassan, B. E. (2017), "Cognitive Grammar with Reference to Passive Construction in Arabic", *International Journal of Linguistics, Literature and Culture*, 4(1), 30-44.
- Hopper, P. J. & Thompson, S. A.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volume 56, number 2, 251-299.
- Jarvis, S. & Pavlenko, A. (2008),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language and cognition*, New York: Routledge.
- Jarvis, S. (2011), "Conceptual transfer: Crosslinguistic effects in categorization

- and construal”,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14(1), 1-8.
- Jarvis, S. (2015), “Clarifying the scope of conceptual transfer”, *Language Learning*, 66(3), 608-635.
- Kelly, M. H. & Martin, S. (1994), “Domain-general abilities applied to domain-specific tasks: Sensitivity to probabilities in perception, cognition, and language”, *Lingua*, 92, 105-140.
- Kemmer, S. (1993), *The Middle Voic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Khafaji, R. (1996), “Arabic translation alternatives for the passive in English”, *Papers and studies in contrastive linguistics*, 31, 19-37.
- Klaiman, M. H. (1991), *Grammatical vo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ryłowicz, J. (1964), *The inflectional categories of Indo-European* (Vol. 3), C. Winter.
- Lakoff, G. & Johnson, M. (2003),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s, L. (2009), “The formation of Arabic passive verbs: lexical or syntactic”, *Proceedings of IATL* (Vol. 25).
- Langacker, R. W. & Munro, P. (1975), “Passives and their meaning”, *Language*, 789-830.
- Langacker, R.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Theoretical prerequisites* (Vol. 1),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W. (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descriptive application. Volume 2* (Vol. 2),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W. (2008),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New York: OUP USA.
- Littlemore, J. (2009), *Applying cognitive linguistics to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Springer.
- Mahmoud, A. T. (1991), “A contrastive study of middle and unaccusative constructions in Arabic and English”. In *Perspectives on Arabic Linguistics III*, John Benjamins, 119-134.
- Radden, G. & Dirven, R. (2007), *Cognitive english grammar* (Vol. 2), John Benjamins Publishing.
- Raslan A. Bani-Yasin (1990), “아랍어 제 7 형 동사 ' infa ' ala 에 관한 연구”, 《한국 이슬람 학회 논총》, 918, 217-227.
- Ryding, K. C. (2005), *A Reference Grammar of Modern Standard Arabic*,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ad, G. N. (1982), *Transitivity, causation and passivization. A semantic-syntactic study of the verb in classical Arabic*, Routledge.
- Shibatani, M. (1985), “Passives and related constructions: A prototype analysis”, *Language*, 821-848.
- Shibatani, M. (1988), *Passive and voic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Shibatani, M. (1998), “Voice parameters”, In *Typology of verbal categories*, (pp. 117-138) Max Niemeyer Verlag.
- Shibatani, M. (2004), “Voice” In G. Booij, C. Lehmann, J. Mugdan and S.

- Skopeteas (eds.), *Morphology: An International Handbook on Inflection and Word-Formation* (vol 2), Walter de Gruyter, 1145-1165.
- Shibatani, M. (2006), "On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voice phenomena", *Linguistics*, 44(2), 217-269.
- Siewierska, A.(1984), *The Passive: A Comparative Linguistic Analysis*, Croom Helm.
- Tsunoda, T. (2006), "Reflexive and middle constructions of Warrungu (Australia)", in *Voice and Grammatical Relations: In Honor of Masayoshi Shibatani*,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65, 299.
- Ungerer, F. & Schmid, H. J. (2013),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Routledge.
- Ward, G., Birner, B. & Huddleston, R. D. (2002), "Information packaging", in Huddleston, R. D. & Pullum, G. K.(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right, W. (1996), *A Grammar of the Arabic Language*, Volume II,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저자명: 강미희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과 석사

주소: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메일: miheeyooo@gmail.com

접수일: 2022. 02. 14

심사일: 2022. 02. 22

총평일: 2022. 02. 28

*This page left blank*

## 한국어 양태와 스페인어 서법의 대조 연구

신성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Seong-eun Shin. 2022. A Contrastive Analysis between Korean Modal System and Spanish Mood. *Linguistic Typology* 7(1), 123-139.** Korean is a language in which various modal expressions are used to indicate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a proposition, and Spanish is a language in which one type of mood is used to express the same concept. Korean modal expressions and Spanish mood correspond to each other in that they represent the attitude or judgment of the speaker. It is confirmed not only theoretically, but also by a contrast analysis using discourse text. The contrast between Korean modal expressions and Spanish mood reveals characteristics of Korean modality, and it suggests that Spanish-speaking learners can use the difference as a reference when learning Korean modal expressions(107 word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modality, modal system, mood, contrastive analysis, indicative, subjunctive**

### 1. 서론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학습자는 목표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Lado, 1967). 스페인어와 한국어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크므로 두 언어의 차이 스페인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이 수월해진다. 한국어에서는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어떤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표시하는 반면, 스페인어에서는 서법을 사용하여 같은 내용을 표시한다.

- (1) a. 2 시에는 도착할지도 모르겠다.  
 b. Quizás llegue a las dos.  
 아마 도착하다. 현재.접속 전치사 관사 2  
 ‘아마 2 시에는 도착할지도 모르겠다.’

(1a)에서는 ‘-지도 모르-’의 표현을 통해 2시에 도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표시하였다. 이와 다르게 (1b)에서는 같은 내용을 동사의 활용을 통해 표시하였다. 즉, ‘도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llegar’의 접속법 현재 형태를 사용하여 2시에 도착할 것에 대한 확신이 낮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각 언어만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곧, 한국어는 어떤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표시하기 위해 양태 표현을 사용하는 양태 표현이 발달한 언어이며, 스페인어는 같은 개념을 표시하기 위해 서법을 사용하는 서법 체계가 잘 드러나는 언어이다.<sup>1)</sup>

그런데 스페인어의 서법은 직설법, 접속법의 두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어에는 다양한 양태 표현이 존재하며 표현마다 나타내는 실현 가능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양태 표현과 스페인어의 서법 유형이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양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스페인 드라마의 대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비교하여 실제 담화 텍스트에서 한국어 양태 표현과 스페인어 서법이 어떻게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지, 둘은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2. 한국어 양태 표현

양태의 개념에 관해서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 또는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라는 Lyons(1977:452)의 정의가 가장 널리 인용되었다. 한국어 양태 연구에서도 많이 인용된 정의인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바탕으로 양태 범주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전문이(2020:102)에서는 양태를 “화자가 명제 실현의 가능성<sup>2)</sup>을 판단하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또한, 판단의 차원에 따라 양태를 동적 양태,

- 1) 한국어에도 서법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어의 서법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진행된 바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고영근(1986; 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임동훈(2008)은 서법을 문체법으로 설명한 것을 지적하였으며 문체법 또는 문장 서법이라고 하는 문장 유형(sentence type)과 서법은 구별된다고 비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법은 개념적 양태를 의미하는 ‘양태성’이 문법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박진호(2011:318)는 한국어는 양태 요소는 많으나 서법 요소는 거의 없다고 설명한다. 한국어에 직설법, 접속법 같은 이항 대립의 서법 체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Palmer(2001:4)에서도 세계 여러 언어에서 서법과 양태 중 하나의 체계만 나타나거나 적어도 하나가 다른 체계보다 훨씬 우세하다고 말한다. 이는 개념적 의미의 양태(modality)가 서법(mood)과 양태(modal system)의 서로 다른 체계 중 하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2) 전문이(2020)의 ‘사태’의 실현 ‘잠재성’보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제’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용어 사용하기로 한다.

당위 양태, 인식 양태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장에서는 전문이 (2020)의 견해를 따라 양태의 세 유형과 각 유형에 속하는 구체적인 양태 표현을 살펴보겠다.

동적 양태는 화자가 명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재적 판단을 표현하는 양태 유형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내재적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이 판단되며, 이때 한 개인 내의 핵심 자아(central self)와 주변 자아(peripheral self) 간에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된다.<sup>3)</sup> 동적 양태가 나타나는 의미 유형으로는 ‘의지, 의도, 능력, 소망’이 있다.

- |        |                  |          |
|--------|------------------|----------|
| (2) a. | 지금 다녀오겠습니다.      | [의지]     |
| a'.    | 지금 다녀오려고 해요.     | [의도]     |
| b.     | 남편은 운전을 할 수 있어요. | [능력(긍정)] |
| b'.    | 나는 운전을 할 줄 몰라요.  | [능력(부정)] |
| c.     | 명동에 가고 싶어요.      | [소망]     |

(2a)에서는 개인의 내재적 강제성에 의하여 지금 다녀오겠다는 ‘의지’가 표현되며 이때 사태 실현의 가능성은 높이 평가된다. (2a')에서도 (2a)에서처럼 ‘다녀오다’라는 행동이 강제된다. 그런데 그 강제적 영향력의 행사가 시작되는 단계라는 점에서 앞의 ‘의지’ 유형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발화 상황에서는 그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으므로 (2a')의 ‘의도’ 의미 유형은 실현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의지’만큼 가능성이 높지 않게 판단된다. (2b)에서는 ‘운전을 하다’라는 행동 성향이 이에 반하는 성향을 극복하였다. 따라서 화자는 명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 판단하여 표현하였다. 이때 ‘운전을 하다’라는 행동 성향이 실현될 가능성을 높이 판단하는 평가자는 주어 ‘남편’이 아니라 화자이다. 한편, (2b')처럼 ‘-을 수 없-, -을 줄 모르’ 등이 사용될 경우 능력을 부정하는 상황이므로 명제의 실현 가능성이 낮게 판단된다. 능력을 긍정하는 ‘-을 수 있-, -을 줄 알-’과 반대로 행동 성향이 이에 반하는 성향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이다. 예문 (2c)에서는 한 개인의 정신 내에서 핵심 자아와 주변 자아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즉 핵심 자아는 ‘명동에 가다’라는 행동 성향을 갖고 있지만 이에 대립하는 주변 자아의 영향력으로 명제의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예문을 통하여 살펴본 동적 양태의 의미 유형을 명제 실현의 가능성의

3) Talmy(2000:431-433)는 핵심 자아와 주변 자아로 구성되는 ‘분리된 자아’의 개념을 형성화하였다. 핵심 자아는 심리 상태를 반영하므로 욕구와 관련되며, 주변 자아는 핵심 자아에 압력이나 자극을 주는 자아로 외부의 사회적 가치 등의 내재화로 책임감과 예절 등을 표현한다.

정도에 따라 나열하면 ‘의지, 능력(긍정), 의도, 소망, 능력(부정)’의 순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

당위 양태는 사회적 차원에서 명제 실현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양태 유형이다. 이는 법, 사회 규칙 및 규범 등 사회적 권위가 명제의 실현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당위 양태가 출현함을 시사한다. 당위 양태의 의미 유형에는 ‘의무/필요, 제한, 면제, 권한, 용인’이 있다.

- (3) a.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의무/필요]  
 b.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됩니다. [제한]  
 c. 숙제는 화요일까지 내면 돼요. [용인]  
 c'. 숙제는 화요일까지 내도 돼요. [면제]  
 d. 만 18 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다. [권한]

예문 (3a)에서 사회적 규범 또는 화자가 ‘방역수칙을 지키다’라는 사태의 실현이 바람직하다는 압력, 곧 강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강제성에 의해 명제 실현의 가능성이 높게 판단된다. 예문 (3b)에서는 암묵적으로 표현된 주어와 화자 또는 사회적 권위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다. 곧 ‘마스크를 벗다’라는 사태를 지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명제의 실현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강제성에 의해 명제 실현의 가능성이 낮게 판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3c)는 ‘숙제를 화요일까지 내다’라는 명제가 실현되도록 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이와 달리 (3c')는 숙제를 화요일까지 내지 않는 것, 즉 ‘숙제를 월요일까지 내다’와 같은 명제를 실현할 사회적 강제성의 의무로부터 면제를 부여받아서 ‘숙제는 화요일까지 내다’라는 명제 실현의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3d)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하다’라는 명제 실현의 가능성을 사회적 가능성 ‘권한’에 의해 부여받았다.<sup>4)</sup>

예문을 통하여 살펴본 당위 양태의 의미 유형을 명제 실현의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나열하면 ‘의무/필요, 권한, 면제, 용인, 제한’의 순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인식 양태는 화자가 명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인식적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을 표현한다. 따라서 동적 양태는 개인의 내재적 차원, 당위 양태는 사회적 차원, 인식 양태는 인식적 차원에서 명제 실현의 가능성이

4) ‘-을 수 있다’는 대표적 양태 표현으로 세 양태 유형에 모두 속한다. 문맥에 따라 동적 양태의 능력(내재적 가능성) 표현, 당위 양태의 권한(사회적 가능성) 표현, 인식 양태의 가능성(인식적 가능성) 표현으로 분석된다.

판단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인식 양태의 의미 유형으로는 ‘확실성(certainty), 개연성(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이 있는데 확실성은 인식적 강제성으로 인하여, 개연성과 가능성은 인식적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실현 가능성이 판단된다.

- |        |                          |           |
|--------|--------------------------|-----------|
| (4) a. |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 [확실성(긍정)] |
| a'.    | 그 사람을 모른다면 한국 사람일 리가 없지. | [확실성(부정)] |
| b.     | 오늘 두 시에 도착할 것 같아.        | [개연성]     |
| b'.    | 오늘 두 시에 도착할 거야.          | [개연성]     |
| c.     |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            | [가능성]     |
| c'.    | 문제가 해결될지도 몰라.            | [가능성]     |

(4a)에서 ‘그렇게 하다’라는 명제를 당연한 결론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식적 추론을 근거로 한다. 그리고 (4a')의 경우 ‘한국 사람은 모두 그 사람을 안다’와 같은 일반적 지식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라는 명제의 실현성을 부정한다. 즉,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명제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이를 확실하다고 평가하므로 ‘부정적 확실성’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결과적으로 명제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4b)의 ‘도착할 것 같아’와 (4b')의 ‘도착할 거야’는 가능성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도착할 거야’는 소요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처럼 비교적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도착하다’라는 명제 실현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표현이다. 반면, 도착 예정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착할 것 같아’로 표현한다. (4c)에서는 ‘계획이 성공하다’라는 명제가 반대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실현될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4c')의 화자는 인식적 추론을 근거로 ‘문제가 해결되다’라는 명제가 실현되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는 확률적 가능성으로 명제 실현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지 않는다.

예문을 통하여 살펴본 당위 양태의 의미 유형을 명제 실현의 가능성 정도에 따라 나열하면 ‘확실성(긍정), 개연성, 가능성, 확실성(부정)’의 순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연성의 양태 표현 중에서도 ‘-을 것이-’가 ‘-을 것 같-’보다 명제 실현의 가능성이 높은 표현이며, 가능성의 표현 중에서 ‘-을 수 있-’이 ‘-지도 모르-’보다 명제 실현의 가능성이 높은 표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 3. 스페인어 서법 유형

RAE(2010:473)<sup>5)</sup>에서는 “서법은 제공된 정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밝힌다, 즉 주어진 혹은 기술된 내용에 대한 화자의 관점”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스페인어의 서법이 화자의 관점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스페인어의 두 개의 서법 직설법(modo indicativo)과 접속법(modo subjuntivo)을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는데, 많은 논의 중에서도 Lunn(1995:430)은 직설법과 접속법을 설명하기 위해 단언성(assertability)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즉, 직설법은 화자가 명제에 대하여 단언적인(assertable) 태도를 보일 때, 접속법은 단언적이지 않은(less assertable)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하였다. 단언적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제가 사실이 아닌 경우와 명제가 전제이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 구정보인 경우를 언급하였다.

스페인어의 직설법과 접속법의 대표적 차이점은 출현 영역이다. 접속법은 주로 종속절에서 나타나는 데에 비하여,<sup>6)</sup> 직설법은 주절, 종속절 관계없이 나타난다. Pérez(1999)는 접속법의 용법을 다음 3가지로 구분한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나 소원을 나타내는 ‘소원의 접속법(subjuntivo optativo)’, 종속절을 확인하지 않는 ‘의심의 접속법(subjuntivo dubitativo)’, 전제된 사실로서 부차적인 정보인 것을 나타내는 ‘주제의 접속법(subjuntivo temático)’이다.

이러한 접속법의 쓰임은 김현식(2014:142-153)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분류되었는데, 특별히 명사절에서의 접속법이 나타나는 경우를 9가지로 나누었으며 이는 Pérez(1999)가 분류한 세 유형의 접속법에 대부분 포함되는 내용이다.<sup>7)</sup>

- (5) a. Creo que eres mi amigo.  
 믿다 접속사 이다.2 인칭단수.현재.직설 내 친구  
 ‘네가 내 친구라는 것을 믿는다.’

5) RAE(la Real Academia Española)는 스페인어 규정을 총괄하는 왕립 학술 기관으로 ‘스페인 한림원’으로도 불린다.

6) 접속법이 종속절 외의 영역에서 출현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단문에 나타난 접속법을 다룰 때 설명하기로 한다.

7) 김현식(2014:142-153)에서 서술한 기대, 의도, 회구, 권고, 부탁, 사역은 소원의 접속법에, 확신/인정 등 나타내는 동사 부정, 지각동사/인지동사 부정, 내용전달 기능을 갖는 동사구 부정, 의문은 의심의 접속법에, 가치 평가를 나타내는 동사구,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구와 쓰인 접속법은 주제의 접속법에 포함된다.

- a'. Dudo que seas mi amigo.  
 의심하다 접속사 이다.2인칭단수.현재.접속 내 친구  
 ‘네가 내 친구라는 것을 의심한다.’

(5a)에서는 친구라는 명제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믿는다’라고 하였고 때문에 단언적인 태도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다(ser)’의 직설법 현재 2인칭 단수 형태를 사용하였다. 반면 (5a)에서는 같은 명제에 대해 ‘의심한다’라고 말하며 단언적이지 않은 태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같은 동사의 접속법 현재 형태를 사용하였다. 즉, 두 문장을 통하여 직설법과 접속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화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문장에서 말하는 ‘너’라는 사람이 그의 친구인지 알 수 없지만, (5a)에서는 화자가 그 사실을 믿는 태도를 지니므로 직설법을, 반대로 (5a)에서는 의심하는 태도를 지니므로 접속법을 사용하였다.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절은 어떤 대상을 꾸밈으로써 그 대상의 의미를 한정하거나 언급한 대상을 설명한다.<sup>8)</sup> 수식 받는 명사가 특정된 대상인 경우, 즉 화자가 알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상일 때 관계절에 직설법이 쓰인다. 한편, 부정(不定)적 대상을 수식하는 관계절에서는 접속법이 사용된다.

- (6) a. Tengo dos hijos que son médicos.  
 가지다 두 아들 관계대명사 이다.현재.직설 의사  
 ‘의사인 아들이 두 명 있다.’  
 b. ¿Hay alguien que sea médico?  
 있다 누군가 관계대명사 이다.접속 의사  
 ‘의사이신 분 계신가요?’

(6a)에서 명사 ‘hijos’는 화자가 알고 있는 대상이므로 관계절에 직설법이 쓰였다. (6a)의 형용사절은 대상을 한정하며 자녀 중 직업이 의사인 아들이 둘 있다는 의미를 구성한다. 한편, (6b)는 의사의 존재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의사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장이므로 접속법이 쓰였다.

이유와 결과의 부사절은 대표적으로 직설법이 쓰이는 부사절이다. 양성혜(2020:76)은 이에 대하여 이유의 부사절은 주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므로 이미 선행된 사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화자가

8) 관계절의 용법에는 수식 받는 명사의 의미를 한정하는 한정적 용법과 앞의 내용을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이 있다.

자신의 발화를 단언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결과의 부사절도 주절의 원인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므로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단언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한편, 접속법은 화자의 명제에 대한 태도가 단언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양보, 조건, 시간(미래), 목적의 부사절에서 주로 나타난다. 양보의 부사절은 전제 또는 구정보, 조건, 목적의 부사절은 전제된 사실을 말하며, 미래 사건의 시간 부사절 또한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한다는 점에서 전제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 (7) a. Necesitamos apresuramos porque no tenemos tiempo.  
필요하다 서두르다 왜냐하면 부정 가지다.현재.직설 시간  
'우리는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
- b. Aunque las espinacas tengan vitaminas, no las como.  
접속사 관사 시금치 가지다.현재.접속 비타민 부정 그것 먹다  
'시금치가 비타민이 많다고 할지라도 먹지 않는다.'

(7a)에는 '시간이 없으므로'라는 이유 부사절이 사용되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이유와 결과의 부사절에는 대부분 직설법이 사용된다. 이와 달리 (7b)에는 '비타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의 부사절이 등장한다. 시금치에 비타민이 많다는 전제가 성립된다고 하여도 먹지 않겠다는 의미의 문장으로, 이때 부사절은 전제된 사실이므로 접속법이 사용되었다.

접속법은 대부분 종속절에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절과 종속절로 구성되지 않은 하나의 문장인 단문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접속법은 아래와 같이 가능성이 낮은 소원, 기원 등을 표현하는 문장에서 주로 나타난다.

- (8) a. Quizás llegará mañana.  
아마 도착하다.미래.직설 내일  
'아마 내일 도착할 것이다.'
- a'. Quizás llegue mañana.  
아마 도착하다.현재.접속 내일  
'아마 내일 도착할지도 모른다.'

Pérez(1999)에서 말하는 '소원의 접속법'은 주로 종속절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독립절에서 쓰이면 희박한 가능성의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곧, 실현 가능성이 낮은 소원이나 기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8a)에서는 내일

도착할 것이라고 단순히 추측하고 있으므로 직설법 미래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8a)는 내일 도착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을 접속법을 활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 4. 한국어 양태 표현과 스페인어 서법의 대조

앞 장의 내용을 통해 한국어 양태는 판단의 차원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속하는 양태 표현은 명제의 실현 가능성에 따라 다시 여러 의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스페인어의 서법 유형인 직설법과 접속법 중 하나를 선택할 때에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단언적인지 아닌지가 기준이 된다. 어떤 명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완전히 같은 기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존재한다. 직설법이 사용된 명제가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접속법 중 의심의 접속법은 의미상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정보와 관련된 주제의 접속법은 때로 이미 실현된 명제를 기술할 수도 있으며 소망의 접속법은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요구, 요청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조건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특정 텍스트를 선정하여 같은 문장이 한국어 양태 표현과 스페인어 서법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먼저 의지, 의도, 능력의 양태 표현은 대체로 직설법과 대응할 것으로 본다. 동적 양태는 화자 개인의 내재적 판단이 표현된 양태 유형이다. 접속법은 주로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때에 나타나므로, 동적 양태와 접속법이 대응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소망의 양태 표현은 스페인어에서 접속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화자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기 소망한다면 직설법으로 표현하겠지만, 다른 이가 어떻게 하기를 바랄 때는 접속법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소망의 접속법으로 설명한 접속법의 용법에 해당한다.

당위 양태 표현은 명제 실현의 가능성의 정도가 낮은 표현은 접속법에 대응하고 가능성의 정도가 높은 표현은 대체로 직설법에 대응할 것이다. 다만, 의무, 필요의 양태 표현은 명제 실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접속법으로도 표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역하면 ‘-는 것이 필요하다’로 번역되지만 ‘-어야 되다/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은 스페인어에서 직설법으로도 접속법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접속법으로 표현될 때는 주제의 접속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구문9)에서

주로 나타난다.

인식 양태 표현도 명제 실현의 가능성의 정도가 낮은 표현은 접속법에 대응하고 가능성의 정도가 높은 표현은 대체로 직설법에 대응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긍정 확실성과 개연성의 의미를 지니는 양태 표현은 대체로 직설법에 대응하는 반면에, 가능성과 부정 확실성의 의미를 지니는 양태 표현은 대개 접속법에 대응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한국어 양태와 스페인어 서법이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하였으나 실제 발화에서 어떻게 대응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플릭스의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의 대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비교하여 담화 텍스트에서 한국어 양태와 스페인어 서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겠다.<sup>10)</sup>

- (9) a. Viviremos aquí.  
살다.미래.직설 여기  
'이곳에 살 거야.'
- b. Quiero que lleves tú la negociación.  
원하다 접속사 가져가다.현재.접속 네가 관사 협상  
'자네가 협상해줬으면 해.'
- b'. Yo solo quiero pensar en una cosa.  
나 오직 원하다.현재.직설 생각하다 전치사 하나 일  
'한 가지만 생각하고 싶어.'

(9a)는 동적 양태 표현이 직설법에 대응하는 대표적 예로서 의지의 양태 표현 '-을 것이.'가 스페인어의 직설법 미래로 표현되었다. 이 외에 의도와 능력의 양태 표현 역시 직설법에 대응한다. (9b)는 접속법 현재로, (9b')는 직설법 현재로 표현되어 소망의 양태 표현 '-었으면 싶-/하-', '-고 싶-'이 스페인어의 서법과의 대응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두 양태 표현 '-고 싶-'과 '-었으면 하-'의 차이로 인하여 이에 대응하는 스페인어 문장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태 표현 '-고 싶-'은 화자 자신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며 '-었으면 하-'는 다른

9) 가치 평가 구문은 보통 '동사 ser(이다) + 형용사(필요하다, 중요하다 등) + 명사절'의 전형적인 구조를 띠며, 종속절에 오는 명사절에서는 항상 접속법이 쓰인다.

10) 한국어 양태와 스페인어 서법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실제 자료로서 드라마 <종이의 집>의 대본을 선정할 이유는 실제 담화에서 쓰일 만한 대사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공식 대본과 번역본이 제공된다.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하기 바라는 소망을 나타낸다. 화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소망을 서술하는 ‘-고 싶-’은 단언적이므로 직설법에 대응하지만, ‘-있으면 싶/하-’는 화자가 아닌 다른 주체가 결국 주어가 되기 때문에 비단언적이므로 접속법에 대응하게 된다. 정리하면 동적 양태 표현은 ‘-있으면 싶-/하-’를 제외하고 모두 직설법에 대응한다.

<표 1> 동적 양태 표현과 스페인어 서법의 대응

잠재성 정도	동적 양태 표현	스페인어 서법
높음 ↑ ↓ 낮음	[의지] -겠-, -을 것이-	직설법
	[능력(긍정)] -을 수 있-, -을 줄 알-	
	[의도] -으려고 하-, -고자 하-	
	[소망] -고 싶-	
	[소망] -있으면 싶-/하-	접속법
	[능력(부정)] -을 수 없-, -을 줄 모르-	직설법

따라서 위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동적 양태 표현 ‘-고 싶-’과 ‘-있으면 싶-/하-’는 같은 의미 유형인 소망의 표현인데 각각 직설법과 접속법에 대응하며, 다른 동적 양태 표현은 모두 직설법에 대응한다.

- (10) a. Tienen que estar visibles durante toda la visita.  
 -어야 한다.현재.직설 이다 보이는 전치사 모든 관사 시가  
 ‘늘 걸고 있어야 해. (늘 보여야 해.)’  
 a'. No deberíamos permitir que este delito interfiera  
 부정 -해야 한다 허락하다 접속사 이 범죄 방해하다.과거.접속  
 ‘사건이 우리 우정을 방해하면 안 되지.’  
 b. Pues claro que me verás.  
 감탄사 물론 접속사 나를 보다.미래.직설  
 ‘당연히 볼 수 있죠.’  
 c. No  tienes que fregar los platos.  
 부정 -어야 한다.현재.직설 문질러 씻다 관사 접시  
 ‘설거지는 안 해도 돼.’

(10a)에서 의무의 양태 표현 ‘-어야 하-’는 직설법으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10a')처럼 가치 평가 구문을 사용해서 한다면, 접속법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10b)는 대표적으로 당위 양태 표현이 직설법에 대응하는 예로서 권한의 양태 표현 ‘-을 수 있-’이 직설법 미래로 표현되었다. (10c)에서는 면제의 양태 표현 ‘-어도 되-’가 직설법 현재가 사용되어 비교적 높은 가능성의 정도가 표현된다. 면제의 양태 표현은 스페인어에서 의무의 양태 표현에 해당하는 문장의 부정 형태로서 나타나지만, 가치 평가 구문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반면에 제한의 양태 표현은 스페인어에서 의무의 양태 표현을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직설법으로도 표현되고 가치 평가 구문과 함께 쓰일 때는 접속법으로도 표현된다.

<표 2> 당위 양태 표현과 스페인어 서법의 대응

잠재성 정도	당위 양태 표현	스페인어 서법
높음 ↑ ↓ 낮음	[의무/필요] -어야 되-/하-	직설법/접속법
	[권한] -을 수 있-	직설법
	[면제] -도 되-	
	[용인] -으면 되-	
	[제한] -으면 안 되-, -을 수 없-	직설법/접속법

다시 말해, 당위 양태 표현 중에 의무, 필요의 양태 표현과 스페인어에서는 이를 부정한 것에 해당하는 제한의 양태 표현은 직설법 또는 접속법으로도 표현되고 나머지, 즉 권한, 면제, 용인 표현은 직설법으로 표현된다.

- (11) a. Bueno, pues iré caminando a la carretera.  
 좋다 감탄사 가다.미래.직설 건다.분사 전치사 관사 도로  
 ‘그럼 큰길까지 걸어가는 수밖에요.’
- b. Creemos que no menos de seis.  
믿다.현재.직설 접속사 부정 더 적다 전치사 6  
 ‘6명은 안 될 거예요.’
- c. A lo mejor Mónica hubiera preferido que se olvidara.  
 아마도 모니카 선호하다.과거완료.접속 접속사 잊어버리다  
 ‘어쩌면 모니카는 그가 잊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 c'. A lo mejor sí que lo he hecho.  
 아마도 감탄사 접속사 그것을 하다.현재완료.직설  
 ‘그랬는지도 모르지.’

(11a)와 (11b)는 인식 양태 표현이 직설법에 대응하는 예이다. (11a)에서는 확실성의 표현 ‘-는 수밖에-’가 직설법 미래로, (11b)에서는 개연성의 표현 ‘-을 것이-’가 직설법 현재로 표현되었다. (11c)에서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양태 표현 ‘-지도 모르-’가 접속법 과거완료 형태가 사용되어서 낮은 사태 실현의 잠재성이 표현되었다. (11c)의 ‘그러하다’라는 사태의 실현 잠재성은 낮게 평가되지만, 스페인어에서는 화자가 명제에 대한 단언적 태도를 지닐 때 사용하는 직설법 현재완료가 쓰인 것이다. 심지어 (11c)와 동일하게 ‘a lo mejor(아마도)’라는 표현을 포함하지만, 접속법이 아닌 직설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화자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스페인어에서 서법의 선택은 문법적으로 고정된 형태에 따라 쓰이기 때문에 스페인어 화자의 경우에 고민 없이 거의 기계적으로 직설법과 접속법을 구분하여 사용하지만, 여전히 화자의 주관에 따라 서법의 선택이 가능한 영역도 존재하는 것이다.<sup>11)</sup> 사실 서법의 정의 자체에서 결국 화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양태가 화자의 판단을 표현하는 범주인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표 3> 인식 양태 표현과 스페인어 서법의 대응

잠재성 정도	한국어 양태 표현	스페인어 서법
높음 ↑ ↓ 낮음	[확실(긍정)] -을 수밖에 없-, -을 법하-	직설법
	[개연] -을 것이-, -겠-	
[개연] -을 것 같-, -을 모양이-		
	[가능] -을 수 있-	접속법/직설법
	[가능] -지도 모르-	
	[확실(부정)] -을 리가 없-, -을 턱이 없-	접속법

인식 양태 표현은 이론적으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높은 표현은 직설법으로, 가능성이 낮은 표현은 접속법에 대응한다. 하지만 ‘-지도 모르-’와 같은 가능성의 양태 표현은 직설법으로도 표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 표와 같이 인식 양태 표현과 스페인어 서법의 대응 양상을 제시한다.

11) 양성혜(2020:72,92-95)에서도 Cuenca(1991), Galán(1999), Pérez(1999) 등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화자가 높은 정보로서 또는 낮은 가치로서 명제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결국 어떤 서법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마지막 기준이 된다는 주장은 유효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대응 양상 분석 결과를 볼 때 언어 문화와 관련된 사항 또한 고려해야 한다. 한국어가 모어인 화자는 확실성을 드러내는 한국어의 양태 표현을 적게 사용하는 편이다. 확실성의 표현을 포함한 발화가 듣기에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인은 확실한 상황에 대해 말할 때도 ‘-을 것 같.’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개연성이나 가능성의 표현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sup>12)</sup>

따라서 같은 상황을 두고 스페인어가 모어인 화자는 확실성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한국인은 확실성의 양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같은 언어 문화의 차이는 번역 양상의 차이로도 나타날 수 있다. 스페인어로 확실성의 의미가 표현되면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되지만, 만약 같은 내용이 한국어로 표현된다면 확실성이 회피된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

##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양태와 스페인어의 서법을 대조하였다. 한국어에서는 다양한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명제 실현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표현을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같은 내용이 스페인어 서법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국어의 양태 표현과 어떻게 대응되는지 확인하고자 일련의 연구 과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한국어 양태 체계 및 스페인어 서법 체계를 살펴보았다. 여러 양태 관련 논의 중 전문이(2020:102)의 견해를 따라 “화자가 명제 실현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표현”을 양태의 정의로 보았다. 또한, 그에 따라 판단의 차원에 따라 양태를 동적 양태, 당위 양태, 인식 양태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더불어, 각 유형에 속하는 양태 표현을 의미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이를 다시 명제 실현의 가능성에 따라 정리하였다. 스페인어의 서법은 Lunn(1995:430)에서 주장하였고 여러 연구자가 수용한 단언성의 개념을 활용하여서 직설법은 화자가 명제에 대하여 단언적인 태도를 보일 때, 접속법은 단언적이지 않은 태도를

12) 이와 같은 경향을 언급한 연구로는 김미형(2000), 선은희(2003), 이윤진·노지나(2003), 이미혜(2005), 박선현(2009), 성미선(2009), 김해연(2011) 등이 있다. 김미형(2000)은 ‘-을 것 같.’ 표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에서 해당 표현이 긍정적인 이유로 응답자들은 ‘상냥하다, 친절하다, 예의 바르다, 겸손하다, 부드럽다 등’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이주희(2018)은 면담 결과 완화 표현 ‘-것 같-’을 사용하는 이유는 불확실성 회피, 대화 참여자의 체면 보호, 대화 참여 유도 등 3가지로 정리된다고 하였다.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양태와 스페인어 서법의 대응 관계를 먼저는 이론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어서 실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넷플릭스의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의 대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비교하여 실제 담화 텍스트에서 한국어 양태와 스페인어 서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동적 양태 표현은 직설법에 대응하고, 당위 양태 표현과 인식 양태 표현은 명제 실현의 가능성에 따라 잠재성이 낮은 것은 스페인어의 접속법에, 높은 것은 직설법에 대응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대본을 활용한 대조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부 양태 표현은 스페인어의 직설법과 접속법 모두에 대응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당위 양태의 의무, 필요 및 제한 표현과 인식 양태의 가능성 표현이 그러하다. 그리고 동적 양태 표현 ‘-고 싶.’과 ‘-있으면 싶./하.’와 같은 소망의 양태 표현은 각각 직설법 및 접속법에 대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어는 양태 표현이 발달된 언어이고 스페인어는 서법 체계가 잘 드러나는 언어이며 둘은 화자의 심리적 태도 또는 판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로 대응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만 대응할 뿐만 아니라 담화 텍스트를 활용한 대조 분석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한국어 양태 표현과 스페인어의 서법이 서로 대응하는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식 양태 표현에 대한 대조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언어 문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였는데, 이 점을 한국어 교육과 연관 지어서 양태 표현을 교수할 때 언어 문화와 관련된 설명, 예를 들어 실제 발화 상황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가 확실성의 표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한국어와 다른 언어의 대조분석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양한 언어와의 대조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스페인어와 한국어를 대조한 연구는 스페인어가 모어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논고에서는 한국어 양태 표현과 스페인어 서법의 대조가 수행되어 서법과 대비되는 양태만의 특성이 드러났으며, 이는 스페인어권 학습자가 한국어 양태 표현을 학습할 때에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함을 시사한다. 앞으로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다양한 영역에서 대조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스페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현화 외(2003), 《대조분석론: 한국어·스페인어 문형 대조를 바탕으로》, 서울: 역락.
- 김미형(2000), “국어 완화 표현의 유형과 언어 심리 연구”, 《한말연구》 7, 한말연구학회, 27-63.
- 김혜연(2011), “국어 담화에서 ‘-는 것 같다’의 화용적 의미와 상호작용적 기능”, 《언어와 언어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5-51.
- 김현식(2014), “스페인어 접속법과 다성성(多聲性)”,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7-1,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131-159.
- 박선현(2009), “추측 표현 ‘것 같다’의 완화 기능 연구: 구어 전사 말뭉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89-322.
- 선은희(2003), “한국어 문법 교수 방안 연구: 추측법주 ‘-는 것 같다’, ‘-나 보다’, ‘-는 모양이다’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미선(2009), “한국어 추측표현의 완화어법 양상과 교육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성혜(2020), “스페인어 부사절간의 인지적 인접성과 법의 사용: 직설법과 접속법”,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13-2, 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아메리카연구소, 71-97.
- 이미혜(2005), “대중문화 교육을 통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 모형 설계”,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371-385.
- 이윤진·노지니(2003), “한국어교육에서의 양태 표현 연구-‘추측’과 ‘의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3-209.
- 이주희(2018) “수사적 완화 표현으로서의 ‘-것 같-’의 사용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문이(2020), “한국어 양태의 정형성 및 유형에 관한 인지언어학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Cuenca, María Josep(1991), *L'oració composta (II): la subordinació*, *Biblioteca Lingüística Catalana*, Valencia: Universidad de Valencia.
- Galán-Rodríguez, Carmen(1999), “La subordinación causal y fina”, Ignacio Bosque y Violeta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3597-3642.
- Holton, James S., Roger L. Hadlich, & Norhna Gómez-Estrada, N. (2001), *Spanish grammar in review*, Prentice Hall.
- Lunn, Patricia. V. (1989), “Spanish mood and the prototype of assertability”, *Linguistics* 27, 687-702.
- \_\_\_\_\_. (1995), “The evaluative function of the Spanish subjunctive”, *Modality in grammar and discourse* 32, 429-449.
- Palmer, Frank R. (2001),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érez-Saldanya, Manuel. (1999), “El modo en las subordinadas relativas y

adverbiale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Ignacio Bosque y Violeta Demonte (eds.), Madrid: Espasa, 3253-3322.  
Real Academia Española(2010),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저자명: 신성은  
소속: 한국외국어 대학교, KFL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주소: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이메일: pos01286@naver.com

접수일: 2022. 02. 03  
심사일: 2022. 02. 22  
총평일: 2022. 02. 28

*This page left blank*

## 언어유형론 연구 (7권 1호)

---

발행인 : 목정수

발행처 : 한국 언어유형론 학회 (kalt.jams.or.kr)

연락처 : 학회 사무실

13670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북악관 1511호

임근석 교수 연구실 내

TEL : 02) 910-4364

E-mail : gslim@kookmin.ac.kr

---

발행일 : 2022년 2월 28일

---

※ 본 학회지의 저작권은 한국 언어유형론 학회에 있음.

ISSN 2383-5206

*This page left blank*

# Linguistic Typology Research

Volume 7(1)

February 2022

## Contents

- An analysis of theme-rheme and topic-comment in information structure of Korean: based on sentence-initial and aboutness ..... Haegwon Jeong / 1
- Some Notes on Issues of Relativization ... Jieun Lee / 29
- A Lexical Typological Study on Korean and Chinese SHARP adjectives ..... Bo-wen Hou / 63
- A Semantic map of Arabic Verbs Corresponding to Passive in Korean ..... Mi-hee Kang / 95
- A Contrastive Analysis between Korean Modal System and Spanish Mood ..... Seong-eun Shin / 121

**Korean Association for Linguistic Typology**